현대불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7월 14일(음력5월 27일) 수요일 (주간) 제482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나누는 것이 가장 큰 불사”

광주 혜룡사 혜우 스님 보시행 ‘잔잔한 감동’

정재 모아 군부대 교도소 위문 · 노인잔치 앞장

우리이웃

7월 1일, 전남 나주 공군부대와 담양 특전사에서 장병위안공연이 열렸다. 가끔 접하는 군부대 위문이지만 이날 공연은 특별했다. 노스님이 혼자의 힘으로 두 개 부대 1500여명의 장 · 사병들을 위문했기 때문이다.

광주 무등산 혜룡사 주지 혜우 스님(68 · 미타종 부종정). 군부대 위문공연을 혼자 했다고 하면 억지 같지만 누구하나 부인하지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신도들 도움 없이 스님이 여기저기 법문하고 받은 거마비에 가끔 들어오는 재(齋) 비용을 모아 천여 명의 장병들은 위문한 것이기 때문이다. 4년째 계속 되어오고 있는 연례행사다.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혜룡사는 법당 옆에 방을 내서 대중이 기거하는 인법당으로 ‘토굴’에 불과하다. ‘큰스님’이란 소문에 참배 온 사람치고 놀라지 않은 이가 없다. 신도들은 ‘번듯한 부처님 집(법당) 짓자’고 안달이고, 스님은 그러는 신도들을 호되게 나무란다.

“지금 한국에 있는 절도 많아. 가진 것이 있으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것이 부처님 집 짓는 것이여. 복으로 치면 법당 기둥 보시한 것 보다 더 큰 거여.”

혜룡사 법당 부처님 앞에는 특이하게도 보시함 대신 접시모양의 나무함이 놓여있다. 누군가 참배하고 보시금을 놓으면 거두지 않고 여기에 놓아둔다. 필요한 이가 있으면 가져다 쓰라는 스님의 배려에서다.

공양미도 마찬가지다. 법당 한편에 포대 째 쌓여있다. 배고픈 이는 아무나 가져다 먹으라는 것이다.

스님의 보시행은 이뿐이 아니다. 매년 광주의 동서남북 구별로 노인잔치를 베푼다. 광주교도소는 물론 청송, 부산, 청주, 대구 등 전국의 교도소 재소자들을 정기적으로 위문한다. 그동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학비지원은 숫자가 많아 몇인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

수행삼아 붓글씨를 즐기는 스님은 호주머니에서 꺼내 줄 것이 없으면 달마도나 글씨 한점이라도 건네며 부처님 마음으로 살라고 당부한다.

일년이면 공연이 10여 차례가 넘다보니 아예 공연단이 신도이고 신도가 공연단이 되곤 한다. 위문공연차 스님을 만났다가 스님의 뜻에 감동해 대부분 신도가 된 것이다. “그동안 훌륭한 분은 위인전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님을 만나고 놀랐어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님은 남에게 하나라도 못줘서 안달입니다. ‘이거 가져가’가 스님의 레퍼토리예요”

혜룡사 신도회 총무를 맡고 있는 배소연 씨. 트로트 가수로 활동중인 배씨도 스님의 위문공연에 왔다가 신도가 됐다.

위문공연단은 많으면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출연료만 해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위문이니 떡, 과일 등 먹거리까지 준비하다 보면 그 비용이 엄청나다. 그래도 요즘은 스님 일이라면 만사 제쳐두고 나서는 연예인이 꽤 된다.

1일 오후 2시, 창설기념 체육대회가 한창인 나주 00부대 연병장에 무대가 설치됐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장병위안공연은 예술단의 열정과 장병들의 패기가 어우러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부대장의 포상휴가 선물에 장병들이 온 몸을 바쳐 펼친 장기에 열기가 더해갔다.

이어 5시, 담양 특전부대로 긴급 이동한 공연단은 또다시 어둠이 내릴 때까지 마지막 끼를 발산했다. 각설이의 걸쭉한 입담 속에 돌아가는 찌그러진 깡통. 공연 내내 장병들과 한 몸이 된 공수여단장 정상덕 준장도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다.

“전방에 비해 후방은 위문공연이 흔치않은 편입니다. 군인들은 사기로 먹고삽니다. 이렇게 마음껏 젊음을 발산하고나면 병영에도 활기가 넘쳐납니다. 아울러 장병들은 스님의 인품에서 부처님을 만납니다. 스님을 오래오래 기억하거든요.” 공수 특전사 불자회장을 맡고 있는 오원석 중령은 “스님이 마련해준 위문공연이야말로 최고의 야단법석이다”며 혜우 스님에게 고마워 했다.

혜우 스님이 포교의 황금어장 군부대에서 ‘이것도 가져가’라며 말없이 준 것은 군인의 사기뿐 아니라 불법(佛法)이었던 것이다.

혜룡사 (062)224-5588

나주 · 담양=이준엽 기자


7월 1일 장병위문공연에서 장병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혜우 스님. 이날 나주 공군부대 담양 특전사의 두 부대장이 혜우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참회하고 사과하라.” 이명박 시장에게 항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불교단체 대표들이 7월 6일 서울시청을 방문했다. 사진=강유신 기자

‘범불교 규탄대회’로 강력대응

이명박 시장, ‘봉헌’ 발언 관련 사과 요구 거부

‘서울 봉헌’ 발언 파문(본지 481호 1면 기사 참조)과 관련해 이명박 서울 시장이 7월 8일 현재까지 불교계의 공식사과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는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범불교 규탄대회’ 열기로 하는 등 이 시장의 참회와 사과를 요구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를 비롯한 34개 단체는 7월 8일 서울 중앙신도회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빠른 시일 내에서 불교 사회단체 대표자, 신도회 대표자 등이 참석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 시장을 규탄하는 ‘범불교도대회’를 19일경 시울시청 앞에서 개최키로 했다. 또 망언을 규탄하는 현수막도 전국 사찰에 내걸 방침이다.

이 시장 ‘망언’에 대한 불교계의 규탄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 경기 · 강원 지역 조계종 본 · 말사 240여 명 주지스님들은 7월 8일 이 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태고종 보우승가회와 천태종 관문사, 부산시불교연합회에서도 이 시장 망언 규탄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경북 5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7월 13일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신도회 등 경북 신도단체들도 규탄 성명서를 냈으며 평불협 동산반야회 등은 7일 이 시장 퇴진운동 서명식을 가졌다. 강유신 기자

“책 읽기 바람 일으켜 불황 극복하자”

불교출판인 모임, ‘종이거울보기’ 등 운동 전개

‘고사위기’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불교 출판계가 장기적인 불황을 타개하고 ‘문서 포교’의 역할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불교출판에 종사하는 편집자와 영업자, 서점 대표자들은 ‘불교출판인 모임’을 새로 구성하고7월 2일 ‘불교 출판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불교 출판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에는 현재의 출판 위기를 반영하듯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열악한 출판 현실을 개선해 나갈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3시간 동안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불서읽기 운동 전개,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양서 발간, 도서거래형태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불교출판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시도는 바로 ‘독서운동 전개’다.

민족사 윤창화 대표가 주축이 돼 9월부터 전개하게 될 독서운동인 ‘초심자를 위한 불서 읽기 모임’은 1주일에 한 번 씩 모여 부처님의 생애를 비롯한 불교교리, 입문서, 개설서 등 기초적인 불서를 읽는 모임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안성 도피안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종이거울 자주보기운동’과 함께 불교계 내에 ‘책읽기 바람’을 일으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불교 출판계 종사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더해 본격적인 불교계 책 읽기 운동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는 종단과 사찰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각 종단의 본사급 사찰이나 대형 사찰에 도서관을 마련하고 종단 차원의 독서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책읽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는 것이 출판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윤 대표는 “가까운 일본의 경우 각 종단 본원은 물론 사찰마다 대형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다”며 “우리도 종단의 총무원이나 본산, 또는 대형 사찰에서는 반드시 도서관을 설치해 불자들이 쉽게 불서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찰도서관을 통해 불자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인근 주민을 위한 지역도서관으로 개방함으로써 포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단이나 사찰에서 연간 도서구입예산을 편성해 ‘불자 필독서’들을 구비하고, 스님들은 법회 때 마다 양서를 선정해 책읽기를 권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출판연구소 윤청광 이사장은 “문서포교의 일환으로 불서출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단의 체계적인 신도교육과 독서분위기 형성으로 불서 읽기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22면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우리이웃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그림 · 조태호

지유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 일	시 간	법 회 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지장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 · 동선회	주제별특강

금주의 발원
[天台圓法師發願文]
이내생명 다하도록 다른생각 전혀없이
아미타불 오롯하게 서로이어 따르오리
마음일랑 끊임없이 옥호광에 이어지고
순간순간 변함없이 금색상에 닿아있네
내가잡은 이염주는 온법계의 묘관이며
허공으로 끈을삼아 꿰지못함 전혀없네
평등하신 노사나불 안계신곳 어디랴만
서방에서 아미타불 관 하 고 구하려네
사십팔원 원력으로 아름답게 장엄하신
서방정토 극락세계 그세계의 주인이신
무 량 수 부처님께 두손모아 귀의하고
무 량 광 부처님께 마음모아 의지하리

특별기도
[1] 천도의 명절 백중기도 : 기도비 50,000원이상
2004년 7월 11일-8월 30일(만 50일간)
[2] 사랑의 명절 칠석기도 : 기도비 30,000원이상
2004년 8월 15일-8월 22일(만 7일간)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댁과 친정으로 나누어 위패를 모시며 영가님 수에 관계없이 한 쪽이 50,000원씩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별히 큰법당에 영가등을 기도기간 내내 달아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재가 종무원의 '위치'는?

고려시대부터 사찰에서 고용하던 노복을 정인(淨人)이라고 불렀다. 사찰노비제도가 없어진 후에는 스님이 아닌 사람으로 절에 의탁하면서 스님들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했다. 정인은 사찰에서 의식주를 해결하지만 급여를 받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부터 사찰에서 급여를 받고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재가종무원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재가종무원은 운전기사, 공양주, 부목 등 기능직, 사무원과 사무장 등 종무행정직, 그리고 건축 및 공사 등을 담당하는 일용직 등 다양한 일을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고용계약에 따른 정식 직원이라기보다는 일용잡급직 정도의 처우를 받았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고학력 전문 인력이 재가종무원으로 유입되면서 신분보장에 대한 요구와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재가종무원의 신분보장은 원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일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신분보장을 위해서는 사찰이 고용주체가 되고 종무원이 피고용인이 되는 고용계약과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지소임이 정기적으로 교체되고, 재정이 불안정한 사찰에서 종무원의 신분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인력에 대한 신분보장은 사찰과 불교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신분보장을 위해서는 종무원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문성은 업무의 숙련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과 불교 전체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스님과 신도들 모두가 종무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종무원이 사찰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취약해진다.

사찰의 종무원은 단순 기능직 수준에서 벗어나 스님을 보좌하여 사찰관리 및 전문 포교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는 매우 복합적인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고학력 전문인력 역할 증가세
발전의 한축 · 신분보장 분명히

종단 차원에서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종무원들이 해당 분야에 자질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종단은 종무행정과 포교, 상담, 문화재 관리 등 여러 영역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야 되고 종무원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종교조직은 신도들의 보시금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신도들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무원이 필요하다.

크게 본다면 사찰의 고용 주체는 신도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종무원의 신분보장과 전문성은 노사관계와 같은 고용계약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찰에서의 필요성과 구성원의 인식 전환, 그리고 노력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다.

■ 김응철(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집중점검 -조계종 포교사제도 '허점' 많다

활동여건 · 공간 없어 '장롱자격증'

'재가자가 법문을?' 외면 일쑤…지원도 미비
지위확보 · 재교육 · 관리시스템 등 대책절실

오는 10월 실시되는 포교사 고시를 앞두고 이를 준비하는 불자들이 많다. 그러나 막상 포교사 고시를 통과해 포교사가 되더라도 실질적인 현장 포교 활동은 쉽지않은 실정이다. 포교사 중요성 인식공유 부재, 교육시스템 미비, 종단적 지원 부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행 포교사 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은 뭘까?

 # 현황과 문제점

조계종 포교원과 포교사단이 지난해 조사한 '포교사단 팀활동 포교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984년부터 2003년까지 배출된 포교사는 총 7000여명으로, 연간 300여명의 포교사가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배출되는 포교사 중 실제 포교현장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는 2054명(2003년 기준)으로 30%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포교사 자격을 갱신한 기존포교사까지 모두 합쳐도 3000여명이 안되는 적은 수치. 또한 활동 역시 사찰안내와 군부대 · 교도소 활동 등에 집중되고 있다.

D 포교사의 경우, 인근의 사찰에 거사법회를 이끌며 포교활동을 하려 했지만 주지스님과 사찰 신행단체들이 "재가불자가 어떻게 재가불자를 가르치냐"고 강력히 반대해 결국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내 중 · 고등학교에서 불교학생회를 이끌고 있는 Y 포교사 역시, 포교활동을 원하는 사찰과 포교단체가 없어 사비를 들여가며 일반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어렵게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Y포교사는 "현장 경험이 없는 포교사들을 교육시킬 교육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 많은 포교사들이 포교활동 자체를 꺼리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 밖에도 포교사 활동에 따른 보수체계 부재와 포교사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 미비 등도 포교사들의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포교사들은 "포교사들이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포교사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공유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포교사들에게는 '재가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녀 사찰이나 각 포교단체에서의 활동에 적잖은 제약을 받아왔다. 따라서 종단 내에서부터 포교사 제도에 대한 취지와 중요성 등을 인식하고, 각 사찰과 포교단체의 연수교육 때 포교사 활용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포교사를 적극 활용한 사찰에 대해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주어 포교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교사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지식, 불교적 소양들을 포교현장에 연계 · 발전시킬 수 있는 현장실습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포교사단이 포교사 사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지만, 불교대학 교육의 연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역시 필수이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0~30% 정도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종단이 포교사를 배출하고 자격을 관리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포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종단 산하에 포교사 전문교육기관 등을 설립해 적극적으로 포교사를 양성,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포교사 활동 내역에 따른 활동비를 별도 지급하고, 각 포교계층별 포교방법 연구와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포교사단은 적은 인력과 재정으로 그 동안의 활동을 유지 · 관리하기에 급급해, 포교방법 연구는 물론 상대적으로 포교활동이 강조되야 하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와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포교활동은 엄두를 못 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은경 기자

군승특별교구법 입법예고

30일까지 조계종 홈피서 의견 수렴

군대 내의 포교업무를 담당할 군승특별교구 설치를 규정한 조계종 '군승특별교구법'이 7월 5일 입법 예고됐다.

조계종 포교원은 법안을 7월 30일까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hhism.or.kr)에 게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군승특별교구 설치법은 이 과정을 거친 뒤 중앙종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된 군승교구특별법에 따르면, 군승교구는 국방부 원광사에 교구 종무소를 두고 군승과 군사찰, 군신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할한다. 군승교구 주지는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종덕 이상의 비구 가운데 군포교 원력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군승은 일반 스님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지만 복무 기간 중 혼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 및 피선거권은 복무기간 동안 제한된다. 또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 과정을 거쳐 선발, 총무원장이 파송과 소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신도들의 근본도량으로 삼는 군사찰은 대한불교조계종 ○○사로 통일하여 호칭하고 분담금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상임위원회는 군승교구 주지 추천, 군승 인사 및 상벌, 군승 자원의 선발과 교육, 군포교 예산과 사업계획 편성, 군사찰 분담금 납부 등에 관한 의결권을 갖는다.

구성은 군승교구 주지를 당연직 의장으로 총무원 총무부장, 기획실장, 교육원 교육부장, 포교원 포교부장, 총무원장이 추천하는 5명 이내의 스님과 국방부 및 육 · 해 · 공군 군종감실 선임 군승 4인, 군승회의에서 선출한 6명의 군승 등으로 짜여지도록 했다. (02)2011-1895

박봉영 기자

본말사 주지 연수 시작

조계종, 7일부터

조계종 본 · 말사 주지연수가 7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권 스님들을 대상으로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시작됐다.

올해 주지연수는 '주제별 심화교육'이 처음으로 시도됐다. 그동안 일괄적으로 교과목을 배정하지 않고 연수 참가자가 환경, 상담, 자원봉사, 상장례, 문화기획 가운데 한 과목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수강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다음 연수는 충청권(7월 14~15일), 대구 · 경북권(22~23일), 부산 · 경남권(28~29일), 호남 · 제주권(8월 4~5일) 순서로 진행된다.

조용수 기자

실장에 심경 특보에 현담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에 심경 스님이, 사서특보에 현담 스님이 7월 5일자로 각각 임명됐다.

심경 스님(사진)은 1969년 사미계, 73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75년부터 봉림사 · 만기사 · 반야사 주지, 2000년 총무원 재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대승종 총무원장 혜심스님 14일 취임

제9대 대승종 총무원장 혜심 스님(홍천 실상사)의 취임법회가 7월 14일 오전 11시 성남 분당 뉴타운웨딩홀 5층에서 열린다.

이날 취임법회에서 혜심 스님은 종단 화합을 최우선 목표로 △'작고 알찬 종단' 실현 △종지종풍 진작 △지역교구 재정비 등의 종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중앙종무기관을 해산한다'는 종정 도암 스님의 유시로 내분을 겪어왔던 대승종은 5월 비상종도대회에서 혜심 스님을 새 총무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종단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봉영 기자

혜림스님 · 이재창 교수
동국대 새 이사에 선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현해) 신임 이사에 중앙종회의원 혜림 스님(사진 위 · 정대 스님 후임)과 동국대 이재창 명예교수(사진 아래 · 서돈각 이사 후임)가 각각 선출됐다. 그동안 유회를 거듭하던 동국대 재단이사회는 7월 6일 임원 7명의 출석으로 성원이 이뤄졌으며, 2명의 신임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그동안 미뤄져 왔던 신임 임원 선출과 교육부 교비환수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 교육용 자산 매입(필동 중대부속병원), 2003학년도 결산 승인 건 등도 일괄 처리했다.

조용수 기자

Daewon Buddhist Academic Institute

2004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수강생 전원 장학 혜택(무료) 2년제 야간강의

대원불교대학은 동국제강(주) 창업주이며, 불교방송 개국의 모태인 (재)대한불교진흥원 설립자이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불교 대중화의 원력에 따라 전액 장학 혜택을 주는 불교계 최초의 교양대학입니다.

1. 모집과정

과 정	학 과	모집인원	과 정	학 과	모집인원
대 학	불교학과 통신과정	30명 내외 00명 내외	대학원	불교학과	05명 내외

2. 대학원 지원자격
1)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2) 불교교양대학 수료자. (미 수료자는 대학과정 과목을 이수해야 함)
3) 면접 구술테스트에 의해 학업 능력이 인정되는 자. (학사학위 미취득자)

3. 대학 지원 자격
1)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 2) 신도오계 수지자. (미 수지자 수계 서약서 제출)

4. 전형일정
1) 원서교부 : **2004년 5월 17일 ~ 8월 10일까지** 2) 원서접수 : **2004년 5월 20일 ~ 8월 13일까지**
3) 대학원 전형일 : **2004년 8월 14일(토) 14:00시** 4) 합격자 발표 : **2004년 8월 18일** (개별통보)

5. 전형방법 - 대학과정 (서류 전형 후 합격 발표일 개별통보)
- 대학원과정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 실시) - 일 시 : 2004년 8월 14일 (토) 14:00시 - 장소 : 본 대학 강의실
(단, 학사학위 미소지자는 학원 계획서를 토대를 면접하여 수학능력을 평가함)

6.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입학원서 (본교소정양식) 1부 2) 수계증 사본 또는 수계 서약서.
3) 학업 및 연구 계획서 1부 (대학원 과정) 4)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1부 (대학원 과정)
5) 전형료 : 대학과정 20,000원, 대학원 과정 50,000원 6) 전형료 납부 : 국민은행 098-01-0230-530 (예금주 - 한국불교대원회)

7. 지원자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합격생은 전액 장학 혜택이 주어짐.
3) 월 2회 이상 무단 결석 시 제적처리. 4)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불참 시 합격 취소. (통신 과정도 전원 참석)

8. 각 과정 졸업 사정

과 정	학 과	사 정 내 용
대 학	불교학과 통신과정	출석 과제물 등의 학업 평가에서 과목 낙제가 없는 자 학업 평가 서술 시험을 통과한 자
대학원	불교학과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졸업논문 심사 과정을 통과한 자

9. 대학원 과정 특전
1) 개인지도교수제 (Tutorial System)를 통한 철저한 개인별 지도를 합니다.
2) 지도교수 인솔로 해외불교학술답사를 통하여 세계불교학의 흐름을 접합니다.
3) 대학원 과정 졸업자는 미래학불교학회 입회 자격이 부여되며, 연구 및 강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4) 소정의 수련 과정 이수 후, 법사자격을 부여합니다.

10. 입학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대학 및 대학원 과정 모두 해당)
- 일 시 : **2004년 8월 25일 (수) 오후 6시** - 장 소 : **대원불교대학 큰 법당**

11. 전임 교수진 및 담당 교과목
● 장휘옥 교수 - 부산대학교 화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대학원 석사,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 인도철학과 석 · 박사과정 졸업.
■ 지도과목 : 정토사상, 화엄사상, 중국불교사상사, 한국불교사상사 등
● 허경구 교수 -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석 · 박사과정, 인도 바라나시 힌두대학교 박사 과정 수료.
■ 지도과목 : 인도불교사, 구사학, 경전성립사, 대승불전강독 등
● 김사업 교수 -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석 · 박사과정 졸업, 일본 국립경도대학에서 인도철학 연구.
■ 지도과목 : 중관학, 유식학, 여래장사상 등
● 김종욱 교수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 · 박사 과정 졸업.
■ 지도과목 : 비교종교학, 불교와 철학, 불교윤리학, 현대사회와 불교 등
● 최봉수 교수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 · 박사 과정 졸업.
■ 지도과목 : 불타론, 초기불교연구, 초기불전강독 등

■정규교과과정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불교학개론〉	불타론	〈초기불교〉	초기불전강독
〈인도불교사〉	〈불교경전성립사〉	구사학	대승불전강독
불교와 전화	〈불교윤리학〉	비교종교학	〈불교와 사회〉
정토사상	화엄사상	〈중국불교사상〉	〈한국불교사상〉
중관학	유식학	〈중기대승사상〉	〈여래장사상〉
〈사찰문화특강〉	〈포교방법론〉	불교의식	법회연습

초청특강
초청특강은 불교현장과 연계된 교과들로 과목당 2회 이상 4회 이하로 편성되어 있으며, 해당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습과 답사위주의 현장교육으로 학기 중 주말이나 방학 중에 실시된다.

〈 〉안의 과목은 대학과정 과목임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02)773-9171, 754-1613 FAX 02)771-6796 www.idaewon.or.kr

내년 1월 백두대간보호법 시행…불교계 득실 뭘까

사찰환경 좋아질듯

건축 행위 제한…불사시 신중해야
불교계 의사 반영할 창구 마련 시급

백두대간 지역 사찰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을 보호할 강력한 수단이 생긴다.

백두산에서 시작해, 설악산 · 오대산 ·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총 1400㎞에 달하는 백두대간 지역을 각종 개발 행위로부터 지키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련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보호법)'이 2005년 1월 발효된다. 이에 앞서 7월부터는 산림청과 해당 시 · 도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지도상에 표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8월부터 강원권, 충청 · 경북권, 전라 · 경남권으로 나눠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실시된다. 이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에서는 앞으로 골프장 스키장 등 위락시설은 물론 댐도로 송전탑 건설 등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해진다.

2003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백두대간보호법'은 능선을 기준으로 해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것. 보호구역 지정에는 동식물 생태계의 상태, 산악 지형의 표고와 경사도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 사찰 주변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구역 내의 건축 등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보호구역 안에서는 핵심구역 내 "전통사찰과 문화재의 복원 · 보수 · 이전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설치(제7조 1항)"와 완충지역 내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종교시설의 증축 및 개축(제7조 2항)" 등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그 외에도 이 법은 백두대간 보호 활동을 지원한다. '백두대간보호법'은 백두대간 보호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이에 따라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미뤄졌던 훼손된 사찰 주변 환경에 대한 복원과 조사, 연구 작업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도 있다. 법률 위반 시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불사를 할 경우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전통사찰들을 제외한 일반사찰들은 앞으로 불사 추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불교계 의사가 백두대간 보호 정책 등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백두대간 지역에 174개 사찰과 2,250만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 이해당사자인 불교계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할 '백두대간보호위원회'에서 배제돼 있어, 사찰 현안 사업을 추진할 길이 완전히 막힐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불교계 의사를 반영할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불교계의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 차원에서 '백두대간 보호법'에 대한 법령 개선 작업을 벌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불교계의 입장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17대 국회 정각회 출범

17대 국회정각회가 7월 8일 조계사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집권당 회장론'과 '다수당 우선론' 논란으로 정각회 구성이 겉돈 지 6년만이다. 정각회는 이날 총회에서 전반기(2년) 정각회 임원단으로 회장에 이용희(열린우리당), 수석부회장 박세일(한나라당), 부회장 강창일(우), 감사 윤원호(우), 주호영(한), 간사장 안홍준(한) 등을 선임했다. 일단은 의욕적인 첫 발을 내딛었다. 정각회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할 불교현안이 많다. 전통사찰보존법을 비롯해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정이 요구되는 불교 관련 법령만 10여개에 달한다.

이와 관련, 17대 국회정각회장에 선임된 이용희 의원(열린우리당)을 만나 향후 불교관계 입법활동과 정각회 운영 방침 등을 들었다. 또 정각회가 풀어야 할 불교현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풀어야 할 과제

우선 전통사찰보존법(이하 전사법) 개정이 시급히 추진할 안건으로 대기하고 있다. 전통사찰의 신 · 증축 시 '문광부 장관의 허가' 적용 범위를 놓고, 도시공원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과 상충되는 법조항이 개선돼야 할 핵심.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사찰의 건축물 신 · 증축에 대한 포괄적 우선 규정을 전사법에 둬야 한다는 게 불교계의 입장이다. 이밖에 일반사찰의 농지 소유를 금지한 농지법의 개정, 공익용산지에 전통사찰 신축 불허한 산지관리법 개정 등 관련 국가법령이 많다.

이 같은 불교관계법의 개정은 '수행환경'과 '종교활동' 보장에 초점을 두고, 불교의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야 한다. 또 '행정의 간소화'도 정각회가 지향해야 할 개정방향이다.

정각회는 불교 종단과 국회를 잇는 유기적 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난 15대 경우, 정각회가 불교계의 숙원사업인 불교관련 악법들의 개정 필요성을 집중 부각시키고, 의원입법발의를 통해 불자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발휘했다.

그러나 이번 17대 국회는 불교관련법 개정을 주도했던 핵심 불자의원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함에 따라, 정각회는 불교관련 현안을 서둘러 파악해야 한다. 실제로 17대 정각회원 40명 중 초선의원이 75%(30명)이나 되는 반면, 재선은 7명, 3선 2명, 4선은 1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17대 국회 정각회는 불교 종단 및 관련 단체로부터 불교관계법 개정의 내용을 다양하게 청취,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또 불교관계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내 활발한 입법논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인터뷰 이용희 회장



회원 늘리고 양보할 줄 아는 의원상 만들터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16대 때 회장 선출 문제를 놓고 정각회가 결성되지 못했다. 이제 선두에 서서 정각회를 이끌어 가겠다. 국민과 불자들의 심부름을 하는데 인색하지 않겠다.

▲정각회 운영방침은?

-회원 확보가 시급하다. 국회직원불교신도회가 조사한 현황을 보니, 299명 재적의원 중에 불자는 불과 40명이었다. 현재까지 가입의사를 밝힌 의원은 43명이다. 앞으로 무종교 의원들과 자주 만나 정각회 입회를 적극 권유하겠다. 17대 국회의 화두는 '상생'이다. 이 정신의 바탕은 불교에 있다. 정각회원들이 상생정치를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돕겠다.

▲불교 관련 입법 활동을 어떻게 펼칠지 궁금하다.

-먼저 종단 및 관련 단체로부터 불교 관련 현안과 여론을 수렴, 상임위원회별로 활동 중인 정각회원들이 불교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새롭게 정각회가 출범한 만큼 뜻을 모아 현안들을 풀어가겠다.

▲불교계가 정각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모범이 되고, 양보할 줄 아는 의원상을 우리 정각회원들이 만들어나가겠다. 불자의원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불교계의 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경책하겠다.

김철우 기자

'성보박물관협회' 결성된다

추진위원장에 해운 스님

성보박물관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내는 구심점이 될 '(가칭)성보박물관협회'가 결성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성정) 주최로 7월 7일부터 9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2004년 제1차 성보박물관 실무교육 및 간담회'에 참석한 16개 성보박물관의 실무자 21명은 성보박물관협회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으로 해운 스님(월정사 성보박물관 실장)을 선출했다.

준비위원회는 협회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좀더 수렴하고, 향후 협회 결성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해운 스님은 "그간 성보박물관 구심점의 부재로 인해 문화재 보수, 전시, 수장(收藏) 등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전체적인 노하우 축적이 불가능했고, 정부의 문화재 정책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못했다"며 협회가 조속히 결성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관련 범하 스님(통도사 성보박물관 관장)은 "협의체를 통한 성보박물관 상호교류 및 유대강화가 절실하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협회가 결성되면 성보박물관의 법적 지위와 권익 향상, 학예직 종사자의 체계적 교육은 물론 협회를 주체로 한 다양한 사업 수행도 가능해져 성보박물관의 발전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익순 기자

광주지하철에도 포교게시판 설치

풍경소리 포교게시판이 광주 광역시 지하철 승강장에도 설치됐다. 이로써 경부선, 호남선 등 철도청 운영구간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모든 지하철 역사에서 풍경소리 포교게시판을 만날 수 있게 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이사 혜자)는 지난 6월 10일 광주도시철도공사로부터 포교게시판 설치를 승인받아 1호선 구간 13개역사에 26개 게시판 설치를 6월30일 완료했다.

풍경소리는 광주 지하철에도 포교게시판이 설치됨에 따라 광주 · 전라 지역을 아우르는 풍경소리 포교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템플스테이 여행상품으로

템플스테이 사업단(단장 일관)이 국내 관광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7월 2~6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 불교문화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은경 기자

남북종교인 계속 만나자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ACRP(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집행위원 회의에 참석한 남북한 종교인들이 6월 29, 30일 따로 만남의 자리를 갖고, "남북 공동 관심사인 평화통일을 위해 종교인들의 힘을 모으자"고 결의했다. 이행사에는 KCRP 집행위원 진월 스님, LA 관음사 주지 도안 스님, 북한종교인협회 장재은 회장이 참석했다. 강유신 기자

종교자유 1인시위 고교생 제적

인권위에 진정키로

"종교의 자유를 달라"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던 강의석(18) 군이 개신교재단인 대광고로부터 제적당했다.

강 군은 7월 8일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던 중 불려나가 "오늘부로 제적됐다. 자세한 내용은 우편으로 발송될 것이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강 군은 13일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이에 대광고측은 "강 군에게 전학갈 것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부해 교칙에 따라 제적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군은 다음 카페 종교사랑(cafe.daum.net/whdrytkfkd)을 통해 "제적당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 봐야한다는 주위의 말씀에도 학교가 최종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내려줄 것으로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해인사 불사검토협의회에 환경 · 신행단체 참여 요청

합천 해인사(주지 세민)는 7월 8일, 불교 환경 · 신행단체들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대신해, 이들 단체에 7월 17일 열리는 '해인총림 불사검토 협의회'에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16개 단체들은 대표 3인을 협의회에 참석시키기로 했다.

불교 환경 · 신행단체들은 6월 29일 해인사로 내원암과 신행문화도량 불사와 관련한 23개항의 질의서를 보냈다. 강유신 기자

성 명 서 (안)

우리는 이 명박 서울시장의 "대한민국 수도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종교 편향적 발언과 공인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종교를 빙자한 국민 분열적 작태를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 이명박 서울시장은 공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종교인만의 시장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타종교인과 비종교인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에게 즉각 공개 참회하라.

-. 서울은 서울시민의 것이며, 이 나라 전체국민의 수도로 이 명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서울을 특정종교에 헌납하는 행위를 한 것은 엄청난 직권남용이며 상식을 무시한 처사로 이러한 기본적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이에게 더 이상 수도서울의 대표직을 한시라도 맡길 수 없기에 이명박 시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이 같은 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다종교사회임을 부정하고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고 상호 화합하려는 종교계의 상생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어 얹는 반 종교인적인 행동이며, 특히 수도서울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인의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종교편향적인 작태로 공인의 신분을 망각한 행동이었기에 우리 200만 부산불자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조속한 공개참회와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200만 부산불자들과 함께 일치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불기2548년 7월 8일

부 산 광 역 시 불 교 연 합 회

도심에 꽃핀 '학구파'들의 간경도량



삼선강원의 자랑인 수화공연은 1999년 연화복지원장 해성 스님의 지도로 시작됐다. 지난 6월 제8회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참가한 삼선강원의 학인들이 수화노래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조용수 기자

사미니 강원을 가다 ③ 삼선강원

서울 시내에도 조계종의 정식 인가 강원이 있다. 산중이 아닌 돈암동 주택가 도심 포교원이면서 국내 유일의 통학강원인 삼선강원(강주 묘순)이 바로 그 곳.

삼선강원 학인은 일반 상주강원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 30분 상강례를 시작해 9시 30분까지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외부에서 각자 용무를 본다. 이곳을 다니는 학인 40여명 대부분은 각자 절에서 청소년포교, 어른스님 시봉, 대학 · 대학원 · 특수교육기관 재학 등 2~3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낸다. 웬만한 근기가 아니면 엄두도 내기 어려운 빠듯한 생활이다.

삼선강원은 1978년 의정부 약수선원에서 상주강원의 이력과정을 마치지 못한 비구니 스님들에게 간경의 기회주기 위해 지광(삼선포교원장) 스님과 강사 묘순 스님이 '주림강원'의 문을 열면서 시작됐다. 대중포교 일선에서 활동하면서 전통 강원의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통학 강원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통학 강원이라는 한계 때문에 종단의 지원보다는 제약이 많았던 시절도 있었다. 통학 강원이라 대중습의가 부족하다는 약점이 문제였다. 1996년에는 승가교육 개편으로 강원 자격인가를 받지 못해 폐교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당시 학인 30여 명은 한 겨울 조계종 교육원 건물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묵언시위'로 폐교를 막아냈다. 종단에서도 삼선강원이 아니면 배울 곳이 없는 통학 강원 학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흔히 통학 강원은 교과과정이나 학사 일정이 약간은 느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편견이다. 4년을 매일 새벽 6시 30분에 출석해야 하고 매 학기 중에도 휴강은 법회를 보는 매월 초하루 · 보름 이틀 밖에 없다. 결강 3번이면 퇴방처분을 받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모두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원을 다니는 만큼 학업에 임하는 열의도 남다르기 때문이다.

교과과정은 다른 사미니 강원과 마찬가지로 묘순 스님과 수경(학감), 도안(강사), 선문(중강) 스님의 지도아래 교육원에서 정한 내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기본교과 과정 외에 특별활동은 삼선강원의 자랑인 수화(手話)교육과 꽃꽂이 수업이 있다.



강사 도안 스님



학감 수경 스님



중강 선문 스님

서울 소재 국내 유일 통학 강원
참회 · 포살 통해 대중습의 지도
규칙 엄격… 결강 3번하면 퇴방

강원의 주목적이 '교육'과 '수행'을 통한 출가자의 위의를 갖추게 하는 것이라면 대중습의를 익히는 면에서 통학강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신 삼선강원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기 중 보름에 한번 대중공사와 한달에 한번 법공양 형태의 포살을 실시한다. 상주강원에 비해 대중습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곳 나름대로 삼직(입승, 찰중, 총무) 소임을 두고 의제와 품실을 학인들 스스로 점검하게 한다.

대부분이 만학이었던 강원의 초창기 학인들 가운데는 주지를 맡고 있거나 큰 사찰의 중진 스님도 간혹 없지 않았다. 그렇지만 일단 강원 안에서는 학인일 뿐이며 상 · 하반 사이의 위계가 엄격하다. 지금도 이런 전통은 계속되고 있으며 강사스님들도 참회와 포살을 통해 부족하기 쉬운 대중습의를 지도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02)923-0582

삼선강원이 배출한 스님들

올해로 20회 졸업생을 배출한 삼선강원의 동문은 약 200여명. 동문회장은 강원 4기 출신 해성 스님이 맡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원장인 **해성** 스님은 청각장애인들을 돌보고 있으며 삼선강원 학인들의 수화노래 공연을 지도해주고 있다. 학인시절부터 포교일선에서 활동하던 스님들이 많았던 만큼 졸업 후에도 종단의 포교분야에서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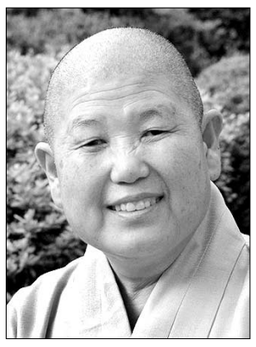
주요 동문으로는 **보명**(불교연화꽃꽂이연합회 대표), **정명**(연화플라워 회장), **도원**(동국대 불교아동학과 교수), **도현**(BBS 거룩한 만남 진행), **무구**(우리출판사 대표), **수경**(삼선강원 강사), **화정**(평택 법명사 주지), **묘전**(소쩍새마을 부관장), **선주**(대구 보림사), **혜조**(실천불교승가회), **경허**(미국 뉴욕 혜안정사), **정오**(호주 시드니 관음사) 스님 등이 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講은 부처님이 내게 준 소임"

인 터 뷰

강주 묘순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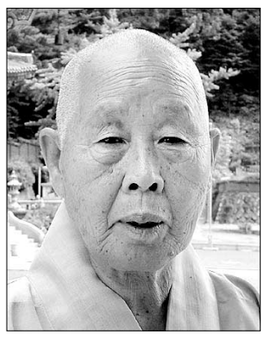
"내가 강(講)을 하게 된 건 부처님께서 내게 준 소임인가 봐요."

강주 묘순 스님은 1968년 지금은 없어진 화운사 강원을 졸업하고 75년 석암스님으로부터 비구니계를 받았다. 스님은 어려서부터 한문경전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남달리 총명하기로 유명했다. 계를 받기도 전 속가나이 스물아홉에 이미 대강백 대은소하(大隱素荷) 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받고 강단에 섰다. 스님은 사실 처음에는 강을 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경을 보는 것은 더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삼선포교원장인 지광 스님을 만나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스님은 어려운 사정으로 강원을 다니지 못했던 비구니 스님들에게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다.

"수행자로서 본분사를 지키고 승가의 규범을 바로세우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겠지만 우리 강원 학인들에게는 특히 몸가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합니다." '인연 닿는 수많은 이들이 부처님 경(經)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내 평생 원력'이라는 묘순 스님은 학인들을 말없이 행동으로 자상하게 이끌어 주신다.

한국의 비구니 스님 <17> 혜일 스님

청정계행으로 70년 수행



한국 유일의 비구니 종단인 보문종 前 총무원장 혜일(慧日 · 86) 스님을 어렵게 찾았건만 만나자 마자 "남에게 보여줄게 없다"며 손사래를 친다.

1919년 기미독립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태어나 15세에 전주 정혜사로 출가했고, 이제껏 한번도 정혜사를 떠나지 않고 정진한 세월이 무려 70년. 어찌 하고픈 말이 없으랴 싶어 졸라대니 "그저 '청정계행과 인욕행를 바탕으로 참선수행하라'는 은사스님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란다.

혜일 스님의 은사는 근세 비구니계의 큰 스승인 명주(明珠) 스님이다. 어려서 부모님따라 정혜사에 오면 바라보기만 해도 좋았던 자상하기 이를데 없던 스님이었다. 그 인품에 끌려 출가하게 됐고 50년 가까이 곁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셨다.

전주에 불교회관 지어
재가자교육 위해 무상임대

이렇게 시작된 혜일 스님의 출가생활은 흐트러짐 없는 수행자의 표상 그대로였다. 스님은 정혜사에 강원이 개설되자 일찍이 경전을 섭렵하고 선방에 들었다. 그렇다고 여느 수좌들처럼 전국 제방의 선방을 전전하지는 않았다.

정혜사 완산선원에서 은사스님을 모시고 정진했고, 후에 선원장을 맡아 정혜사만의 청정가풍을 세우며 무난히 30안거를 성만했다. 지금도 사중에 문제가 있을라치면 스님이 먼저 찾는 곳은 선방이다.

"요즘 물질은 부족함없이 풍부한데 사람들 마음은 각박하기 이를데 없어요. 모두가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현대야 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부처님 가르침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1998년, 혜일 스님은 은사스님이 이루지 못한 대중포교를 위해 큰 결단을 했다. 전주 삼천동에 도심포교당 '완산불교회관'을 건립한 것이다. 그때는 IMF로 어려웠던 시기여서 주위의 반대가 있었지만 연건평 600평에 이르는 대형 포교당을 세웠다.

자체 학사가 없어 이리저리 셋방살이하는 전북불교대학을 위해서였다. 재가불자들이 운영하는 불교대학을 위해 스님들이 건물을 지어 무상 임대해 준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불교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정혜사는 해방과 6 · 25를 거치면서는 이름없는 고아원이기도 했다. 수많은 아이들이 정혜사에서 살았다. 3칸 법당 하나뿐이던 암자가 세번에 걸친 중창과 적극적인 포교에 힘입어 이제 전주에서 으뜸가는 가람으로 자리잡았다. 이처럼 정혜사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 중심에 항상 혜일 스님이 있었다.

"노스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로 일관하세요. 수많은 불사가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은 노스님의 큰 원력과 수행공덕이라 생각합니다."

혜일 스님을 가까이서 보필하고 있는 총무 지섭 스님은 "노스님에게는 엄격함 속에 부드러움이 있고, 절약 속에 무주상 베품이 있으며, 대중화합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하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비구니 승단을 지키기 위해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 10여년간 보문종 총무원장을 역임하면서 "바깥나들이가 가장 힘들었다"고 회고하신다.

"평상심이 그대로 도(道)입니다. 일 따로, 공부 따로가 아닙니다. 특별히 뭔가 한다는 생각없이 있는 그대로 하세요."

전주=이준엽 기자

불교총지종 제9대 종령 효강대종사 추대법회

천년의 잠을 깨고 일어선 정통밀교 총지종!
진언염송으로 즉신성불의 큰 길을 열어가는
「불교총지종 제9대 종령 효강대종사 추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교계 대덕과 사부대중께서는
부디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2548년(총기33년) 7월 20일(화) 오후 3시
■ 장 소 : 총지종 본산 총지사
■ 문 의 : 총지종 통리원 02)552-1080~3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종령추대봉행위원회위원장 우 승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4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5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권기종(동국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허일범(진각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불교장례학과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4년 6월 20일~ 2004년 7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반)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례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4년 8월 7일 (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 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장례학과 : 2004년 9월 7, 8,9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 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 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산사에 울려퍼진 멋들어진 '禪律'

선시연구자 모임 경주 기림사서 음악회

7월 4일 경주 기림사에서는 빗속을 뚫고 베토벤의 피아노 삼중주가 울려 퍼졌다. 우리나라 선시(禪詩)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경주 기림사 화정당에 모여 작은 산사음악회를 개최한 것.

이날 개최된 산사음악회는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첼리스트 홍지영,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현 한국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 박은해 씨가 출연해 찬불가 '우리도 부처님 같이' 외에 베토벤 피아노 삼중주, 멘델스존 피아노 삼중주,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짚시의 노래),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등을 연주했다.

또 선시연구자 모임 경희대 배규범 교수가 사명당 스님의 '정응 스님에게' 라는 선시를 낭독해 대중들에게 선시의 깊은 멋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선시 연구자 모임 회원들이 선(禪)과 클래식의 만남을 일반화시키고 대중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음악회는 태풍 민들레의 북상 소식에도 아랑곳 않고 달려온 200여명의 사부대중을 매료시켰다.

어떤 조명이나 장식도, 요란한 팜플렛 광고도 전혀 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마련된 음악회였지만, 산중고찰의 단아한 자태 속에 울려 퍼진 클래식과 선시의 만남은 어느 음악회 못지 않는 감동을 자아냈다.

기림사 총무 각천 스님은 음악회에서 주지 종광 스님을 대신한 인사말을 통해 "음악회를 추진한 분들께 감사하며, 비로 인해 밖에서 진행을 못하고 실내로 옮겨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바라며, 마음에 행복을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시연구자모임 이진오 회장(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은 "달그림자처럼 소리



경주 기림사 화정당에서 진행된 산사음악회. 사진=배지선 기자

없이 왔다가 사라지려고 하다가 음악회를 열면서 이렇게 알리게 되어 당황스럽지만, 기림사 스님들의 적극지원과 무료로 동참해 준 음악가 덕분으로 클래식 음악과 선시를 산중고찰에서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선시 연구자 모임은 선시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들의 모임으로, 지난 1월 12일 대흥사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후 두번째 모임을 갖게 됐으며, 우리나라에 약 10여명이 활동 중이다.

선시연구자모임 강석근 교수(동국대학교 국문학과 강사)는 "선시 연구는 한문학과 국문학의 중간 성격을 지니는 또 의미있는 장르임에 불구하고 학계에서 외면하는 경향이 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날 모인 선시연구자 모임 회원 6명은 음악회 후 기림사에 남아서 선시를 윤독하고 감상하며, 선시 연구현황과 향후의 전개 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주=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한국불교, 정말 부러워요"

세계여성불자대회 참가자들 석남사·운문사 등 참배


석남사 대웅전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주지 영운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천미희 기자

태풍 민들레의 영향으로 장대비가 쏟아지던 7월 4일, 티베트, 대만, 스리랑카, 인도 등에서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참석했던 2백 여명의 여성 수행자들이 석남사(주지 영운)를 찾았다.

도착 후 대웅전에서 가진 환영 행사에서 석남사 주지 영운 스님은 석남사의 창건과 중수 등에 대해 설명하고 "비구니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이곳 석남사를 방문한 여러분을 환영하며 오늘의 인연이 서로의 수행을 성장시키는 열매를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점심공양 시간. 대중들은 공양을 마치고 주지 영운 스님과 함께 20여분간 참선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가행정진 중인 금당선원 대중들의 수행 모습을 공개해 외국인 수행자들의 눈길과 신심을 불러 일으켰다.

석남사 선원장 법희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차담시간. 울산차인연합회는 백련차, 말차, 송화차 등의 다양한 전통차와 다식을 외국의 여성 수행자들에게 선보였다. 백련차를 마시던 텐진 돌마 스님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 환영해주어 감명을 받았고 스님과 신도들의 결속이 아주 강하고 승가에서 잘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통역 자원봉사자는 석남사 방문에 앞서 가졌던 해인사 방문에서 돌마 스님이 팔만대장경을 참배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귀띔했다.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참가했던 2백여 명은 이날 석남사에 이어 운문사도 방문했다. 이에 앞서 해인사, 불국사를 참배하며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한 이들은 5일 봉녕사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석남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통도사 전문노인요양원 상량 병실 15개 70명 수용… 11월 개원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대표이사 현문)은 7월 3일 '전문노인요양원' 상량식을 가졌다(사진).

대표이사 현문 스님, 통도사자비원 원장 오심 스님을 비롯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상량식에서 현문 스님은 "입적하신 월하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설립된 통도사자비원이 설립 이념에 걸맞게 한발 앞서가는 노인복지서비스를 펼치는 중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량식을 가진 통도사자비원 노인전문요양원은 2004년 3월 기공식을 갖고 대지면적 760평, 연면적 665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현대식 건물로 건물 중앙에 햇빛이 들어오는 정원을 꾸며 놓았다. 총 15개의 병실에 70여 명의 중풍 치매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게 된다.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촉탁의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11월경 개원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대불청 제23차 전국청년대회 불청대상에 전준호 회원 수상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상옥)는 7월 3~4일 경남도립문화회관에서 '제23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불교청년회 경남지구(회장 이상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경남불교연합회장 우담 스님, 대불청 경남지구 총재 통광 스님, 대불청 부산지구 지도법사 효선 스님 등 2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3일, 식전행사에 이어진 전국불교청년대회 본행사는 대회사, 법어, 불청대상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

정상옥 회장은 "대한불교청년회의 위상은 매우 높고 확고하다"며 "앞으로 그 위상에 걸맞게 만해기념관 건립의 숙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불청대상은 전준호 직할 조계사청년회 회원이 받았고 경기지구가 최우수 지구상을 진주불교청년회가 최우수 지회상을 수상했다. **천미희 기자**

대구 교직원들 명상 연수회 통도사서 2일간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를 통한 대구지역 교직원 명상요가 연수가 7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팔공산 동화사에서 개최됐다.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대구지부가 주최하고 전국교사불자 연합회 대구지부가 주관한 교직원 명상요가 연수는 교직원들의 심신수련과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소양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와 파라미타 지도교사 양성을 위해 일반교사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연수회는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명상, 요가 강의와 실습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요가를 지도하기 위한 실습등이 곁들여져 호응을 얻었으며 사찰문화재관람의 시간도 가졌다.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대구지부는 "이번 연수에 3백명의 신청자가 몰릴 정도로 불교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연수회에 참석했던 교사 중 11명이 교사불자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박근혜 前대표 직지사 참배

한나라당 박근혜 前 대표가 7월 4일 김천 직지사를 비공식 방문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직지사를 찾은 박 대표는 선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경내 명부전을 참배하고, 산내 암자인 명적암으로 이동해서 직지사 회주 녹원스님을 친견, 점심 공양을 함께했다.

회주 녹원 스님을 친견한 박 대표는 "아버지가 머무셨고, 어른들을 모셔놓은 곳이라 고향에 오는 기분"이라며 "그동안 자주 오고 싶었지만 공인이고 외인이다 보니 인사를 못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녹원 스님은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을 모아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보광선원 요가교실 인기몰이

부산 보광선원이 열고 있는 '묘심 스님과 함께 하는 요가교실'이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매주 월,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열리는 보광선원의 요가교실에는 주부, 직장인, 학생 등 100여명이 몰려 요가를 배우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있다. 묘심 스님은 한국명상요가센터 부산총지부 원장을 맡고 있으며 명상 요가로 요가가 곧 최고의


묘심 스님이 보광선원 요가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요가를 가르치고 있다.

수행법이자 교화법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나가고 있다. 묘심 스님은 "단순한 육체적 운동이 아니라 정신적 운동으로 번뇌 망상을 쉬어 주인공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명상요가의 핵심으로 영원한 참 성품과의 결합을 위한 참선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051)517-6200 **천미희 기자**

郡에 교육발전기금 1억 기탁 봉화 현불사 인재양성 위해

경북 봉화 불승종 현불사(주지 적멸)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봉화군에 기탁했다.

봉화군청 관계자는 7월 7일 현불사 주지 적멸 스님이 봉화군청을 방문하여 "열악한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인재 양성에 써 달라"며 류인희 군수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지역학생 유치를 위한 명문고 육성방안을 세우고 2001년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금은 봉화지역 5개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기숙사 시설 완비, 장학금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3군 계룡대 호국사서 합동법회 도문 스님 초청, 수행지도 받아



육·해·공 3군의 불자장병들을 위한 3군 합동 고승초청법회가 7월 4일 계룡대 호국사(주지법사 장성화)에서 열렸다(사진).

대성석가사 조실 도문 스님을 법사로 모신 이날 법회에는 육·해·공군 불자회원, 군장병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도문 스님은 참석한 대중에게 용성 스님이 번역한 <육자영감대명왕경>을 나눠주고 주력수행을 직접 지도했다. **박봉영 기자**

불기 2548년 신흥사·청소년 수련원 여름수련법회

- 부처님을 우러르는 신심과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과 내 이웃을 감싸안는 봉사로 -

제53차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제 46차 청소년 여름 수련법회	제 27차 성인 여름 수련법회
• 일 시 : 불기2548년7월 28일~30일 (2박 3일)	• 일 시 : 불기2548년7월 23일~26일 (3박 4일)	• 일 시 : 8월 14일~15일(1박 2일)
• 대 상 :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가능)	• 대 상 : 중·고등학생	• 대 상 : 일반인 (대학생도 가능)
• 회 비 : 30,000원	• 회 비 : 35,000원	• 회 비 : 20,000원
• 준비물 : 공양미 1봉투, 필기도구 세면도구, 슬리퍼(갯벌탐사) ※ 법복 준비되어 있음 (수련법복 안에 입을 내의)	• 준비물 : 공양미 1봉투, 필기도구 세면도구, 슬리퍼(갯벌탐사) ※ 법복 준비되어 있음 (수련법복 안에 입을 내의)	• 준비물 : 공양미 1봉투, 필기도구, 세면도구 ※ 법복 준비되어 있음 (수련법복 안에 입을 내의)

● 서해안 제부리섬 갯벌탐사와 자연보호 활동
● 성인수련 중 성인수계식을 통해 조계종 신도등록 시 필요한 법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안내: 수원역전 택시 승강장 아래 대학교 버스 서는 곳 못 미쳐서
서신행 좌석버스(400-1번, 490번, 999번)신흥사 입구에서 하차 (절 보임)
서울, 안산쪽 1호선 금정역 농협 앞 330번 타고 신흥사 입구에 하차(절 보임)

※ 수련정보는 신흥사 홈페이지 www.shinheungsa.or.kr
검색엔진에서 '화성 신흥사'를 한글로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전자메일 buruna48@hanmail.net
전화 : (031) 357-3916·2695 팩스 : (031) 357-8687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 42-1



화성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 수련·불교대학 체험기

성일 스님 엮음 | 값 9,500원 | 신국판 | 392쪽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불교가 이렇게 위대한 종교인 줄 처음 알았고, 부처님이 참으로 거룩하시고 그 가르침이 훌륭한 걸 처음 알았다. 그 위대한 불교를 믿는 불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다. 또한 바르고 밝게 살아갈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된 것이 자신의 인생에 제일 행복하다…."

어린이불교학교, 청소년·성인 수련대회 참가자, 그리고 불교대학 졸업생들이 남기고 간 소감문 350여 편! 더불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불교계에, 스님들께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아울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불교학교나 수련대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책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보면 절로 행복해지고, 진정 행복한 세상을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성일 스님은 '내 성불 한 생을 늦추더라도 이 생은 포교하리라'는 원력으로 1973년부터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시작, 해마다 3000여 명의 수련생을 배출하고 수많은 법회와 대중교화에 온 힘을 쏟고 계시다. 신흥사 내에 수련원 건립의 원을 세우고 두문불출 10년 기도를 회향하고 1,000여 평의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하였으며, 1년 365일 법회와 수련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불자들의 몸과 마음에 부처님의 향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신다.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02)420-3300 전송(02)420-3400 불광출판부
http://www.bulkwang.org

“욕심 버리란 가르침 새길터”

러시아 교육위원회 회원 43명 템플스테이

한국문화 알기위해 갑사 방문
참선·발우공양·탁본 등 체험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온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갑사에서 탁본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한명우 기자

“이렇게 먹물을 칠한 다음에 종이를 대고 골고루 문지른 다음 종이를 떼면….”

공주 갑사 김경범 사무장이 탁본 시범을 보이자 한 외국인이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해본 탁본을 펴보고는 빙그레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펴 보인다. 다른 한쪽에서는 15명가량의 외국인들이 한국불교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자유분방한 자세지만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하다.

7월 6일 오전 계룡산 갑사. 러시아 사하공화국 교육위원회 위원 43명이 5일부터 한국사찰체험을 하고 있다. 탁본 체험과 한국불교에 대한 설명은 이번 일정의 마지막 프로그램. 참가자 대부분이 한국 스님의 지적이면서도 영적인 힘이 인상적이었으며, 참선과 발우공양은 힘들었지만 재미있고 유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특히 스님과 참선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스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참선은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 이어졌다. 절(卍) 표시가 ‘나치’ 표시와 비슷한 이유를 묻는 사람도 있었다.

러시아 사하공화국 교육위원회 위원 43명이 갑사에서 7월5~6일 이틀간 사찰 체험(템플 스테이)을 한 것은 한국의 교육현장을 둘러본 뒤 한국을 제대로 알기 위해 한국 문화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사하공화국 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 교사에서부터 대학교수까지 포함된 교육정책개발을 위한 정부기관. 이들은 아침(저녁)예불, 참선, 발우공양, 명상, 월인석보 탁본, 불교무술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국 불교 전통과 문화를 체험했다.

갑사는 이번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사중의 일부 스님들도 함께 동참토록 했다. 다른 템플스테이와는 달리 한 나라의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한국 불교를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참가자들 역시 교육자들이어서인지 꼼꼼하면서도 세심하게 한국 불교를 관찰했다.

사하공화국 교육위원회 회장 조로소바 올가(52 · Chorssova olga)는 “평소 불교에 대해 알고 싶었는데 이번 체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국 불교는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한국 불교에 대해 얘기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현재 대진대 한국어과(4년)에서 공부하고 있는 리나(20 · Nina)는 “통역을 하면서 한국불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불필요한 생각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불교의 가르침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찰 체험 일정이 모두 끝난 뒤 갑사 주지 장곡 스님과 간단한 대화 시간이 이어졌다. 장곡 스님은 “불교는 앉아서 수행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축제도 함께 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돕기도 한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기 바란다”라며 인사말을 건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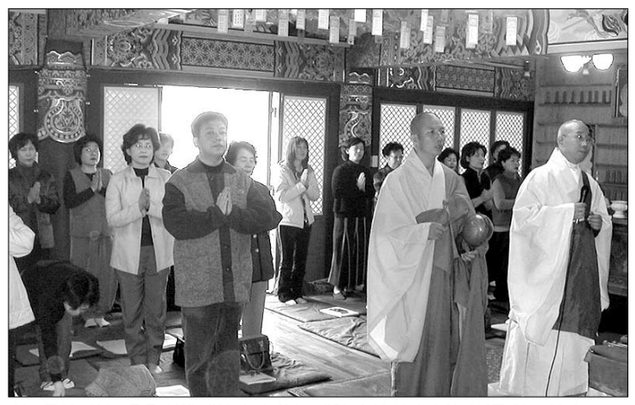
장곡 스님의 말을 리나가 통역하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합장 인사로 답례했다.

갑사=한명우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서울 달마사

문화도량 불사 순조



신도들의 기본교육을 위해 개설된 달마불교대학. 수업 시작전 삼귀의를 하고 있다.

땅 넓히고 편의시설 갖춰 주민 쉼터로
문예대학 이어 7월26~29일 영화제

절 아래로는 한강이 내려다보이고 대웅전 앞마당에는 청설모가 뛰어노는 서울 동작구 달마사(주지 미명).

1931년 창건된 달마사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한 채, 지역 주민과 흑석시장 상인들이 즐겨 찾는 자그마한 암자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해 미명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면서부터 달마사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미명 스님은 취임 직후 도량을 정비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서울시에 귀속됐던 180여 평의 땅을 사찰 명의로 되찾았고 사찰 곳곳에 쌓여 수십 년이나 묵은 쓰레기 더미를 치웠다. 손수 지게를 지고 쓰레기를 치운 땅에 15t 트럭 20대 분의 흙을 다져 동산을 만들었다. 동산에는 진달래와 철쭉, 소나무도 직접 심고 의자도 두었다. ‘누구든,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경내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스님은 거리로 나섰다. 사찰 홍보 전단지를 인근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하나하나 꽂았고, 시장 입구에는 홍보 현수막을 달았다. 지하철 영상광고까지 이용한 ‘달마사 알리기’는 큰 호응을 얻어,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2000여 명의 불자들이 모였다. 가족과 함께 사찰을 찾은 불자들은 이날 하루 종일 전통차 시음회와 사진전, 국악공연, 노래자랑 등의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신도들이 늘기 시작하자 미명 스님은 불교대학을 열어 불자 기본교육에 앞장섰다. 또한 어린이 법회와 여름불교학교를 마련해 아이들의 발길을 사찰로 이끌었다. 올해 3월에는 불교계에선 처음으로 ‘문예대학’을 열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소설가 김성동 씨가 학장을, 신경림 시인과 수필가 맹란자 씨 등이 교수진으로 참여한 문예대학은 50여 명의 참가자가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올 가을에는 문예대학 중급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달마사는 힘들고 지칠 때면 언제든 찾아와 산책하고 불교문화도 접할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사가 마무리 되면 고려대장경연구소 사무실이 들어서 ‘장경도량’의 면모를 갖추는 한편,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 불자들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러한 스님의 생각은 7월 26~29일 열리는 ‘산사영화제’에서도 읽을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요즘, 산책하는 기분으로 사찰을 찾아 영화도 관람할 수 있도록 영화제를 마련한 것이다.

“누구나 부처님 법을 만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내실있는 수행공간이 바로 달마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02)813-7425 여수령 기자

전통방식으로 대형가사 제작
담양 용화사, 18일 점안법회



가로 20m 세로 15m 크기의 대형 전통가사가 재현되어 일반에 공개된다.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 · dyyonghwasa.or.kr)는 7월 18일 오전 9시 30분 가사불사 점안식 및 묵담유물전시관 개관식을 갖는다.

이번에 점안하는 대형가사는 전통 홍(紅)가사로 용화사에 조성중인 미륵불이 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용화사는 20여명의 대중이 6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21일간 특별정진기도와 함께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용화사는 또한 대형가사와 함께 대종사가 수계식에서 수하는 25조 전통가사를 50년 만에 복원해 점안한다. 대종사 가사는 1959년 전주 관음선원에서 묵담스님이 제작한 바가 있다.

가사불사준비위원장 수진 스님은 “가사는 부처님이 수행자의 상징으로 검소하게 입으신 옷이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의로 수하게 됐다”며 “사라져가는 가사불사의 전통을 잇기 위해 자수와 바느질을 일일이 손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용화사는 18일 가사불사 점안에 이어 전통 율맥을 이어온 묵담 스님 유물전시관을 개관한다. (061)381-2683 이준엽 기자

홍성 기원정사포교원 창립4주년 기념법회



서산 송덕암(주지 동우)의 포교당인 홍성 기원정사포교원이 창립 4주년을 맞아 7월 5일 대법당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기념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부원장 학현 스님, 교무부장 법현 스님, 재무부장 승조 스님, 규찰부장 경담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과 지역사찰 주지 등 사부대중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운산 스님은 축사에서 “기원정사포교원은 홍성에서 활발한 포교활동으로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불법 홍포에도 큰 기여를 해 왔다”며 “앞으로 충청지역을 대표하는 도심포교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우 스님은 “도심 속의 대중교화도량으로서 군포교와 대학생포교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명실상부한 서해안 중심 포교도량으로 자리잡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명우 기자

광주 서부서 경승단 60명 활동
법회 주관·재소자 교화 앞장

광주 서부경찰서 경승단(실장 광민 스님)이 7월 8일 위촉장을 받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서부경찰서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위촉식에는 강진성 서장, 김창배 서부경찰서불자회장과 서부서 불자회원, 경찰서 간부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진성 서장은 광민(무각사 주지), 혜향(향림사 주지), 무이(덕림사 주지)스님에게 경승단 위촉장을 전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가 되도록 지도해 달라”고 말했다.

광민 스님을 실장으로 하는 서부경찰서경승단은 서부서불자회 법회를 주관하며 유치장 재소자 교화에 앞장 선다. 이준엽 기자

청양불자련 18일 결성

충남 청양에 불자연합회가 결성된다.

청양군불자연합회 발기위원회(위원장 최순규)는 7월 18일 오후 2시 청양읍 불교청년회관에서 발기총회를 열어 연합회 임원 선출과 창립법회 일정 등을 확정한다.

청양군사암연합회(회장 법운 · 봉은사 주지)의 지원으로 결성되는 청양군불자연합회는 청양지역 30여 사찰의 신도회를 중심으로 정법 홍포와 지역포교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최순규 발기위원장은 “7월 1일 청양군사암연합회 창립 1주년 기념법회에서 지역 스님과 신도들이 불자연합회를 결성하자는 뜻을 모았다”며 “사암연합회와 함께 포교에 앞장서고 신도들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지역에서의 불교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중국 오대산 순례 4일
대한항공 전세기 특가 59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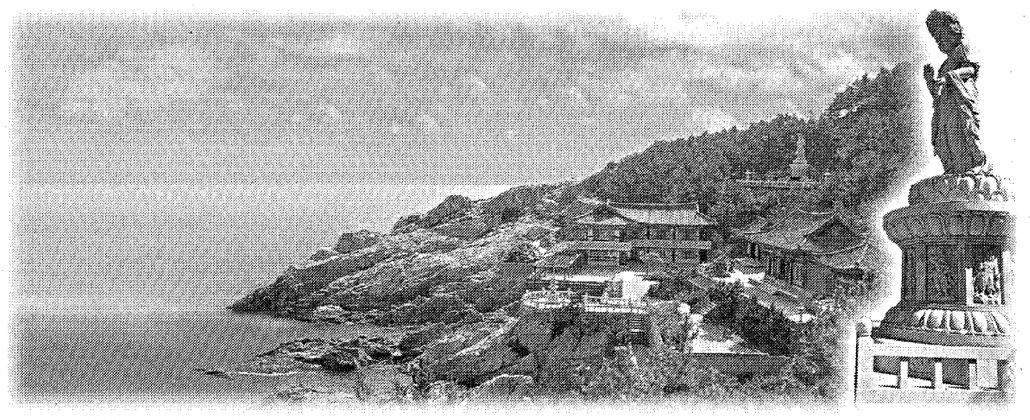
문수 도량 오대산 성지를 매우 편리하고 저렴하게 참배 할 수 있는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출 발 일 : 1차 9월11일-14일(3박 4일) 2차 9월14일-17일(3박4일)
3차 9월17일-20일(3박4일) 4차 9월20일-23일(3박4일)
※선착순 각 35명 한정이오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일 자	지 역	주요방문지 및 내용
제 1일	인 천 태 원 대 동	대한항공 전세기편으로 인천 출발 태원 도착 후 전용차량으로 태원 출발 대동 도착, 석식 및 호텔투숙
제 2일	대 동 오대산	중국 불교 3대 석굴중 하나로 5만여 불상들을 새긴 운강석굴 신라 황룡사 9층탑의 원형을 엿볼 수 있는 거대한 응현목탑 등 순례후 오대산 도착 석식 및 호텔 투숙
제 3일	오대산	문수보살성지 오대산의 현통사, 보살정, 불사리를 모신 탑원사, 최대 문수보살을 모신 수상사(법회), 대라정(케이블카), 용천사등 순례, 석식 및 호텔투숙
제 4일	오대산 태 원 인 천	오대산 출발 태원 도착 후 공항으로 이동, 전세기 편으로 태원 출발 인천공항 도착 후 해산

■ 파키스탄, 카라코람, 실크로드 13일 (출발일 : 8월 10일) ····· 293만원
대승불교와 불상의 탄생지 간다라의 불교성지와 수많은 불상을 참배하고 실크로드를 따라 파미르 고원(총령)을 넘어 우루무치 까지 불교가 전래된 전법의 길을 따라 순례하는 실크로드 코스
● 일 정 : 파키스탄 라호르-탁실라-페샤워르-스와트-칠라스-길기트-훈자(세계 최 장수 마을)-카슈카르-쿠차(천불동)-우루무치

■ 티벳, 네팔 일주 11일 (출발일 : 9월 3일) ····· 259만원
티벳의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트만두까지 일주하는 신비로운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 일 정 :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시가(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트만두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역사' 보다 화려한 '미래' 가꾼다

템플스테이·지역축제 등 특화된 프로그램 '성공적'

신 행정 수도 확정…발전 동력 찾기 사부대중 한뜻

충남 공주

부여와 함께 찬란한 백제의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공주. 마곡사, 동학사, 갑사 등 유명한 사찰들이 계룡산 안팎에 자리 잡고 있어 가히 백제의 고도로 불릴 만하다. 비단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비단강으로도 불렸던 금강과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계룡산. 이런 금강과 계룡산을 품고서 유구한 역사를 담아온 사찰들.

이들 사찰을 중심으로 지금 공주불교는 비상을 꿈꾸고 있다. 게다가 최근 연기 · 공주 지역이 신행정수도로 결정되면서 공주의 사찰들은 다시 한 번 백제시대에 버금가는 불교문화를 수놓겠다는 다부진 의지를 숨기지 않는다.

공주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오랜 역사를 지녔으면서도 수려한 사찰들이 많다는 것이다. 마곡사, 갑사, 동학사, 신원사 등이 대표적 사찰이다. 여기에다 영평사, 학림사, 성곡사 등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각자 뚜렷한 색깔을 지닌 사찰들이 가세하면서 공주불교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평가의 밑바탕에는 바로 '공주불교=테마불교'라는 등식이 존재한다. 공주의 주요 사찰들이 템플 스테이,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포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시청과 경찰 불자회, 붓다라이온스, 운불련 등 10여개 신행단체들이 연합회를 결성하고 올 가을 창립법회를 기점으로 지역 불교 활성화에 뛰어들게 돼 공주불교는 이제 충청불교의 지형마저 바꿀 수 있는 동력을 갖추게 된다.

#테마1 = 템플 스테이

마곡사, 갑사는 한국 사찰 가운데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템플 스테이 사찰로 인정받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템플 스테이를 시작한 마곡사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원은 올 6월까지 벌써 1천명을 넘어섰다. 기업체, 학교, 각 단체 등이 지금도 마곡사에서 템플 스테이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갑사는 템플 스테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매주마다 2~3개 단체가 갑사를 찾는다. 특히 사찰 체험을 원하는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갑사를 찾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을 만나려면 갑사로 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학림사 역시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수행 프로그램으로 템플 스테이를 실시해 호평을 받았으며, 영평사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템플 스테이 사찰로 손색이 없다.

#테마2 = 수련회

마곡사는 7월 12일부터 시작해 8월말까지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특기할만한 것은 가족수련회와 부부명상 수련회를 갖는다는 점. 다른 사찰에서는 보기 힘든 수련 프로그램이어서 관심을 끈다.

갑사 역시 매년 2~4회에 걸쳐 여름 수련회를 열고 있으며, 영평사는 여름 어린이 학교와 환경을 테마로 금강을 탐사하는 청소년 여름캠프를 매년 8월 개최하고 있다.


학림사 시민선방에서 수행하고 있는 불자들. 전국 각지에서 불자들이 찾아오고 있을 정도로 학림사 시민선방은 인기가 높다.


마곡사는 전국 최고의 템플스테이 사찰로 꼽힌다. 사진은 지난달말 실시된 중앙대 학생들의 수련회 모습.

#테마3 = 지역축제

영평사 구절초(토종 야생화) 꽃축제는 이미 확실한 지역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로 5회째. 구절초 꽃축제가 열리는 10월이면 영평사는 지역민과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올 4월 처음 열린 마곡사 신록축제는 산수화와 왕벚꽃으로 수놓아진 태화산 일대에서 사물놀이, 풍물공연, 전통무용, 가족 보물찾기대회, 댄스 페스티벌, 노래자랑대회 등 지역민화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갑사의 괴목대신제는 갑사 마을 인근의 1600년이 넘은 괴목에게 제사를 올리는 행사로, 갑사와 마을주민 간에 유대를 강화하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매년 공주와 부여를 오가며 열리는 백제문화제에서는 백제불교 영산대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불교문화행사가 열리며, 해마다 4월이면 동학사 일대에서는 벚꽃축제로 관람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

#테마4 = 문화 행사 및 프로그램

연말에 열리는 갑사의 산사음악회는 3만 여명이 참가할 정도로 인기가 높고, 영규대사 추모제 역시 지역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정초의 해맞이 법회도 성황을 이룬다.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이 운영하는 공주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다도, 한문교실, 붓글씨, 영화감상 등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겨울방학 때는 철새탐조 프로그램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학림사는 국민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선(禪)'이 가장 좋다고 판단, 시민선방을 통해 '선 문화'를 보급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공주=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마곡사는 전국 최고의 템플스테이 사찰로 꼽힌다. 사진은 지난달말 실시된 중앙대 학생들의 수련회 모습.

돋보기

마곡사 교구본사 사찰 중 옛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사찰 중 하나. 수려하면서도 친근한 분위기의 주변 경관과 웅기종기 모여 있는 전각들이 소박하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 경내 전각들 대부분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041)841-6220

동학사 갑사와 함께 계룡산을 대표하는 사찰로 소박하면서도 품위 있는 면모가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계룡산의 대전 유성 쪽 입구로부터 숲과 계류를 따라 약 1Km 정도 오르면 만날 수 있다. 사시사철 관람객들로 붐빈다. (042)825-2570

갑사 계룡산 지역의 거찰로 공주를 대표하는 사찰. 백제 때 창건된 천년고찰로,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국보와 보물 등 문화재가 많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삼신불괘불탱(국보 298호), 동종(보물 478호), 월인석보판목(보물 582호)이 대표적이다. (041)857-8981

학림사 충청 지역의 대표적 수행도량. 조용하면서도 공기가 맑아 수행하기에는 더없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사찰 시설도 수행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돼 있다. (042)825-1724

영평사 10월이면 구절초로 뒤덮이고, 그 경치가 아름다워 관람객이 줄을 잇는다. 넓은 마당에 깨끗하면서도 장중한 전각들, 그리고 단일석재를 사용한 불상으로는 가장 규모가 크다는 아미타대불도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041)857-1854


마곡사 대광보전과 대웅보전.

성곡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성곡사에 어울린다. 직접 눈으로 봐야만 성곡사의 웅장함과 그 규모를 알 수 있다. 약사여래불(57m), 와불(37m), 미륵불(33m), 지장보살상(27m), 그리고 청동좌불(18m) 좌우로 있는 1천불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041)853-3355


영평사 전경.

공주불교 이끄는 주역들

시민선방 열어 선 중흥

대원 스님
학림사 조실



40년 넘게 오로지 선 수행에만 몰두해 온 공주를 대표하는 큰스님. 시민선방을 열고 일반인들에게 간화선을 지도하며 선(禪) 중흥을 이끌고 있다. 1986년 학림사를 창건하고 선원(오등선원)을 연데 이어 3년 전부터는 시민선방을 개설했다. 오늘날의 학림사가 명실상부한 수행도량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모두 대원 스님의 원력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공주 불교 관계자들은 평가한다.

대원 스님은 엄하고도 철저하게 지도하는 것으로 유명해 스님이든 재가자든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이 많다. 전국 각지는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법문을 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을 만큼 능력을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지난 5월 조계사에서 열린 '선원장 초청대법회'에서 법사로 나서 간화선 중흥에 일조했다.

포교 영역 '전방위' 공인

환성 스님
영평사 주지
청교련 공주지부장



공주 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다.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있어 독보적인 존재. 1991년부터 9년 가까이 세 차례(1 · 2 · 5대)나 공주사암련 회장을 역임하며 지역 불교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 지역 포교에 있어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주자. 그러면서도 언제나 자신을 낮춰 지역 불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1995년부터 충남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 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공주지부장, 공주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 등을 맡아 활동 중이다. 또한 시청 불자회 지도법사, 공주경찰서 경승, 공주교도소 불자회 지도법사 등을 맡아 군 · 경찰 포교와 신행단체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인근 군부대와 교도소에 매년 2천여 만원을 후원하기도 한다.

문화포교 준비 한창

태설 스님
동혈사 주지



폐사 직전의 동혈사를 2년 반 만에 어느 정도 사격을 갖춘 사찰로 복원했다. 대웅전과 나한전을 건립했으며, 길도 새로 냈다. 사찰 정비가 끝나는 대로 참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템플스테이를 실시하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해 지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주불교 이끄는 주역들

교구본사역할 극대화

진각 스님
마곡사 주지
공주사암연합회장



70여 개의 말사를 관장하면서 공주불교사암연합회장을 맡아 충청불교 중흥을 이끌고 있다. 2002년 주지로 부임한 이래 유명무실했던 교구 신도회를 정비하는 한편, 모든 것을 종무회의를 통해 처리하는 열린행정을 펼치면서 종무행정 분위기를 쇄신했다. 또한 수련원을 개방하고 마곡사를 전국 최고 수준의 템플 스테이 사찰로 만드는 등 열린 불교를 지향하면서 지역 불교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불교 발전의 근간은 수행 풍토 조성이라는 신념 아래 마곡사 태화선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지역 군부대, 경찰서, 복지시설 등의 후원에도 적극 나서면서 지역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중이다. 근래 들어서는 공주불교, 나아가 충청불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신행·문화운동 주도

장곡 스님
갑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3선의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대전백제불교회관 관장,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대전지부장, 충남경찰청 경승실장, 대전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 관장 등 장곡 스님이 가지고 있는 직함은 40여 개.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충청불교 포교의 대명사.

5년 전 갑사 주지로 부임한 이래 전통사찰인 갑사를 수행 · 신행 · 문화 도량으로 확대시켰다. 공주사암련 회장을 맡아 지역불교 발전에 기여했으며, 10여 년간 공주교도소 포교와 지역 복지에도 정성을 쏟아왔다.

3년 전 대전에 조계종 전법도량인 백제불교회관을 세우고 이곳에서 40여 개의 신행단체를 이끌며 대전을 짧은 기간 안에 역동적인 불교 도시로 변모시키면서 충청불교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다.

도량·복지불사에 일념

관묵 스님
성곡사 주지



25년 전 이곳에서 성곡사를 창건하면서 30년 불사 계획을 세우고 대웅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불사에 전념했다. 후손에게 물려줄만한 성지를 가꿔보겠다는 생각에서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관묵 스님은 오갈 데 없는 아이들도 키우고 있다. 지금까지 키운 아이들만도 30여 명. 드러나지 않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도 해왔다. 성곡사 주변 경관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세워 지역 복지에 기여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

재가 신행의 '대부'

유석근 거사
공주신행단체연합회
수석부회장



공주 재가불자들을 아우르고 있는 핵심인물. 20여 년 동안 공주에서 재가불자 운동을 하며 공주불교 발전의 산파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지역 신행단체의 연합체인 공주신행단체연합회를 결성하고, 올 가을 창립법회를 목표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한국 목공예 명장 1호.

보시중의 으뜸 '법보시' 함께 해요

"나눔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용돈 쪼개 신문 보내기 동참…하안거 내내 선원서 참선



오병희 보살

"큰 액수를 보시한 것도 아닌데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지요."

1999년부터 현대불교신문 법보시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오병희(71 · 법명 춘몽) 보살은 '영수증을 받기 미안할 정도로 작은' 보시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부담스럽기만 하다고 말한다.

오 보살은 남편과 자녀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쪼개 의정부 선재동자원과 신문보내기 법보시 후원금으로 내놓고 있다. 여든의 나이에도 자신의 자원봉사활동과 보시를 돕고 있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털어놓는다.

오 보살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내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또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어 긍지를 느낀다"며 쑥스럽게 웃는다.

혼자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해야 더 의미가 있다는 오병희 보살. 이제는 생활의 일부분으로 느껴져 인근에 살고 있는 '도반'들과 함께 절에 나가고 봉사를 하는 일을 당연시 한다.

나누는 삶 뿐만 아니라 수행에도 열심인 오 보살은 평소에는 참선과 금강경 독송으로 신심을 키우고, 하안거 기간인 요즘에는 딸들과 며느리를 앞세워(?) 매일 안양 한마음선원을 찾아 '삼매'에 든다. "선 체조에 이어 차분하게 참선을 하면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 더 신명나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렇듯 수행과 보시가 몸에 밴 오병희 보살은 "나누며 살아가는 일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다른 여러 사람이 행복해짐으로써 내가 행복해진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조그만 보시부터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서원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

박봉영 기자

이웃과 함께 지혜의 등 밝혀

5년째 매월 10만원 후원… "어려울때 힘 되길"



김연수 성형외과 원장

"마음이 어지러울 때 '길을 묻는 이에게'를 읽으며 나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이런 소중한 말을 나 혼자서만 보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지요. 그래서 현대불교신문을 법보시하게 됐어요."

지난 1999년부터 5년째 매월 10만원씩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를 해오고 있는 김연수(38 · 법명 월우, 김연수성형외과) 원장. 김 원장은 당시 병원을 개업하며, 소외된 이웃과 나누고 싶어서 신문 법보시를 시작했다.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들을 상대하지만 항상 웃을 수 있는 것은 신문에 실린 선지식의 법문을 즐겨 읽기 때문이다. 법보시가 지혜를 밝힌다는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의 모습이다.

김 원장은 "법보시가 보시중의 으뜸"이라며 그간 실천해온 법보시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처음에는 3만원에서 5만원을 내었으나 몇 년 전부터 아예 월 10만원을 통장에서 빠지도록 자동이체 해 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저보다 더 오래,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요. 부족하지만 제게 수입이 있는 한 계속 법보시를 할 거예요."

겸손하면서도 다부지게 말하는 김 원장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며 불자들의 적극적인 법보시 동참을 권유했다.

김철우 기자

'현대불교' 군부대 등에 6년간 45만부 보내

현대불교신문이 1997년 7월부터 전법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군부대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및 해외교민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개한 '신문보내기 법보시 운동'이 7월 현재 총 45만165부를 달성했다. 금액으로는 총 4억5천 165만원에 이른다.

수혜 현황을 보면 군법당 369곳에 9만6434부, 국군병원 9곳 1만40부, 교도소 교정청 28곳에 6만442부, 구치소 감호소 12곳 2만206부, 소년원 감별소 16곳 1만224부, 양로원 24곳 7602부, 아동복지시설 25곳 1만1246부, 장애인복지시설 11곳 4880부, 청소년복지시설 16곳 6866부, 사회복지기관 130곳 5만8918부, 불교병원 9곳 2만151부, 경승실 177곳 7만736부, 경찰병원 2곳 1856부, 개인 52명 4만2575부, 단체 132곳 2만9310부 등이다.

신문보내기 법보시 운동은 현재 매월 422부 389만원 상당의 신문이 군장병 · 교도소 수형자 · 군 · 경찰 병원 등으로 발송되고 있다. 법보시 동참은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온라인 입금을 통해 가능하다. 문의 (02) 737-8881.

김원우 기자

나눔의 손잡기 성금

한마음선원 대구지원-83,040원
울산성길만거사-58,600원

현재 총 누적기금-17,106,330원

나눔 저금통 및 스티커 신청

경기도 용인시 용담사 선재어린이집(원장 성목스님)
저금통- 140개
스티커- 140장

부산시 연제1동 대한불교자비원(원장 자비스님)
저금통- 30개
스티커- 30장

살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눠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 · 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십시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인공혈관 수술 시급 300만원 없어 '발동동'



만성신부전증으로 힘든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이 수술비 3백만 원이 없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일구(16 · 사진)군은 올 6월 초 한림대 안양성심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김 군은 종종 경련을 일으키며 실신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변변한 치료조차 받지 못해 병을 악화시켰다.

현재 김 군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혈액투석을 위한 인조혈관 삽입 수술이다. 수술비는 300만원 정도. 하지만 소작농인 김 군 아버지의 수입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입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협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02)734-8052 김철우 기자



부처를 닮은 사람들은 7월1일 수원 북수동 노인회관에서 위안잔치를 개최했다.

어르신 100명 모시고 잔치 한마당

부처를 닮은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본사 나눔의 손잡기 동참단체인 부처를 닮은 사람들(회장 의선 스님, 수지포교원 주지)은 7월 1일 수원시 북수동 노인회관에서 100여명의 노인을 초청,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했다.

이날 경로위안잔치는 점심공양을 대접하며 노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한 뒤 흥겨운 공연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회장 의선 스님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며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위안행사를 더욱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부처를 닮은 사람들 회원 70여명은 한달 20일 이상을 교도소와 양로원, 노인당을 찾아 위문행사를 열고,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돕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문의 (031) 266-6526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와 좋은벗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 ·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사방세계
十方世界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파란 2004'

130명 대원, 천성산 도롱뇽 지키기
대구~부산 150km 도보 현장





140여명의 청년들이 대구에서 부산까지 매일 20km 걸으며 8일간 진행한 '파란 2004'. 하루 10시간씩의 도보로 발에 물집이 생기고, 코피를 쏟아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천성산과 지율 스님을 살리기 위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차로 1시간 30분 거리, 걸어서 8일

느리지만 "헛되지 않았다"



파괴 현장의 아픔 느끼며 내원사 도착

느리고 느린 걸음이었다. 대구에서 출발, 부산에 도착하기까지 꼬박 8일이 걸렸다. 기차를 타면 1시간 30분이면 족한 이 거리를 하루 평균 20km씩 걸어온 파란 2004 대원들이 7월 6일 밤, 천성산 내원사 입구에 도착했다.

"직접 걸으며 고속철도로 인해 파괴된 현장을 느껴보고 싶었다. 힘들었지만 빨리 달릴 때는 볼 수 없었고 느낄 수 없었던 것을 체험한 소중한 시간이었다."(준희, 중앙대 3)

파란 2004 대원들은 하루 10시간씩의 도보로 발에 물집이 생기고, 코피를 쏟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에 시달리며, 고속철도 공사로 사라져갈 많은 생명과 그 속에 깃든 삶을 만났다. 수고한다며 계란을 삶아 건네는 아주머니, 숙소를 구하지 못한 대원들을 위해 공장을 내어준 어느 중소업체 사장님…

장대비 속 산행 강행 안전에 '초비상'

'고속철 2단계 공사 반대, 천성산 살리기, 느림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파란 2004'에는 청년환경센터, 사회당 학생위원회,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등 대학생 환경동아리 등에서 140여 대원이 참여해 총 150km를 걸었다. 강행군으로 허리뼈가 휘어질 정도의 심한 부상을 입은 대원 등 단 7명만이 귀가했을 뿐 흐트러짐 없는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천성산 자락까지 왔다.



화엄벌에서 대원들이 "천성산을 살리자"며 외치고 있다.

7일, 아침부터 오락가락 하던 비가 산행이 시작되자 장대비가 되어 대원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행사 진행을 맡은 기획단, 안전요원 등은 초긴장 상태였다. 그러나 빗 길에 미끄러지고 비에 젖어도 화엄벌을 향한 느린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화엄벌, '아름답다' 청정국토 이뤄지길…

"산을 오르니 지율 스님 생각이 납니다. 세 번째의 단식, 43일간의 삼천배, 화엄벌까지의 삼보일배 등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뜻을 지켜오는 힘이 천성산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해웅(부산대 3) 조직국장은 단식중임에도 대원들이 가는 곳마다 전화를 걸어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주었던 지율 스님을 떠올렸다.

우거진 숲길을 걸은 지 3시간 남짓. 앞서가던 대원들이 탄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화엄벌이었다. 박민주(성균대 2) 대원은 젖은 몸, 아픈 다리를 잊은 채 화엄벌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너르게 펼쳐진 화엄벌을 오가는 바람결에 이리 저리 몰려다니는 안개의 촉촉함과 일렁이는 푸른 풀빛은 모두 생명이었다. "천성산을 살리자아~ 도롱뇽을 살리자~" 파란 2004 대원들의 푸른 울림이 화엄벌에 울려 퍼졌다.

스스로 산이 되고 생명이 되어 천성산을 내려온 대원들은 지율 스님이 단식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포크레인에 올라앉으며 공사를 막아 온 개곡 마을로 향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고사와 잔치가 준비돼 있었다.

속도에 매몰된 우리 자연 '우리가 살려야죠'

늦은 시간까지 마을 주민들과 한마당 잔치를 벌인 대원들은 다음날, 공사현장에서 이후 지속적인 연대로 함께 공사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상징물을 세우고 부산역에 도착, 해단식을 가졌다.

"속도에 매몰된 삶의 모습, 태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걸으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희망이 되도록…"

글=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자연의 소중함 잘 알릴래요"

어린이신문 '여럿이 함께' 대원들 취재

"이번 행사에 사고나 어려움은 없었나요? 이번 행사를 하면서 얻은 생각은 뭐예요?"

개곡마을에 들어선 파란 2004 대원 한 사람이 어린이들에게 빙 둘러 싸여 질문 공세를 받고 있었다. 녹음기를 들고 녹음을 하는 아이, 사진을 찍는 아이, 수첩에 무언가 적고 있는 아이 할걸 없이 모두들 분주한 모습이다.

파란 2004 행사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월간 어린이신문 '여럿이 함께' 김해 지역 기자단이었다.

"200개가 넘는 산에 터널이 뚫렸다고 해서 놀랐어요. 친구들이 자연을 소중함을 느끼도록 대학생 언니 오빠들의 활동을 잘 알릴래요."(경미, 김해 임도초 6)

은솔이는 "오늘 취재한 오빠들처럼 대학생이 되어도 자연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린이 기자단은 마을 잔치 시간에 "도롱뇽과 천성산을 지켜서 내년에 도롱뇽을 한번 만나고 싶다"는 인사말로 박수를 받기로 했다.

부처는 웰빙족이었다?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 ! 〈SBS-TV〉 "오픈스튜디오", 〈MBC-TV〉"즐거운 문화읽기" 에 소개된 화제의 베스트셀러 !
소프라노 조수미의 긴 손톱에 담긴 자유로움!
아름다운 죄, 사랑을 혼내주는 방법은 복수가 아닌 무심!
폐위된 광해군이 18년 동안 유유자적 기쁘게 산 경지!
근심걱정과 화를 금방 잊어버리는 축복받은 건망증!
무심의 경지에서 지치지 않고 생생하게 일하기!
수치심을 벗으면서 얻는 훨훨 날 듯한 마음의 자유로움!
즐거운 죽음, 소풍 가듯 죽는 방법!
부처님처럼 웰빙하는 맑고 시원한 경지,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이 알려드립니다!
명상마을의 자연인, 문화영
방송작가이며, 아루이 명상 지도자이다.
충북 진천의 명상마을 '명상아루이 수선재'에서
별과 바람과 더불어 자연인으로 살고 있으며,
그곳에 명심을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다.

MBC-TV & SBS-TV
"오픈 스튜디오" 교재

책이름 : 무심(心) - 사람은 어떻게 자유로워지나
저 자 : 문 화 영 가 격 : 8,000원

수선재
서울 종로구 부암동 274-1, 2층
TEL (02)391-5815 FAX (02)391-
WWW.SOOSUNJAE.COM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일과 속에서 직장인들은 얼마나 상사, 동료, 후배들로부터 '사람 냄새'를 맡으며 살고 있을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이기적인 사람도, 일에 미쳐 사는 일벌레도 따뜻한 인간미를 바라는 마음만큼은 똑 같을 것이다. 일터불심은 어떨까? 마찬가지다. 서로의 인간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면서 동료애를 '도반애'로 승화시키기 위한 지혜를 짜내고 있다.

그렇다면, 일터불자들은 직장에서 상사, 동료, 후배들과 어떻게 도반의 의의를 다지고 있을까. 또 서로를 도반으로 여기기까지 무슨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도반애를 키우고 있는지 직장불자들에게 들어봤다.

여름특별기획-일터불심 10대 화두

① 일터, 마음 닦는 수행처
② 직장 동료 · 상사 · 후배, 모두를 도반으로
③ 아직도 출퇴근 시간에 졸고 있습니까.
④ 하루 5분 수행, 인생이 달라진다.
⑤ 스트레스, 불교에 치유법 多 있다.
⑥ 술과 담배 그리고 과식은 신행의 적
⑦ 제대로 불교 믿으면 저절로 부자 된다.
⑧ 한달에 한번 집중 수행 필요
⑨ 틈틈이 읽는 불서, 인생을 풍요롭게
⑩ 인터넷은 신행정보의 보고

마음 열면 일도 신행도 '손발이 척척'

교리공부 · 봉사 · 업무협조까지
직장 法友 서로서로 '거울' 역할

소비자보호원 법우회 김종관 총무(38 · 동곡). 그는 소보원에서 '동곡 선생'으로 불린다. 4~50대 국 · 팀장급 상사 직장불자들도 '계급장'을 떼고 김 총무에게 '불교의 ㄱㄴㄷ'을 배운다. 자칭 법우회 막내(?)라는 송병준 홍보실장(55 · 수송), 직장생활 17년차인 부회장 장학민 법무보험팀장(48 · 보현)과 손성락 기획예산팀장(45 · 명관)도 모두 동곡 선생을 깍듯이 모신다. 나이가 적고 직책이 낮아도 김 총무는 그들의 '도반'이기 때문이란다. 심지어 천주교 신자인 최규학 소보원 원장도 김 총무가 정기적으로 원내 인트라넷에 올리는 주옥같은 경구를 즐겨 읽으며, '동곡 선생'이란 애칭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고 한다.

불교 얘기할땐 '계급장' 떼고…

이들이 이처럼 나이와 직급을 초월해 서로를 도반으로 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로에게 '사람의 향기'를 전하기 때문이다. 바쁜 업무 가운데에도 틈틈이 만나 '마음공부'를 점검해주고, 법우회원 집안에 경조사가 생기면 목탁을 들고 달려가 '사람 사는 정'을 나누었다. 또 종교와 관계없이 사무실 동료의 넉넉한 '말벗'이 돼주었다.

"직장에서 도반을 만난다는 것은 직장불자로서 엄청난 인복입니다. 일터도반은 직장에서의 일상적인 만남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1년,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를 훌쩍 넘기고 불교에 귀의한 송 실장은 일터도반은 삶의 지혜를 일러주는 길라잡이가 된다고 말한다.

그럼, 이들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을까? 1년 넘게 출퇴근 시간 차안에서 <금강경>을 세 번 완독하는 손 팀장은 잠시 수행의 고삐를 놓았던 장 팀장이 재발심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었다. 또 '동곡 선생' 김 총무는 늦깎이 불자 송 실장의 불심을 깊게 했다. 결국 서로가 경책이 되고, 마음 닦는 마음공부에 '신행의 거울'이 돼준 셈이다.

이들처럼 일터에서 도반을 맺는 데에는 어떤 마음자세가 필요한 걸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군산지역회장 성귀자 군산초등학교장(58)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성 교장은 한통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후배 불자 교사들과 도반애를 나누고 있다. '호랑이 교장선생님'으로 소문난 성 교장이지만, 하루 종일 업무에 치여 파김치가 된 후배 교사들을 생각하면 이내 '맏언니 · 누나'가 된다고 말한다.

마음 내려놓기가 최우선 과제

"일터에서 도반을 맺기 위한 마음자세는 하심(下心)에 있습니다. 내 마음부터 내려놔야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일터도반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자리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감이 생겨 서로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겁니다."

일터도반간의 믿음은 종교를 뛰어 넘기도 한다. 서울구치소 개신교 모임 신우회원인 박진호 씨(35 · 보안과)는 지난해 3월부터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불교계 정신지체장애인 복지시설 녹향원에서 목욕봉사를 해오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올해초부터는 구치소 불심회 내 자원봉사 소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왜 종교가 다른 박 씨가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을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같은 사무실 선배 이남수 보안계장(54 · 원광)에게서 '따뜻한 사람의 체취'를 맡게 됐기 때문이다. 박 씨는 지난 2002년부터 구치소 불심회장인 이 계장이 하루 근무, 24시간 당직, 1일 비번으로 이어지는 근무형태에도 묵묵히 정신지체장애인들과 사랑을 나누는 모습에서 진한 감동을 받았다.



▲선 · 후배 관계지만 도반으로 여기며 직장후배에게도 배우기를 서슴지 않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원들. '도반'으로서 휴게실에서 법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송병준, 장학민, 손성락, 김종관 불자) 사진=김철우 기자



▶서울구치소 불심회 이남수 회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과 박진호(맨 오른쪽) 씨가 의왕시 녹향원 정신지체장애인들을 돌보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이 계장님이 올 봄, 녹향원 입구에 항아리를 가져다 놨습니다. 여기에 된장 고추장을 집에서 퍼와 담아 넣었지요. 낮은 담장 밑에는 봉선화를 심었고, 텃밭에 상추씨도 뿌렸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을 동생, 아들같이 여기는 이 계장님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직장불자회 결성 '다다익선'

사람이 좋아 직장불자간 도반을 맺게 도움을 주는 일터불자도 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사무국장 안홍부 법무과장(57 · 도광)이 주인공. 공불련과 감사원 불자회 창립을 주도한 안 국장은 감사원 불자회에서 '공무원 불자 찾는 귀신'으로 통한다. 출장이 잦은 직업특성을 살려 안 국장은 출장기관에서 불자들을 일일이 찾아 불자회 결성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 국장이 일터도반 맺기에 나선 것은 대학시절 불교학생회에서 쌓은 불심과 졸업 후에도 계속된 지도경험에서 비롯됐다.

안홍부 과장은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일터에서 근무하는 상사, 동료, 후배들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라"며 "그들이 바로 마음을 나누는 일터도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일과 신행을 모두 잘 하는 직장불자가 되자"고 강조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sbs 법우회

서울방송 법우회는 어느 때보다 TV영향력이 막강해진 만큼 불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바른 마음으로 시청자들의 귀와 눈을 밝히는데 혼신의 힘을 바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불규칙적인 생활로 심신이 지친 불자와 동료 직원들에게 마음을 정화하고 정신을 순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 첫 모임을 갖고 법우회를 창립했습니다. 이후 서울 여의도포교원 현진 스님을 모시고 매월 셋째 목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또 2002년부터는 연말이면, 지산스님이 고아 50여명을 거둬 키우는 의정부시 통일안국사를 방문해 책, 옷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해 나눔의 실천도 해왔습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것은 우리 법우회원들에게 자비행이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우리 불교연구회는 지난 2002년 방송3사 회장이 모여 연합회 결성을 합의하는데 앞장섰습니다. 현재 연합회원 30여명이 모여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불교연구회는 그동안 소홀했던 지방 서울방송 불자들과 같이 순례법회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여법한 법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불교연구회의 올 목표입니다.

■이태전 총무



sbs법우회원들이 지난해 여의도포교원에서 열린 언론사불자연합회 창립법회에 동참한 모습.

'법공양지'로 공부 … 타 단체와 연합법회도
사찰 순례 · 복지시설 방문 항상 'ON AIR'

출범 1주년 때는 회원가족과 함께 수계법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정기법회를 매월 개최하고 년 4~5회의 명산 대찰순례법회를 다니며 전국의 서울방송직원들과 함께 법우애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찾아간 사찰만 해도 5대 적멸보궁, 불법승 삼보 사찰 등 내로라하는 명산대찰을 순례했습니다.

참, 방송기관에서 활동 중인 우리 법우회의 신행활동이 어떠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창립 초기에 불교 신행단체로 결성은 했지만, 직업의 특성상 한곳에 모여 법회를 봉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불교신행연구원이 발행하는 <법공양지>를 통해 부처님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간 걸어온 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IMF로 회원들이 명예 퇴직하여 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특성상 자주 모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한 때는 명맥만 유지하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연구회는 체념만 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한국방송공사 법우회, 문화방송 불교연구회와 증권거래소 불자회, 금융감독원 불자회 등과 연합법회를 시작하면서 법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000만 불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전자종소리+전자시계+오디오+마이크+청동범종(25관)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21세기 불가의 신개념 전자종틀 가릉빈가』



종25관

※ 법당에 가릉빈가를 설치하시면…

◇ 법문을 하실 경우 종 밑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종속을 통하여 다시 울려퍼지므로 장엄한 법문을 불자님들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가릉빈가에 마이크 및 스피커(3개)를 설치할 수 있어 따로 법당에 마이크 시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독경 및 법문 테이프, 명상가요 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따로 오디오를 마련하실 필요가 없으며, 전자시계가 부착 되있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 종을 제외한 종틀만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종틀 교환도 가능합니다.
◇ 원음에 가까운 종소리를 가릉빈가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외에서의 종소리는 실물의 종소리와 같은 생생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전자음향종 및 실제 종을 결합한 최 첨단의 제품으로 법회시에도 일반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 품 명 : 가릉빈가
● 제품특성 : 국내 최초로 MP3를 내장한 전자종 시계로 100여 M 정도에서도 웅장한 종소리 및 녹음한 음원(독경, 명상음악 외) 등을 45분 동안 맑고 웅장하게 들을 수 있으며, 마이크 앰프(스피커 3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대법회 등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제품기능 : 출력(정격출력 150W 이상, 최대출력 250W 이상) 리모트 컨트롤 사용(시계변경, 알람시간조절, 임의적 작동, 볼륨 조절, 기타), 디지털 시계 기능, 스피커 크기 – 6 INCH 3개, MP3장착 – 45분(종소리 20초, 독경 40여분 장착), 오토리버스 기능, 볼륨조절 기능, 메모리 기능 – 매시간 타종 기능(타종 횟수 조절 가능) – 알람기능 (3번 작동가능, 예 : 오전, 오후, 저녁) 전원부 : DC24V (3A–5A 10), 마이크 앰프 기능
● 사용방법 : 리모콘으로 작동이 이루어져 모든 분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있습니다.
● 소비자가 : 5,900,000원 (종25관+종틀+스피커3개+마이크+리모콘+기타+일체포함)
● 종제작업체 : 성종사
● 전자 종틀제작업체 : (주)비엔비기업

부처님의 법음이 넘치는 륜장(輪藏) 묘음 법륜장(妙音法輪藏)



묘음 법륜장 개금
~~₩1,080,000~~ → 864,000



묘음 법륜장 청동
~~₩550,000~~ → 430,000

사용법
묘음 법륜장 전면에 사람이 2M이내 접근시 인체감지센서가 감지하면 전자회로가 작동, 에밀레 종소리(3번)와 새소리, 바람소리가 발생과 동시 목탁소리가 함께 반야심경(인천시지정 무형문화재 제 10호 범패작법보유자 김능화 스님)독송이 울려퍼진다. 이때 여의주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1분 1회)LED전구는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5색의 찬란한 빛이 여의주표면 글자에 비춰지며 화엄경의 상단부분에 불꽃형상이 나타난다. 작동시간은 4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꺼지고 다시 감지센서에 사람이 감지되면 재작동을 반복한다.

* 본 제품 음성칩은 원하는 음성를 재 취입할 수가 있습니다.

30대 특별할인 한정판매

판매처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주문전화 02-732-1520
마하몰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가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알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좋은 因緣 바램

- 경남 고성군 천황산 자락 시내에서 10분여거리
- 봉황이 알을 품은 正南向 名堂 석간수 옹달샘
- 종교부지 300여평과 주위1000여평 법당 (관음전)30평 , 요사체 30평 기타
- 황토와 태백산 1000고지 赤松으로 건축 절 주위 300여만평. 숲속에 위치 등산로
- 禪院및 기도처 수양이나 요양처로 最適
- 가액 10→7억5000 이면 양도하겠음

055)674-2202/010-8019-4862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336-5692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간 055-882-3455
016-428-6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9月경 제2회 예정)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백련꽃차 (생화)
백련잎차 (덖음)
041)542-4594

범음범패, 전통의식, 각종행사 해 드림
점안식, 49재, 상주권공, 각종불공, 천도재, 바라나비춤, 사물다루는 법, 화청, 모든 재의식 경전, 민속, 역학 등 염불 배우실 학인 모집 중
대광명사 부설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역학개인지도
사주에 필요한 모든것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스님분은 보시금.100만원
밝은미래를 여는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치 질
- **재발** 잘 되는 **치질**
- 한방 비법으로 완전치유
- 오래된 치질이나 **암치질** 특히 효염
- ※ **스님**들께서는 특별 보시함

▷팔공산**천룡정사**
017-533-1356
053-986-1355

여성전용기능성 불한증막내
각 입점 모집
식당, 스낵, 까운, 분식, 좌욕, 경락, 실면도
건물주 영업 노하우가 많아서 한달 구입 고수익 보장 함
2004년 7월30일 오픈예정
임대 할곳 수원 시청 앞
010-7447-7717

초 빙
직업 안정 센터 소장님
대학 졸업자로써(2년제 포함)
서울 경기 거주자
남,녀 나이제한 無
몸만 오시면 됨. 상담환영
02)978-1574
박처사(60세)

스님희망하시는분모십니다
경락 지압 수련생 모집
수련후 자격증 수여
관음불교 조계종 종무원장
한국 대체 의학 학원장
051)558-1686
011-9521-6087

행자 모집합니다
만40세미만으로 고졸이상
대학 대학원 진학 책임지원
(정릉)02)917-3363

여생을 편히 모십니다
쾌적한 산중도량
신축 주거공간
호스피스(간병)제공
입주 보시 3천만원
연락처 031)867-1801~2
016-703-6648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기 안산
031)419-5048

전통범패의식

49재	천도재	수륙재	점안식	바라춤	나비춤

행사에 염불해 드립니다
무진 051)468-7374
합장 018-523-7374



행자모집
신산유곡의 조계종
전통사찰 참선수행도량으로
출가할 뜻이 있는분은
연락바랍니다
010-6384-7557

명상의 말씀과
불시낭송 테이프 제작 및
전국 사찰의 각종행사 및
의식에 낭독하실 **여성우구함**
<초보자로 3개월 합숙 훈련 가능자>
017-409-9599

신체 건강하고 불심이 강한 53세의 처사입니다
대형운전면허 소지
(운전 경력 26年)
성심껏 일할 수 있는 사찰이나 암자를 찾습니다
연락처 017-604-4083

보시금 필요없음
스님 없어 운영안되는
부산,경남근교 암자 원합니다
명리철학, 대체의학
생활불교, 접목하여
사찰운영할 자신있읍니다
참선공부하는 비구스님입니다
016-867-3060

신심있고
가족처럼 함께지낼
공양주 보살님(급구)
▷50대 후반~60대
02)386-0926
011-286-0308

깊은산 명산에서 행자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011-696-8500

시골 조용한 암자에서
휴양겸 공양주 하실분
초보자도 됨
▷첫달 50만원
(40~60대)
054)637-1489

남,여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모심
▷법비오는곳
기도영험도량
동해사 강원도양양
011-696-8500

신심있고 건강하신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대구 달성군
053)614-6637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대구 가창
011-9421-2254

공양주 보살님을
구합니다
(60대 미만)
▷경기 안양
031)448-8005

불교용품 사업에
평생직업 하실분
면접 후 모십니다
▷모집부문:
사장, 운전, 영업, 경리
▷근무지: 서울 근교
019-213-0817

공양주 보살
님 모십니다
▷50~60대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7-260-3310

50~60대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조계종 사찰
011-9153-3377

탈종공고
- 사찰명: 부흥사 - 주지명: 강영미자
- 주소: 부산시 남구 우암2동

본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에 맞지 않아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7일
윈윤종 총무원장 法下

탈종공고
- 사찰명 : 백련암 - 주지법명 : 지월
승려번호 051-0369
- 주소: 충남연기군 전봉면 송성리 113번지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에 맞지 않아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法下

탈종공고
- 승려번호: 0888-82 - 성명: 이한기
- 법명: 勤修 - 본적: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상기본인은 대한불교 조계종을 탈종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法下

사주 개인 지도
- 특수비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 250만원
- 지도 : 대주 스님

HP : 011-741-0867 ☎ 02)926-1259

성수철학원(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임.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역학 수강생 여러분
10초내 운세를 맞추면 배우러 오세요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사주전체 대흐름(조상포함)을 알고나면 격국용신 및 신약신강을 신경쓰지 않아도 속시원히 통변할 수 있습니다.
http://www.speedunse.com에서 핸드폰 · 카드결제됨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행 자 모 집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에서는 미래의 세계불교를 이끌어 갈 참 수행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자격 : 16 세이상 남 · 녀
2.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3.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문의 : 011-9852-0075(총무스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 참조

대한불교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조 계 종 (053)474-8228 납골당 운영

최면전문교육
당신도 최면 전문가가 될수있다
◆ **빙의**(신들림) : 사람의 몸속에 들어온 빙의와 적접 대화하여 가족이 확인하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본인이 목격함 **(빙의된 분 별도상담)**
◆ **전생상담** : 현생의 어려운 문제점과 전생과의 인연관계를 파악하여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시킨다
◆ **2일간 핵심비법교육으로 완성지도** ◆ **출강강의 가능함**

개인지도 : 일휴스님
연락처 053)984-9569, 011-533-8022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사주와 성형관상의 대가 저자 김창규 원장의 생활역학전서
역학수강생모집 (개인지도)
- 역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사주공부를 하였으나 확신이 서지 않는 분 비법전수(현재 포교원, 철학원 운영중인 분)

미래음양회 서울 02)904-3094
해동철학원 부산 051)808-3260 H·P 017-277-7145

「본 마음 · 참나」
2004 쌍계사 여름 수련법회 안내

장하게 흐르는 쌍계활수와
산허리에 이는 맑은 바람은
지친 우리들의 육신을 맑혀주고,
붓다의 말씀과 조사스님의 활구는
나약한 영혼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여 「본 마음 · 참나」를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 **행사일정**

	기 간	정 원	대 상
1차	7월 30일(금) ~ 8월 2일(월)	70	일반인
2차	8월 4일(수) ~ 8월 7일(토)	70	일반인

● **동참안내**
◇ **수련법회 신청대상** (3박 4일) : 일반인(대학생 포함)
◇ **자원봉사 신청대상 :**
수련법회 참가 경험이 있는 분으로 매 차수별 6명 내외
◇ **신청마감일 및 참가통보 :**
7월 15일(목)까지이며, 7월 20일(화)개별 통지함.
◇ **동참금 :** 일반인 7만원(교재포함)
※ 접수된 참가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입금 통장번호 : 농협 833011-51-000948
(예금주 : 쌍계사)
◇ 준비물 : 고무신, 필기구, 세면도구, 운동화

● **참가신청 안내**
◇ **참가신청서는** 쌍계사 홈페이지 (www.ssanggyesa.or.kr)참조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을 A4용지에 기재한 후 우편이나 팩스(FAX), e-Mail(info@ssanggyesa.or.kr , ssanggyesa@hanmail.net)로 신청가능
① 이름(한문, 한글), 성별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우편번호 필히 기재) ④ 직업(구체적으로)
⑥ 전화번호(직장, 자택, e-mail) ⑦ 종교
⑦ 원하는 차수(상기 일정표 참조)
⑧ 참가하고자 하는 이유
※ 팩스로 신청하실 때는 접수 후 꼭 전화확인 바랍니다.
◇ **문의처**
전화 055)883-1901~2 (오전 9시 오후 5시까지)
팩스 055)883-6084
◇ **접수처 :** 쌍계사 여름 수련회 담당자 앞
(우) 667-824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번지
쌍계사 홈페이지(www.ssanggye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 주지 우담 합장

행복이 가득한 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제15차 거금도 거금선원 여름수련회 참가안내

바다!
누구나 꿈꾸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만 밑없는 배를 타면 삼매의 바다에서 빈 배 같이 노닐 수 있습니다.
저기 파도소리가 들리십니까? 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파도소리를 따라 곧장 들어가십시오.

찾 수	기 간	정 원	대 상
1차	7월29일〈목〉~ 8월 1일〈일〉	50명	청소년~일반인
2차	8월 4일〈수〉~ 8월 7일〈토〉	"	"
3차	8월11일〈수〉~ 8월14일〈토〉	"	"
4차	8월18일〈수〉~ 8월21일〈토〉	"	"
5차	8월25일〈수〉~ 8월28일〈토〉	"	"

◆ **수련내용 :** 묵언,바루공양,부처님호흡법,좌선의,수심결강의, 활구참선법(간화경절문),선체조
◆ **신청방법 :**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원하는 차수, 종교,수련경험,참가사유(A4지 용지에 작성 팩스로 접수)
◆ **수련회비 :** 일반 - 9만원 / 청소년 - 5만원
◆ **계좌번호 :** 우체국 501023-01-000401 거금선원 (접수된 회비는 반납하지 않음)
◆ **준 비 물 :** 필기구,세면도구,우산,공양미(1봉지)고무신,손전등,상.하 법복이 있는분은 가져올 것. 모자
◆ **접수안내 : 전화 061-842-8488 / FAX 061-842-8487 인터넷 http://www.gukumzen.com**

주말수련안내 (10인 이상 단체 환영)
- 일 시 : 토요일 오후 4시 ~ 일요일 오후 2시 - 준비물 : 손전등, 모자, 공양미(봉지), 회비 5만원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산 9-2 ☎ 061-842-8488
대한불교조계종 수련전문도량 거금선원 선원장 일선 합장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 법당:10평
- 요사:15평
- 부지:33000평
- 가액:7억

- 위치:강원도
- 법당: 15 임법당한옥
- 요사:15
- 부지:1350(종중)
- 가액:2500

- 위치:경남
- 법당:46
- 요사:80
- 부지:10000
- 가액:7억5천(급매)
- 납골당 1000기 시설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신축사찰안내

- 대구 파계사 옆 2차선 포장도
- 대205평 텃밭110평 건물70평
- 목조형 철근조 02년말 준공 남향 1층 방5 거실, 욕실, 주방, 보일러 2층 큰법당, 주지실, 거실, 조무실
- 요산 요수 자연 앞냇물 뒷山竹林
- 가액: 2억5천(답사후 절충)

016-875-9833

사찰안내

- 양천구 신월동 대도로변 2층 53평 주변대단위 아파트 단지 최고중심지
- 교통편: 버스정류장3분 전철 2,5호선역 8분
- 법당, 접견실, 스님(사무실, 거실내샤워장), 공양실(30명 동시공양)에어콘설치, 시설최고
- 가액: 보증금 2000, 시설비 3500 월115

02)2699-7637

포교당안내

- 위치 : 성북구 성북동
- 대지 : 50평
- 건물 : 40평
- 욕실2, 주방1, 방2 법당, 시설일체
- 전세 5500만원
- 시설비 : 절충가능

011-732-6933

비구니스님토굴안내

- 위치 : 경주시내 10분거리 (고속도로, 고속철도 근접)
- 대지 : 2필지 240평, 임법당 15평정도 1동(스님방,목욕탕구비) 예날흙집 방3칸 1동 예날흙집 방2칸 1동
- 교통편리함에 비해 공기가 너무 맑고 조용한 시골마을, 토굴은 소박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깨끗한 물과 공기가 느껴집니다.
- 가액 : 5800만원(절충)

011-9211-6385

경기도 사찰

- 부지: 1000평
- 법당: 30평
- 요사: 35평
- 가액: 12억

서울포교당

- 면적: 100평
- 보증금: 5천 월세:180만원
- 포교요충지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통일시대 최대 투자처 경기 연천 土地 다량보유 상담환영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강동구 암사동
- 평수 : 약 25평 큰방1개, 작은방1개
- 보증금 :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 2천2백만원
- 철학관 환영

018-333-3205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12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9238-9960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시 온천장 식물원 밑 2층건물 2층 60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능)
- 법회시설 완벽 즉시법회가능

017-848-3330
051)518-3127

사찰(급)안내

- 위치: 대구 파계사 근교
- 대지: 306평, 건평: 60평
- 대웅전(20평), 산신각(5평),
- 큰방 5개, 화장실 3개
- 산세가 수려하고 경관이 뛰어나 기도처로 최적지임
- 가액: 2억2천5백만원(융자별도) 답사후 가격절충 可

011-9371-0856

포교당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지하철역 인근 대로변
- 법당: 35평 큰방1, 옥상방 3개
- 옥상: 35평 총 60평이상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 가액: 보증금 5천만원,월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714-3635/02)481-3635

사찰안내

- 위치: 천안소재
- 부지: 1500평(평지임)
- 법당: 30평(목재)
- 요사채: 80평(스라브)
- 삼성각: 7평(목재)
- 양도가: 7억(대출가능)
- 산세및 교통요지

사찰과교환

- 위치: 김해시 소재
- 대지: 86평, 건평 278평
- 시가: 8억5천
- 위상가건물과 사찰교환원함 (대출 4억 있고 임대수입 월5,800,000원)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중구 중앙동 (버스정류소앞 지하철 1분)
- 평수 : 55평 4층 전관,법당 20평 온돌방 6개, 삼존불, 삼존탱화, 욕실크고 주방2, 엘리베이터有
- 내부한옥식으로 잘 꾸며져있음
- 전세합 7천만원, 월50만원

011-9678-2979
018-801-2566

포교당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 건평 : 30평 2층
- 주방1,법당,방1(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 시설비 : 1200만원

016-621-3267

사찰안내

- 위치: 전북 남원
- 부지: 3천 2백평
- 법당, 요사 완비
- 납골시설 100기 (분양완료시 2억이상 수익가능)
- 대규모 납골사업 가능한 부지 조성 완료
- 가액: 1억 5천만원(전세가능)

011-9415-6831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 시화 신도시
- 시설완벽 최고급
- 내부실평수 53평, 베란다 약 20평
- 난방 전기 큰방2, 거실겸주방 1, 샤워실겸화장실2, 엘리베이터, 주차장완비
- 가액: 보증금2천 시설비3500만원, 월60만원
- 하실분만 전화요망

031)432-7406

사찰(전세)안내

- 위치: 경기도 이천시 대포리 소재
- 대지 200평, 건물, 요사채 35평 임법당 25평, 임산신각 3평, 스님방 11평
- 시설 : 삼존불, 신중, 칠성단, 영가단 보증금 5천만원, 시설비 1000만원(절출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31)631-1325/011-9240-1384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부산 서구
- 부지 : 4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20평
- 가액 : 3억8천

※뒤에는 산, 앞은 바닷가

- 위치 : 부산 남구
- 대지 : 40평
- 법당 : 15평
- 요사채 : 25평
- 가액 : 1억3천

※주택가 2층 임법당

- 위치 : 부산 금정구
- 크기 : 52평
- 가액 : 전세3천 (월세60만)
- 시설비 약간(절충)

※교통 주차편리 산뜻한 실내구조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양한 매물(50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토굴안내

- 위치: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장자동 (하늘이 열린동네)
- 밭 2필지, 352평
- 산세수려한 곳
- 가액 : 3천5백만원 (가격절충가)

055)934-0155

포교원안내

- 위치: 울산시 남구 신정1동 616-15 (신정시장내 2층)
- 평수 : 약 34평,방2개
- 보증금 200만원에 월 40만원
- 시설비 : 5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52)276-9798

암자,기도도량

- 위치 : 청양칠갑산자락(1000평)
- 할매바위 솟을용궁 구옥2동
- 평당가 5만5천만원
- 시골집 대 140평(구옥) 2500만
- 시골집 대 160평(구옥) 2200만
- 시골집 대 120평(구옥) 1600만
- 시골집 대 200평(구옥) 200만

(시골집 500만 700만 1000만 다량보유)

017-409-9599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평수: 대지 48평
- 건물: 법당 1동, 산신각 1동
- 요사채 1동
- 가액: 5천5백만원

041)841-3090
017-337-4168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 110평(전통한옥, 등기필)
- 건물 2동(안채, 사랑채)
-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된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토굴이나 가족휴양처로 최적으로 장소
- 가액 : 9천만원

041)753-3766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달서구 4층 중 2층
- 방3, 부엌1, 화장실1, 법당30평(총 7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1-822-6104

사찰 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2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상담후 결정)

031)826-0376

신축사찰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평동 공단 인근
- 대지: 207평 1층 요사채 25평 2층 법당(목조) 25평
- 삼존불, 지장보살, 신중
- 가액: 1억(전세 5천만원)

062)943-3330
011-9600-8002

한마음 납골묘 납골당

사찰 경내에 본사의 비용(무상)으로
납골묘(석재)를 설치해 드립니다
사찰에서는 일체의 부담이 없음

한마음 석재 납골묘 납골당 고원 합장

011-348-0668 / 031)318-0616

물좋고 산세좋은 도심속 암자

- 건평 100평
- 법당 : 15평
- 요사채, 주차장완비
- 40년 역사 가건물
- 가액 : 2억 7천만원

011-9303-8550
051)301-8555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 의정부시 시청앞 공영주차장 앞
- 5층 건물에 4층, 42평
- 방1, 주방1, 도시가스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후약정

031)873-8171~2
011-258-6432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산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 상가 2층 법당 실평수 20평 (사정상급매)
- 방2개, 넓은 응접실, 편리한 구조
- 시설비 : 300만원
- 가액 : 전세금 2,500만원

011-519-0808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주문진 IC근처
- 대지 : 500평, 법당1-80평, 신축회관, 한옥 23평
- 가액 : 1억 5천만원
- ※ 임야 6천평-3천만원 (동해바다가 보임)

033)661-1375
011-202-8288

편안토굴안내

- 위치: 김천 지래
- 삼존불 27평
- 가액 : 5천만원
- 꼭 필요한분만 연락요망

011)832-5074

사찰토굴안내

- 위치 : 대구권
- 대지: 170평
- 임법당: 20평
- 요사: 30평
- 주차장 포장, 그림같은 토굴
- 모든시설 현대식 몸만오면됨
- 가액: 전부 1억9천만원

011-803-6962

포교원안내

- 위치 : 중랑구 망우리 망우4거리 도로변
- 2층 28평
- 시설 일체 지급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권리금 1700만원

02)493-7222
011-9064-333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600평, 법당 20평, 요사채 80평, 공양간, 사무실 각각 따로
- 가액: 4억5천만원

011-9387-4446

사찰안내

- 위치 : 팔공산 갓바위 밑 아늑한 소나무 숲속
- 텃밭있고 주차장 넓은 신축법당
- 삼존불 넓은 거실 방4개
- 스님 대불사 관계로 급매
- 가액: 보증금 4천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1-537-173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 삼존불, 산신탱화, 후불탱화 등 모든시설 완비
- 평수 : 40평
- 가액 : 1천만원 월 30만원
- 스님 몸 안좋은 관계로 급 안내 모든집기 일체 포함

041)337-8078
011-332-8079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무여 (산세수려하고 경관 최고)
- 평수 : 대지 200평,건평30평 (방4,부엌,거실,욕실) 건물20평
- 임법당1, 정원, 창고, 텃밭, 지하수2
- 신축건물, 벽돌, 기와
- 가액 : 1억5천만원(절충가능)

011-792-6910

사찰안내

- 위치: 대구
- 대지: 102평(신축건물)
- 금액 : 3억 1천만원 (융자 4천만원 포함)
- 법당 : 28평 ● 요사채 : 45평
- 방5개, 구조편리, 화장실4개
- 즉시법회가능

011-226-288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인근 현재 불사중
- 요사 40평 법당 가건물
- 가액: 1억 8천만원

016-868-5517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면적: 임야 대지 포함 11400평
- 법당: 목조 40평
- 요사: 벽돌 110평 1동 창고겸 요사 45평 1동
- 가액: 3억7천만원

011-9457-7060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3천 2백평, 법당, 요사 완비
- 납골시설 100기 (분양완료시 2억이상 수익가능)
- 대규모 납골사업 가능한 부지 조성 완료
- 가액: 1억 5천만원(전세가능)
- 기도정진할 스님 특별조건
- 납골탑만 매매가능

011-9415-6831

사찰(급)안내

- 위치: 서울 당고개역 부근
- 현대식 건물 법당 1, 요사채1, 창고1, 용궁전, 산신전, 미륵전, 약수, 방 6개, 부엌 1개, 화장실 1개
- 산세가 수려함, 지하철 도보 10분거리
- 답사 후 가격결정
- 가액 : 6억 5천만원(절충가능)

011-398-3828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부동 시내 10분거리, 도로변
- 평수 : 30평 독채, 큰방 2, 주방, 샤워실, 즉시입주가능
- 가액 : 전세 1천3백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무
- 역학 하실분 적당

055)386-2376
017-563-4602

사찰안내

- 위치: 충남 아산
- 총평수 : 120평
- 법당 : 20평, 삼성각
- 요사채 : 30평 방 2칸 입식부엌 1칸
- 가액 : 8천만원
- 불기 및 비품일체

041)531-7138

토굴안내

- 위치 : 경남진주
- 대지 : 80평, 공양간 : 20평
- 법당 : 30평(삼존불 모셔져있음)
- 시설비 : 800만원
- 2년5개월까지 녹야원 무료
- 달세 없음
- 공부 기도정진할 스님께 적합
- 소개업자 일체 사절

016-865-1473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동래온천시장 내
- 총 45평(3층건물 중 2층)
- 호불500불, 인등500, 연등 1000개
- 원목 닫집 단청 필
- 보증금 15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절충(법당 최고시설)

016-444-5758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다사
- 대지(밭) 500평
- 전통한옥 법당, 방3개
- 뒤편에 산이 있고 옆으로 낙동강이 흐름 교통편리 시내버스 5분거리
- 시설비 600만원 월 10만원

017-854-2428

토굴암자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양덕원
- 평수: 흙집 황토방 건평 20평 텃밭있음(서향집)
- 건물 등기 있음 기타 집기류 일체 보시
- 가액: 800만원

017-379-2201
서암합장

포교원안내

- 마산시 부림시장상가 6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천2백만원(절충가능)
- 도심포교 최적지
- 노송과 대나무가 있는 토굴
- 남원 광한루에서 5분거리
- 현대식 20평(방2, 거, 주, 화)
- 가액 : 4000만원(절충가능)

016-424-0500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천, 상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300만원 (집기일체포함)

011-462-5275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청 뒤 2분거리 4층건물중 3층, 35평
- 법당, 공양실, 친견실,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영가단, 앰프시설, 사무기기, 포교서적 완비 시설A급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5만원 시설비 1천8백만원

032)511-4974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동
- 건물: 5층건물 3층(56평)
- 법당(20평), 요사채
- 방2개, 큰거실, 공양간, 화장실 별도
- 비로자나불 부처님 모셔져 있음 후불탱화 3점
- 비품: 대형냉장고, 에어컨 시설, 정수기
- 기존 신도로 즉시법회가능
- 가액: 시설비 2천만원(조정가능)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053)756-7339
011-9599-6996

사찰안내

- 위치 : 산청군 황매산 서편
- 부지: 약2천평
- 밤산군유지 2만평
- 건물: 단청한 법당 30평 요사채 2동, 그외
- 특징 지리산 천왕봉 안대 동양화 같은 최고 명당 비구니 선원 적합
- 가액: 2억 7천만원

011-531-1334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내 중심지 포교최적지
- 건물 : 2층 건물중 2층 전체 40평(법당 20평)
- 시설: 삼존불, 각단 탱화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5만원

016-640-8133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 가액: 2억5천만원 (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사찰전세(매매)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 부지 : 920평 중 550평 허가득 (국유지 점유 사용. 약 2000평)
- 법당 : 목조 30평, 기타부속건물 4동
- 요사채(32평) : 방 3, 주방 1
- 전세금 : 절충 후 결정(매매도 가능)

※계곡 청정수려하고 특히 복지활동 하실분 최적지

011-9773-5701
031)771-5731

“진각 국사가 간화선 정립시켜”

김영욱 씨 ‘어록’ 역해 펴내



“조사(祖師)다운 본분을 활발하게 펼쳐 보이면서 간화선을 실천적으로 구현한 인물은 진각 국사였다.”

한국불교사에서 간화선의 가치를 부각시킨 선구자가 보조 국사(1158~1210)였다면, 조사로서의 활달한 선풍을 보이며 간화선을 실질적으로 정립한 스님은 진각혜심(眞覺慧諶, 1178~1234) 스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 책임연구원인 김영욱 박사(사진)는 최근 펴낸 <진각국사어록 역해>(가산불교문화연구원)를 통해 “혜심은 보조 국사의 제자로서 한국불교의 선풍(禪風)을 크게 떨쳤으나, 그간 스승의 명성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조의 제자 공안 집대성 등 업적 주목해야

김 박사는 “보조 국사는 교학과 간화선을 비교하며 그 차별성을 냉철하게 관찰한 학자적 성격이 강한 반면, 혜심은 그 당시까지 축적된 선법들을 독자적인 간화선적 방법으로 소화해 일상 속에서 선지를 펼쳤던 조사였다”고 말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어록을 남기지 못했으면서도 간화선의 가치를 부각시킨 보조 국사가 한국 선종의 중흥조로 평가된 것에 비해, 활달한 선풍을 보이며 생생한 어록을 남긴 혜심은 상대적으로 묻혀 있었다는 것. 이는 연구의 1차 사료가 되는 원전(어록과 저작)에 대한 번역과 이해가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박사는 진각 국사의 가풍과 관련, “감각적인 대상에 본분(本分)의 소식을 실어 활발하게 종지를 펼치지만 곳곳에 화두라는 관문을 설정해 두는 것이 국사의 전략이다”고 풀이했다. 진각 국사가 남긴 상당(上堂: 법좌에 앉아 거행한 설법) 138장과 시중(示衆: 대중에게 한 짧은 설법) 20장의 원문과 번역문, 그리고 해설 등을 담은 <진각국사어록 역해>는 한문을 국역, 어록의 간화선적 맥락을 섬세하고도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점에서 혜심을 새롭게 조명할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재경 기자**

3D로 문화재 쉽게 설명

‘한국 석탑의 문화원형…’ ‘한국 전통목조건축 부재별…’ 디지털 콘텐츠 사업 선정

언제부턴가 우리는 모르는 것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인터넷으로 달려가 답을 찾는 버릇이 생겼다. 그 안에는 엄청난 디지털 콘텐츠가 있기 때문이다. 불국사로 답사 여행을 떠나는 영배네 가족도 마찬가지. 사전 준비 차원에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본다. 그러나 이내 난관에 봉착한다. 옥개석이 어쩌고, 장석이 어쩌고…. 석탑에 관련된 명칭이라는데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문화재청이나 불교계 홈페이지들을 뒤져봐도 궁금증을 확 풀어줄 만한 자료를 만나기란 어렵기만 하다. 디지털 콘텐츠의 범람 속에서도 불교 문화재 콘텐츠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빈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의 ‘2004년 우리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사업 공모’ 결과 전남대 문화예술특성화사업단(단장 성진기)의 ‘한국 석탑의 문화원형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단장 김성태)의 ‘한국 전통목조건축 부재별 조합에 따른 3차원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 최종 선정돼 눈길을 끈다. 불교 문화재 콘텐츠화의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함은 물론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 석탑의…’는 미륵사지 · 정림사지탑, 석가탑 등 10개의 주요 석탑을 사진, 3D 그래픽, 동영상 등으로 구현하고 관련 캐릭터를 개발한다. ‘한국 전통목조건축…’은 사찰, 궁궐, 서원 등의 전통건축물의 부재 150여 가지를 3D 형태로 구현하고, 이들의 조합을 통해 작동자 임의의 가상 건축이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두 사업에서 눈에 띄는 것은 3D 콘텐츠 개발 계획이다. 3D 콘텐츠는 대상 사물을 돌려가며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가상 해체 · 복원도 가능하게 해 문화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불교 문화재와 관련해 이렇다 할 3D 콘텐츠가 개발된 적은 거의 없다. 3억 남짓한 각 사업들의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얼마나 양질의 산출물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들 사업이 불교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한국 전통목조건축…’은 불교 문화재가 게임, 애니메이션 백그라운드 이미지 제작, 고건축설계, 문화재복원, 전통건축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 콘텐츠로 개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예다.

‘한국 석탑의…’의 과제책임자인 천득염 전남대 교수는 “지금까지 불교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만 힘썼지 콘텐츠화의 노력은 부족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불교 문화재를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사업화 시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우리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은 2002년에 시작돼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으며 ‘한국 불화(탱화)에 등장하는 인물 캐릭터 소재 개발’ 등 39건이 개발 완료됐고, 23건이 개발 중이다. 완료된 사업의 결과물은 문화콘텐츠닷컴(www.culturecontent.com)에서 볼 수 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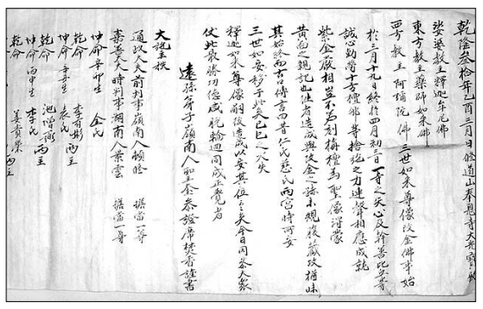
봉은사 삼세불 ‘비밀’ 벗다

승일 스님 조각품… 이분희 씨 주장

봉은사 대웅전의 아미타불상과 약사여래상은 1651년, 석가여래상은 1700년 전후에 조성됐으며, 조각공은 당대 뛰어난 조각승인 승일 스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월 3일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에서 ‘봉은사의 불교문화’를 주제로 열린 한국불교문화학회(회장 오출세) 하계학술세미나에서 이분희 연구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은 ‘봉은사 삼세불상의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근거가 된 기록은 아미타불상에서 나온 ‘발원문’(1651)과 석가여래상에서 나온 ‘건융삼십년개금발원문’(1765) 등의 복장문과 도안(1638~1715) 스님의 ‘법당불상조성불사 권선문’이다. “두 발원문과 권선문에 따르면 1651년에 삼세불을 조성했으나 석가여래상은 1685년의 화재로 소실되어 1700년 전후로 다시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고 이 연구원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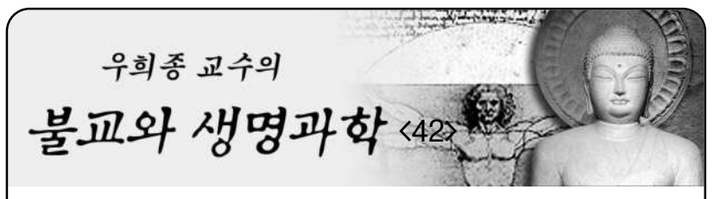


‘건융 30년 개국 발원문’(1765).

기록을 통해 확인된 50여년의 차이는 석가여래상과 다른 두 불상의 양식의 차이와도 일치한다고 이 연구원은 밝혔다. 석가여래상은 옷자락이 형식화되고 간략해져 후대인 18세기 불상에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원은 복장문을 통해 아미타불상과 약사여래상의 수조각공이 승일 스님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승일 스님은 17세기에 주요 불상 조성을 주도한 무염 · 현진 스님의 작업에 참여했던 인물로, 두 스님을 계승한 인물이라는 것이 이 연구원의 생각이다. 두 스님의 양식상 특징이 승일 스님 작품에서 보이기 때문이다. 승일 스님이 조성한 불상으로는 불갑사 삼세불상(1635),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상(1646), 북고사 목조아미타불상(1657) 등이 있다.

박익순 기자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42>

근대적 생명과학과 탈근대적 불교

현재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은 서양 근대 과학의 한 분야로서 근대적 생명관의 산물이다. 신(神)의 이름으로 인간 삶의 희생을 강요하던 중세를 벗어나 개인의 욕망 충족을 인정한 근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세계를 소유와 지배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됐다.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인간은 자연과 타인을 유물적으로 대상화시키고 분석하는 과학적 방법을 발전시켰고, 그것은 오늘날의 거대한 물질문명의 계기가 됐다. 과학은 우리의 욕망을 소유라는 형식으로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어 사회의 물질적 풍요를 뒷받침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계론적 사고방식과 사물의 소유를 통해 나타난 오늘날 세상의 모습은 개인과 집단의 욕망 추구에 따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과 지배, 그로 인한 소외와 단절의 모습이다. 근대적 제도나 법, 혹은 과학이 이상사회를 만들어서 참다운 인간적 삶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 시대의 소박한 법학 · 사회학 · 과학자들의 꿈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전형적 근대 자본주의국가며 과학이 발달한 영국이나 미국 사회를 볼 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치안공백 때 나타나는 폭동이나 약탈, 인종 갈등은 무어라 설명할 것인지. 그것은 결코 근대적 이론으로 무장한 정치가나 학자들이 꿈꾸는 이상사회와는 전혀 거리가 먼, 굳이 말한다면 자유라는 이름하에 추구되는 유물적 욕망이자, 이를 위해 돌진해 가고 있는 근대사회의 전형적 모습이다.

과학적 지식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생명과학은 근대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과학지상주의의 흐름을 타고 모든 것의 구세주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관계로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지 기계적 관점으로 대상화시킬 수 없음을 강조하셨다. 또 모든 존재는 서로가 서로에게, 결과가 원인에게도 영향 미칠 수 있기에 서로 나누며 서로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제도나 법, 과학적 지식이 어떠하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쓰는 주인으로서의 인간이며, 사람들이 얼마나 성숙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성숙도가 결정됨을 말해주고 있다.

과학적 지식 ‘목적’ 아닌 ‘수단’에 불과 생명은 기계적 관점의 대상될 수 없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생명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여전히 우리의 욕망 충족을 위해 발전하여 개인과 사회의 소외와 단절을 심화시킬 뿐이다. 우리 사회가 근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탈근대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만물이 상호의존적 존재이며 모든 생명은 존엄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인간 욕망의 실체를 파악하고 진정한 자유로움은 무엇인지 깊이 통찰하여 각 개인이 자각하고 스스로 변할 때 진정한 생명과학의 방향은 탈근대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아름다운 전원 도량 일산 길상사

1백만배 1,000일 기도

“기도를 마치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천일기도 인연도량인 길상사에 부처님 진신사리 모셨습니다.
이 뜻 깊은 불사회향을 함께 하고자 매일 1080배씩 1,000일 동안 1백만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불자님께서 1백만배 기도 동참하시어 소원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입재** : 2004년 3월 15일 ◆**회향** : 2006년 9월 15일 ◆**장소 및 시간** : 길상사 대웅전, 매일 새벽 및 사시 예불

백중 49재 지장 천도기도 안내

8월 30일(음 7월 15일) 백중은 불교계에서 우란분절로 ‘효’ 사상을 일깨우는 뜻 깊은 명절입니다.
1,000일기도에 동참하시는 조상영가님들과 만년영구위패 영가님들을 위해 오는 **7월 13일 백중 49일기도를 입재**합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인연 따라 꼭 동참하시어 다생겁래의 업장을 소멸하고 무진복락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사업을 하신 분, 입시자녀를 앞두신 분들은 조상님들께 가장 좋은 효도가 될 수 있는 백중 49일기도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백중 49일 기도 입재** : 7월 13일(음 5월26일) 오전 10시 30분
초재 : 7월 19일(음 6월 3일)
2재 : 7월 26일(음 6월 10일)
3재 : 8월 2일(음 6월17일)
4재 : 8월 9일(음 6월 24일)
5재 : 8월 16일(음 7월 1일)
6재 : 8월 23일(음 7월 8일)
◆**백중회향 기도** : 8월 30일(음 7월15일) 오전 10시 30분

□ 교통안내 : • 구파발 – 원당역 – 주교사거리 – 길상사 • 자유로 – 일산 호수교 – 길상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산 70-2 전화 031)966-9852
대한불교조계종 길상사 주지 보산 합장

일산 전원 포교도량
‘상황버섯 재배, 주말농장 운영’

신라천년의 숨결, 화랑이 나를 부른다~

선무도 청소년 화랑(여름) 수련회

골굴사 선무도대금강문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선무도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절제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생활이나 휴가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대안교육의 새지평’**(조선일보-2001.12)이란 평가를 받은 선무도의 사찰 수련을 통해 평소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며 화랑의 호연지기를 맛봄으로써 **건강하며 활기찬 삶, 화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을 배워 익힐 수 있습니다

▶ **언 제** : 하 계 – 7월 ~ 8월(2달간) ▶ **모집 인원** : 수시모집(1주, 2주, 한달)
▶ **대 상** : 초등학생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단체, 위탁연수
※ 동참금은 청소년 – 1일 2만원, 한달 60만원, 성인 – 1일 3만원, 1개월 65만원이오니 아래 계좌로 송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하셨더라도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확정이 안되오니 미리 해당계좌로 입금바랍니다.
농 협 721107-52-037300 (예금주 : 설기준)

- 수련내용 -
1. 안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무용, 다도)
2. 기림사, 감은사지, 장항사지, 동해 문무대왕릉 등의 성지순례
3. 주지스님의 초발심 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정화 및 한문공부

※ **지도진 : 스님 · 사범 등 10명, 무용강사 4명(현직교사 • 전공자), 다도강사 2명**
※ **접수 및 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홈페이지 www.sunmudo.com

일 과 표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13시	독서와 사색
5시	좌선	14시	오후 수련(학생)
6시	조깅, 등산	15시	전통문화 강습(학생)
7시	아침 공양(발우 공양)	16시	운력(도량 청소 및 정비작업)
8시30분	불교 강의	18시	저녁공양
9시	오전 선무도수련	19시	예불, 자율학습 및 참회록(학생)
11시	108배 참회기도, 자아를 향한 서원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12시	점심 공양	21시	점호 및 취침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선무도 대금강문 • 선무도 대학

일 주 문



동국역경원 개원 40돌 기념법회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은 7월 21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동국역경원 개원 4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2260-3893



육군 제2훈련소 수계법회 봉행

(사)군불교진흥회 이사장 정각 스님(법륜종 종정)은 7월 25일 오전 10시 육군 제2훈련소에서 3000여 군장병에게 계를 내린다.



제주 법주사 구화루 상량식

제주도 서귀포시 법화사 주지 시몽 스님은 6월 24일 구화루 상량식과 돌사람 제막식을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민추본 4주년 통일포럼 개최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집행위원장 학담 스님은 7월 12일 서울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민추본 창립 4주년 기념 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종교신문 편집인에 취임

종교신문 김주호 논설위원(前 편집국장)은 7월 1일자로 종교신문사 편집인에 취임해 신문사 총괄경영을 맡게 됐다.



김천 늘푸른 야간학교 졸업식

김천 늘푸른 야간학교 이양길(직지사 연수원장) 운영이사는 7월 1일 김천 파크호텔에서 늘푸른 야간학교 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 축하 기념식을 가졌다.

"한국 비구니스님들 수행에 존경심"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왼쪽)이 쏘모 스님의 예방을 받고 있다.

쏘모 스님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예방

세계여성불자연합회 회장 카르마 렉쉬 쏘모(Karma Lecshe Tsomo) 스님이 7월 6일 안양 한마음선원을 방문, 원장 대행 스님을 예방했다.

쏘모 스님은 이 자리에서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기간 중 대행 스님과 관련한 논문 2편을 읽다가 스님의 가르침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예방 이유를 밝혔다.

또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환경을 높이 평가하며, 2006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다음대회에 대행 스님이 참석해 주기를 요청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 통과에 노력할 것"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이미경 의원



"언론개혁이나 문화정책의 진흥이라는 중대과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미경 의원(54 · 사진, 열린우리당)은 "16대 국회 전반기 문광위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장직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사찰은 우리나라의 유구한 문화적 전통의 산실입니다. 전통사찰주변을 역사문화보존지역으로 설정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관리토록 하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조계종과 문화관광부 협의를 거쳐 법제처의 심의와 국회 상정 및 통과 절차가 남아있다.

지율 스님이 천성산을 살리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단식 정진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깊이 파악하지 못했다"며 "상황 파악 후 문광위 위원들과 깊이 상의해 볼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여성 3선 의원인 이 의원은 한국여성민우회 부회장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을 역임하며 여권신장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한국불교는 민족의 고난사와 함께 했던 민족적 종교입니다. 민주화, 국민통합 등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항상 앞장서 온 것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빈자일등(貧者一燈)'이라는 말을 좋아한다는 이 의원은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뜻을 항상 새기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19회 불이상 시상식



불이회(회장 홍라희)는 7월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9회 불이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연구분야 수상자 김성철 교수(동국대), 실천분야 장지현 씨(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와, 불이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백제대왕 정림사 행차' 재현



백제의 왕이 부여 정림사에 행차하는 모습을 재현한 '백제대왕 행차' 행사가 7월 3일 부여 정림사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정림사 안내와 의식 집전 등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부여 미암사 주지)이 맡아 진행됐다.

안양지장선원 불교대학, 수계법회



안양지장선원 불교대학(학장 현호)은 7월 7일 대학 법당에서 기초반, 경전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보살계 수계 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지관 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을 계사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사부대중 120여 명이 동참했다.

세계평화와 호국선열 추모법회



한국불교관음조계종(종정 백송)은 7월 3일 세계평화와 호국선열 추모법회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봉행했다.

종정 백송스님 총무원장 무송스님, 중앙종회의장 대광스님, 사무총장 웅제법사 등 5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연등축제 우수단체 시상

최우수상 한마음선원, 우수상 천태종 · 능인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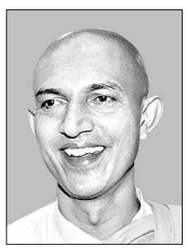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연등축제 최우수상을 받은 한마음선원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불기 2548년 연등축제 시상식에서 한마음선원이 최우수상인 봉축상을 수상했다. 7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상인 연등상은 능인선원과 천태종이 받았다. 올해 최초로 거리행사와 제등행렬에 참가한 스리랑카 불자문화공동체는 원력상을 수상했다.

"준비 · 참여 · 수상 모두 감사합니다"

원력상 수상 함두루 스님 (스리랑카 불자문화공동체)



"한국의 연등축제에 처음으로 참가해 많이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자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파주 보광사 주지 일문 스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7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열린 불기 2548년 연등축제 시상식에서 스리랑카 불자문화공동체를 대표해 원력상(행사 참여 부문)을 받은 와치싸라 함두루 스님(사진).

봉축위원회는 "불교문화마당에 적극 참여하고 제등행렬에서 스리랑카 장엄등과 개인등을 준비, 정성을 다해 참여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연등축제에 참가한 사람 모두가 이주노동자였기 때문에 수상의 의미가 크다"는 스님은 "스리랑카 불교를 알릴 수 있어서 더욱 행복했다"며 웃음을 지었다.

남동우 기자

대한민국 청소년보호대상 파라미타 · 조명철 씨 수상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 · 사진 왼쪽)가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주)문화방송이 공동주최하는 '제7회 대한민국 청소년보호대상' 단체부문에 수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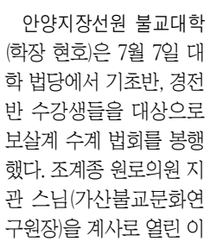
또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제주지부장 조명철(사진 오른쪽) 씨도 개인부문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시상식은 7월 20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02)723-6165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열린 다선방 · 불교대 개원

안성 백마사… '반야심경 강의'



"불자들이 늘 독송하는 반야심경에는 불법의 요체가 담겨 있지만 그 뜻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체득하면 행복한 길이 열리지요. 함께 반야심경을 배우면서 행복한 삶을 누려보세요."

7월 3일 열린다선방 불교대학을 개원한 '황토로 지은 법당' 안성 백마사 주지 법성 스님(사진). '반야심경을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불교대학에서 열린 첫 강의에서 <반야심경>을 설강했다.

요즘 안성지역에서 재밌는 강의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법성 스님은 9월 11일부터 매주 토 · 일요일 3개월 과정으로 <반야심경>을 비롯해 108 참회선법, 통성예불의식, 요가 등의 특강을 열 계획이다.

한편 법성 스님은 매주 주말 수련회를 열고 있다. (031)674-7188 **박봉영 기자**

2003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9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3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호당 32면으로 증면되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3년 1월(402호) ~ 6월(427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2003년 7월(428호) ~ 12월(453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우체국 010041-01-010042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 (直) (02)737-8881 (代) | 팩스 (02)737-0697
- e-mail : sclee@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관리부

■ 지난 호 구입가격은 60,000원(발송비무료)입니다.
지난호는 19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합본이 신청가능합니다.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불자 세상보기

김 상 득
전북대 윤리과 교수

공복의 구업

옛날에 술을 좋아한 왕이 생일을 맞이하여 신하들에게 각자 집에서 가장 좋은 술 한 동이를 선물로 가져오라고 말했다. 드디어 왕의 생일잔치가 열리는 날, 모든 신하들은 술 한 동이씩 가져와 큰 항아리에 가득 채운 다음 한잔씩 나누면서 축배를 들었다. 왕의 건배 제안에 따라 술을 마시던 신하들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했다. 항아리 속의 술은 맹물에 불과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마 신하 각자로부터 술을 선물을 받았으면 왕은 가장 좋은 술맛을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 왜 항아리 속의 술은 맹물인가? 한 마디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나 하나쯤' 이야 하는 이기심 탓이다. 익명성이 보장될 때 우리는 공동체의 선보다는 자기 이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왕정시대의 신하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복(公僕)이라고 자임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은 분명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열을 올리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일반 시민들을 지울 수가 없다.

최근 박창달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나 이명박 서울시장의 망언,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부작용 등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 봉헌' 망언은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제는 한 술 더 떠 "교통대란이 사전에 숙지하지 않은 시민 탓"이라는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부끄러운 모습까지 보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유비무환의 정신을 강조한 금언이다. 우리는 유비무환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소 잃고 외양간을 정말로 잘 고쳤으면 하는 바람 뿐이다.

외양간의 썩은 말뚝을 뽑고 새로운 말뚝을 박고 싶다. 그래서 다시는 외양간의 소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말이다.

열여섯 번의 국회를 통해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사탕발림 말에 얼마나 속아 왔던가? 자리다툼과 제 식구 감싸기가 17대 국회에서는 사라지리라 기대하였건만, 상임위원장 배분과 박 의원 사건은 "역시 정치인은 어쩔게 할 수 없어"라는 자괴감을 낳고 있다. 이뿐 아니다.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이라크파병을 둘러싼 여권의 마찰음은 대한민국 여당이 과연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만 그런 게 아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이다. 외교행정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해도, 김선일 씨 피살로 인해 과연 이 나라의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역시 서민들의 발을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짓밟아도 되는지 의아심이 생긴다. 게다가 뒤늦게 터진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발언은 이미 상식을 벗어나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우리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기까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우리는 정치나 행정이 국민을 바보 얼간이로만 취급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행위가 그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이다. 우리도 이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싶다.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사심(私心)을 버리고 윤리적 옳고 그름이나 공동체에 미치는 결과를 고려하여 제도를 만들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직도 지나친 욕심일까? 공동선의 정치와 행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민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하자.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휴가는 단순히 시간보내기 휴식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발견하고 내재한 창의성과 능력을 계발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휴가처 선택이 필수적이다.

올 여름에도 많은 피서객들이 산과 바닷가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산과 바다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내용 없는 여가시간을 보내다보면 여름휴가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심하면 후회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여름산사 수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정말 특별하고 알찬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이 아주 많다. 올 여름 불교계에서는 약 50여개 사찰에서 약 150여 가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처럼 엄숙하고 딱딱하기만 한 절집 풍습과 교리만을 주입시키려는 수련회가 아니라 참가자의 관심사나 취향에 맞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게 매우 고무적이다.

내면 살찌우는 휴가 되길

올 여름 각 사찰에서 마련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먼저 대상에 있어서 어린이, 청소년, 가족, 부부 등 다양하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전통 재례 배우기' '어린이 박물관 교실' '청소년 환경지킴이들의 금강탐사' '어린이 여름불교미술학교' 등 다채로운 내용들이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내용 가운데 예불과 발우공양은 기본이고 숲길산책, 식물채집, 탁본실습, 감자 구워먹기, 차 마시기 등 우리가 보통의 일상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아기자기한 체험들이 많아 여름산사의 수련은 분명 '자기 넓히기'와 '추억 만들기'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알찬 여름휴가를 산사에서 보내는 일은 비단 불자들만 선호할 일이 아니다. 누구나 나를 얽어매고 있는 여러 사슬들에서 잠시나마 훌쩍 벗어나 자연 속에 파묻혀 자기를 관조하고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는 일은 알찬 여름휴가를 보낼 줄 아는 또 하나의 지혜가 아닐 수 없다.

올 여름휴가는 서슴지 말고 훌쩍 산사를 향해 떠나보라. 평생 겪어보지 못할 싱그러운 체험과 뿌듯한기억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 도수(정업도량 회주)

이렇게 들었다 혼자 사는 가구

대개 사람된 자는 마땅히 다섯가지 일로써 친족을 친하고 공경해야 한다. 첫째 베풀고, 둘째 착한 말을 쓰고, 셋째 이롭게 하고, 넷째 이익을 한가지로 하고, 다섯째 속이지 않는 것이다. 〈선생경〉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자녀 없이 부부만 살거나 혼자 사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고령사회 진입과 가정 해체, 이혼율 증가 등의 양상이 두드러지면서 부부와 자녀를 근간으로 하는 '정상적인' 가정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1인 가구 중 독거노인 가구의 점유율도 40%를 웃돌 것이라 하니, 살기에 급급해 부모 공경을 등한시하고 가족보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세태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하지만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가정이 붕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을 묘안이 없다는 점이다. 사회전반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와 극심한 경쟁체제 속에서 근근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너 혼자 잘 살겠다고…'라는 책망의 말을 차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보다 뒤쳐지지 않기 위해 아내와 아이를 먼 타국에 유학보내놓고 쓸쓸히 하루하루를 마감해야 하는 '기러기 아빠'에서부터 육아에 대한 막중한 부담으로 부모이기를 포기하는 젊은 부부들, 자신의 생계도 장담할 수 없어 '나홀로'의 삶을 선택한 미혼남녀에 이르기까지. 어디 하나 고통 없고 아픔 없는 가슴이 있겠는가.

하지만 어렵고 힘든 시기마다, 지친 영혼의 안식처와 새로운 희망의 샘터가 되었던 곳은 세상을 다 안겨줄 것만 같았던 '돈'도 다양한 삶의 재미와 편안함을 이끌었던 '자유'도 아닌 가족의 품, 가정의 울타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족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손길 하나가 절실한 요즘이다.

■ 김은경(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 -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시장 '망언' … 분노 항의 이어져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시 봉헌' 발언과 관련해 비난과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의 분노와 항의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와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 등에 올라온 항의글을 모았다.

○… 이명박 서울시장의 봉헌서를 보니, 작금의 이 나라 정치인들의 공직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 한쪽이 씁쓸해진다.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선거를 통해서 자기를 뽑아준 국민은 자신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서 전락시키고, 일단 선점한 자리에서는 공직자로서 의무는 아랑곳없이 무소불위의 권력만을 생각하고 자기 맘대로 하려한다. 자신을 봉헌해야 할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오히려 자신의 사유물로서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봉헌하겠다 하는 정신자세가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장의 그러한 태도는 이 나라에서 자신의 평생을 걸어 국가에 봉헌하는 수많은 공직자들을 능멸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한 정신자세가 바로 정치인들이 저지르는 부정부패의 싹이요, 징후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붓다뉴스/성조

○… 시장이라는 자리는 공인의 입장임이 분명한데 자신의 사적 소신과 공인의 신분을 혼동하여 수많은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한 행위는 반드시 공개 사과해야 한다. 균형감각이 결여된 사람이 윗자리에서 매사를 좌지우지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다시는 이런 불행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라. 붓다뉴스/비에프

○… 이명박시장의 '서울 봉헌'의 언급에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과 함께 이명박 시장에게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이 이명박 개인의 것이고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이 이명박 장로의 것인가? 나는 서울 시민이기 전에 한 불자로서 '이명박의 망언'이고 서울시민을 무시한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망언을 규탄한다. 오마이뉴스/펜(pen50)

○… 기독교인들의 망발을 볼 때마다 흥분만 해야 하는 불교계의 현실이 안타깝다.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지고도 늘 기독교에 밀려나는 듯한 현실을 타개할 불교계 지도자는 없는 것인지.

이판은 좌선에 몰두해 있고 사판은 기세등등한 불교계의 현실이 제2, 제3의 '이명박'을 만들 것이다. 국회에서도 불교계 국회의원이 급속히 줄고 표를 몰아준다고 하면 하룻밤 사이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불교인이 수없이 많다. 출가자와 재가자를 막론하고 인재를 소중히 생각하는 풍토가 필요하다. 불교의 앞날을 바로 직시하자. 붓다뉴스/문수

○… 이명박 시장의 말에 대하여 논평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단지 이 시장이 불교가 아닌 기독교 예배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더이상 비난하고 뭉쳐야 하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은 성숙한 종교인의 자세가 아니다. 그런 적절치 못한 말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불교가 진실한 믿음과 수행의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의 언행이 바르고 실천이 올곧다면 무슨 주장이 필요하며 무슨 대응이 필요하겠는가. 붓다뉴스/일천제

○… 종교간의 갈등이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비극을 가져왔던가는 역사가 절절하게 증명하고 있다. 아니 지금도 중동에서 보듯이 처참하기 이를데 없건만 참으로 공인의 신분을 망각한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의 기업가로서의 신선한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감을 느낀다. 조계종의 대응은 물론이려니와 차제에 불교계 자체가 청소년에 대한 포교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붓다뉴스/도원

○… 공무원으로서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의 위치를 망각하고 서울시민을 모독했다. 서울은 기독교인만 살아가는 곳도 아니고 그 누구에게 줄수 있는 사적 재산도 아니다. 서울시장은 개인적인 종교행사에 참석한 것이라 하지만, 직책을 서울시장으로 밝힌 점으로 보아 개인적인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 서울시민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한 점은 상식 밖의 행동이다. 붓다뉴스/정도

'현대' 만평 심 민 섭



숲속의 절 육지장사 특별수련회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산사축제

명상과 소리의 만남 락 페스티발

서울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광화문. 승용차 45분거리) 숲이 우거지고 산새 소리 끊이지 않는 백옥으로 장엄된 도량 도리산 육지장사에서는 도심인의 되풀이되는 일상생활속에서 심적 불안과 갈등, 온갖 스트레스로 찌든 삶을 한순간이라도 정화하기 위한 특별한 여름휴가 수련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아주 특별한 수련회!
고요적정해야하는 명상과 시끌벅적 요란한 락뮤직의 만남!
어찌보면 극과 극의 대립같지만 이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인 인간적 깨달음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동참하시어 마음의 번뇌로부터 오는 고통과 육체적 긴장에서 해방되는 건강하고 행복한 행운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련일시 : 2004년 7월 31일(토) 오후 2시 ~ 8월 1일(일) 밤 10시
장 소 : 도리산 육지장사(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삼보사
프로그램 : • 제1부 - 명상 · 관행수행
• 제2부 - 젊음이 폭발하는 락 페스티발공연 (공연은 무료, 누구든 참석 가능)
7월 31일(토) 밤 8시 ~ 10시(출연진 : 가이야, 베베, 블랙홀) 선 무용단 이선옥교수외 그제자
8월 1일(일) 밤 8시 ~ 10시(출연진 : 보리즈, TO, 블랙신드롬) 선 무용단 이선옥교수외 그제자
수련동참금 : 삼만원(숙박 수련생에 한함)
계좌번호(하나은행 110-082213-00105 예금주 삼보사)
인 원 : 150명(숙박 수련생 선착순 접수)
문 의 : 031)871-0101(육지장사), 02)352-6406(삼보사)
홈페이지 www.yukjijangsa.org (한글도메인 육지장사)

지장대불기도 도량 양주 대원정사

백중 설판공양 영가천도기도

백중 8월 30일(음 7월 15일) 우란분절로 '효' 사상을 일깨우는 뜻 깊은 명절입니다.
나로 인한 선망조상이나 부모님을 위한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과 사업 원만 발전, 가족들의 안녕 및 입시 자녀를 위한 백중 49일 기도 입재를 7월 13일(음 5월 26일)에 봉행하오니, 사부대중께서는 인연 따라 두루 동참하시어 나로 인해 비롯된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자녀들의 입시기도를 비롯한 학업성취 등 저마다 소원하신 바를 성취하고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과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 동 참 비 : 영가 1위 30만원(백중 49일 기도기간 중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영가시식봉행)

▷백중 입재 : 7월 13일(음 5월 26일) 오전 11시
2재 : 7월 26일(음 6월10일)
4재 : 8월 9일(음 6월24일)
6재 : 8월 23일(음 7월 8일)
초재 : 7월 19일(음 6월 3일)
3재 : 8월 2일(음 6월17일)
5재 : 8월 16일(음 7월 1일)
▷백중(108참회기도)회향 : 8월 30일(음 7월15일) 오전 11시

■ 토요일 철야정진 기도
- 토요일 밤 11시부터 일요일 새벽 4시까지

■ 판소리 / 장구 회원 모집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참가비 1개월 : 1만원 (학생 · 일반인, 가족회원 환영)

오시는 길 1. 셔틀버스 - 오전 10시 10분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문산 방향 환승주차장) 출발
- 오전 10시 30분 장흥 농협 앞 출발
2. 자가용 : 서울 구파발 → 장흥 → 돌고개 앵무봉 관광지 → 대원정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 126번지 지장대불조성 만등불사 접수중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정사 전화 031)855-5501, 3 / 팩스 031)855-5502











서울서 2시간…앞에는 동해 뒤엔 설악산
도시의 편리함과 천연의 자연환경을 모두 갖춘 패밀리실버타운

주말엔 가족과 함께 머무는 가족별장으로
354세대중 100세대 특별분양

동해 바다와 설악산을 배경으로 한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휴식과 레저, 휴양, 교육의 개념이 복합된 웰빙실버타운이 7월 15일 분양을 시작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오름의 고장으로 불리는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에 위치한 이 패밀리실버타운은 (주)동해실버타운(회장 노철주)이 기존의 복지시설을 인수해 웰빙문화를 가미한 패밀리실버타운이다.

뒤로는 설악의 산세, 앞으로는 남애항, 남애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동해의 수평선이 보이는 지리여건은 동해실버타운만이 가진 특별한 조건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휴가지로 꼽히는 동해안의 관광명소와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수시로 운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입주자와 가족이 함께 동해안에서 주말과 휴가를 맞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이는 동해실버타운이 내세운 가장 매력적인 조건 중 하나로 꼽힌다. 4계절 가족관광이 가능하고 휴가나 주말에도 부모를 찾아와 묵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대의 거리라는 이점과 퇴거 또는 실입주자 사망시 입주비 가운데 60%를 퇴거자 또는 상속인에게 되돌려주는 파격적인 조건도 동해실버타운의 매력포인트다.

동해실버타운의 시설은 여느 시설과 비교하더라도 '최고'로 꼽힌다. 1만 6천여 평의 규모의 녹지공간과 '바다'와 '숲'이라는 천연의 환경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생활공간을 갖췄기 때문이다. 특히 매화동, 장미동, 백합동 등 꽃이름을 딴 총 6개동의 거주공간은 원룸형으로 이뤄진 기존의 실버타운에서 벗어나 방 2개와 주방겸 거실, 화장실 등을 갖춘 27평형으로 꾸며져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넓은 생활공간으로 꾸며졌다.

여기에 주말농장, 사우나, 헬스클럽, 당구장, 탁구장, 바둑, 장기, 게이트볼장, 도자기 실습장, 배드민턴장, 노래방, 주차장, 의료시설 등의 부대 위락시설을 구비해 입주자들의 여가 · 문화활동을 돕고 있다. 특히, 입주자 직계가족이 방문시 숙박은 물론 부대시설까지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어 가족별장으로 까지 사용, 부가가치가 더욱 큰것이 장점이다. 이외에도 동해실버타운에는 120여평의 대형 연회장(컨벤션홀)과 세미나실 등의 공간을 마련하여, 각종 회사 또는 단체의 교육 · 연수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 중이다.

노 회장은 이번에 분양하는 354세대 가운데 100세대도 자신의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254세대는 이익 창출을 위한 분양이지만, 100세대에 한해 이익 창출이 아닌 최소한의 비용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노 회장은 양양의 동해실버타운에 상주하면서 입주자들과 함께 생활한다. 여기에는 입주자들의 불만을 직접 듣고 개선해나가겠다는 노 회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 (주)동해실버타운은 1차 분양에 앞서 이곳을 강원도의 문화가 숨쉬는 공간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내놓았다. 도시의 편리함과 쾌적한 환경을 결합시킨 웰빙타운을 목표로 무공해 유기농 특산물 재배와 각종 정보통신시설, 법률 · 금융 · 재테크와 같은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최적의 생활여건을 갖춰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동해실버타운측은 "동해실버타운은 보증금과 생활비를 한번에 불입하도록 해 매월 납입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한국 최초의 웰빙 패밀리실버타운"이라고 소개하고, "답답하고 숨막히는 도심을 떠나 푸르른 자연 속에서 여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동해실버타운만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을 권유했다.

한편 (주)동해실버타운은 7월 1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코엑스 신관 3층 오디토리움에서 입주 설명회 및 축하공연을 개최한다. '뽀빠이' 이상용 씨의 사회로 오은명 무용단의 부채춤 공연과 임정란 민요단의 축하공연, 가수 김세레나의 축하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가 함께 열려 관심있는 이들의 발길을 잡는다.

또 8월 31일까지 서울사무소를 방문하면 1박 2일 동안 패밀리실버타운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무료체험 숙박권을 제공한다. 최상의 입지조건과 시설, 운영 시스템을 체험함으로써 평생을 보장받을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동해실버타운측의 설명이다.

문의전화 1588-0586



"사업통해 사회환원 행복"

인터뷰 노철주 동해실버타운 회장



"마지막 사업 통한 사회 환원"

"강원도는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1977년부터 매년 수차례 씩 다니면서 강원도에서 여생을 보내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런 소망이 이제야 이뤄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너털웃음을 짓는 노철주(54) 회장은 강원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털어놓는다. 늘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의 빚만 지고 살았던 노 회장. 동해실버타운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한다. 100세대에 한해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숨겨진 사연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사업가의 본분을 잊은 것은 아니다. 저비용 혜택을 전체 354세대 가운데 100세대에 국한시킨 것은 이 때문이다.

"돌아보면 많은 선 · 후배와 친지, 동료들에게서 도움만 받고 갚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업인으로서 사업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일이 빚을 갚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동해실버타운의 입주자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을 벌여 왔지만 이번 사업은 노 회장에게는 마지막 종착지와 다름 아니다. "1백억원이나 되는 큰 자본을 들여 왜 남 좋은 일 시키느냐"는 일부 사람들도 노 회장의 사회환원에 대한 결심을 듣고 박수를 보냈다. 그래서 노 회장은 동해실버타운이 자리한 지리적 여건을 한껏 살린 최고의 시설과 운영 시스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는 것이다.

"나이가 드니까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고민이 피부에 와 닿더군요.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시작한 것은 그런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지요. 이제 남은 일은 그들에게 회향하면서 살아가는 일 뿐이에요."

千古의 신비를 간직한 해오름의 고장, 양양에 위치한 동해실버타운에서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자손들에게 짐이아닌 당당하고 ***명예로운 삶!***
행복한 미래가 보장된 평화가 있는 ***여유!***
식생활 등 품격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풍요!***
바다와 숲이있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
가족 및 친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
노인들의 소망이 묻어있는 독립된 ***생활!***

동해실버타운으로 초대합니다.
부모가 편하면 자식들도 편합니다.

입주 설명회 및 축하공연
- 날짜 : 2004년 7월 15일(목 14:00~16:00시)
- 장소 : 코엑스 신관 3층 오디토리움

출연진
- 사회 : 뽀빠이 이상용
- 임정란 민요단
- 김세레나
- 오은명 무용단

첨단 시설과 좋은 입지만이 자랑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비용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자연이 숨쉬는 곳!

가족과 함께 호흡 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 동해실버타운
서울에서 2시간대, 편리한 교통권, 바다와 수림이 어우러진 자연휴양지 강원도 양양!
남애항과 남애해수욕장, 낙산해수욕장, 설악산 등을 지척에둔 **학마을**에 동해실버타운이 위치합니다.
언제라도 찾아 오고, 돌아 가기 쉬운 지리적인 조건에 27평형 아파트 스타일의 동해실버타운은
가족들의 별장으로서도 가치를 더합니다.

1회 입주금으로 평생을 보장 받으십시요
식사는 물론 사우나, 헬스클럽, 당구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도자기 실습장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화상채팅장, 가족 주말농장 등 입주자를 위한 동해실버타운의 모든 시설은 이용 및 사용이 무료입니다.
120평 규모의 대형 연회장, 전망좋은 카페 등 각종 편의 시설이 형성 되어 있습니다.
동해실버타운은 설계에서 건설, 직접관리까지 원스텝 시스템으로 되어있어 공신력을 더 합니다.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대자연의 여유가 함께 합니다.
바람 한줄기, 태양의 눈부심, 초록의 나무들, 시원한 파도소리 아름다운 대자연의
모든것을 바로 곁에 두고 시작하는 하루 동해실버타운에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동해실버타운



문의전화 : 1588-0586
서울 사무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7-1 신영빌딩 7층
양양사무소: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점포매리 47-4
http://www.dhsilver.co.kr



최고의 치료사는 바로 부처님!

60여년 경험 살려 도(道)치료법 완성

직지인심으로 환자 마음읽고 병 다스려

경봉 스님 친견 후 '걸림없는 의사' 위해 정진

한국정신치료학회 명예회장 이동식(85 · 동북정신과의원) 박사를 만났다. 환갑을 넘긴 저명한 대학교수들조차 그 앞에서는 연신 고개를 조아린다는, 한국 정신의학계의 거장이다. 한국사회에서 정신의학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할 당시부터 정신치료의 꿈을 다진 그의 정신의(精神醫) 경력은 63년. 가지 않는 길을 택하고 선택한 길을 소리없이 다져온 그가 60여년 경험을 토대로 이룩한 것은 바로 '도(道)정신치료'다.

"내가 나의 주인공이라는 자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야.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경지를 회복시키는 거지.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자각을 이끌어내는 과정이야."

그러나 정신질환의 환자들은 주체성을 구속하는 외부의 힘에 끄달리기 쉽다. 그는 환자가 주객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환자의 마음속에 들어간다.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가 자랄 때의 부모를 공감하고, 친구를 공감한다. 그리고 환자의 과거 · 현재 삶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공감해 환자의 억압된 의식 발산을 이끌어 낸다.

그 같은 공감을 바탕으로 환자가 드러내지 않는 부분을 적당한 때에 지적하는 것이 '도 정신치료'의 핵심이다. 선사들이 제자의 망상이나 분별심을 제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직지인심(直指人心)으로 환자의 마음을 읽고 다스린다. 그가 "성숙한 치료자는 보살경지에 있다"며 치료자의 수도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그의 체험과 무관하지 않다. 이 박사는 우연히 대혜 선사의 <서장(書狀)>을 접한 이래 탄허 스님, 숭산 스님, 월운 스님 등과의 만남을 통하여 불교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됐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후배들과 함께 경봉 스님을 친견한 후에는 환자치료와 중생제도의 근본이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경봉 스님을 만나 뵙고 한 말씀 청하니, '봤으면 됐지 얘기할 것이 뭐가 있냐' 하시는 거야. 서양사람들이 말하는 관계라는 것은 개념화될 수 없고 오로지 지각될 수 있을 뿐이지. 그 지각이 바로 스님이 말씀하신 '목격'이었어."

스님이 가르쳐 준 '무념의 경지'를 가슴에 새긴 이 박사는 이후 참선 수행을 통해 '걸림없는' 치료자가 되고자 끊임없이 정진했다. 경봉 스님으로부터 '의사가 아니라 도인이 됐으면…'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근기가 남달랐던 그는 불교, 도교, 유교 등을 밀도있게 연구하면서 동양사상과 정신치료를 접목시키는데 몰두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에서 180도 바뀌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지. 이때 환자는 많은 억압된 감정과 생각을 표출하게 돼. 일단 이 감정들을 씻어내고 그 근원을 이해할 수 있으면 180도를 더 돌아 다시 시작한 위치로 돌아오게 되지. 이 때는 '산은 또 산이고 물은 또 물이다'야. 이때 사람의 인식이 크게 높아질 수 있어."

서양에서는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발견했다는 무의식과 인간의 마음. 그러나 이 박사는 "동양에서는 그것을 이미 2500년 전에 완전히 이해하고 치료 방법까지 명시해 놓았다"고 강조했다. 깨달음의 과정을 그림으로 그린 심우도(尋牛圖)만 보더라도 서양의 정신치료분석과 그대로 닮아있다는 것이 그가 제시하는 한 예다. 이 박사는 이 같은 연구를 거듭하면서 최고의 치료자는 부처 · 보살이고 최고의 목표는 정심(淨心)이며, 더불어 최고의 치료 방법은 '치료자의 정심'이라는 뜻을 명확히 했다. 그의 말이 빈말이 아니듯, 그가 주창한 도정신치료는 전세계 정신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8월에 열릴 학회 창립 30주년 국제포럼에도 내로라하는 세계적 거장들이 참석, 이 박사의 도정신치료법을 낱낱이 해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든을 훌쩍 넘긴 그의 도전은 끝이 없다.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쉬지 않고 환자 진료에 몰입하는 한편, 늦은 밤과 주말에는 후학양성을 위한 모임에 '올인'한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달마가 혜가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는 말로 대신하는 이 박사.

'바깥모양을 취하지 말고(不取外相)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 비추라(自心返照)'는 그의 화두는 과연 언제까지 진행형일까.

글=강신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이동식 박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인술을 펴고 있다. 그의 정신치료 현장은 늘 녹음테이프가 따라붙을 정도로 정신의학계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동식 박사는 1920년 일제 강점기에 경북 칠곡군의 농가에서 태어났다. 대구의전 졸업 이후 서울대 의대와 뉴욕대 신경정신과, 뉴욕의 윌리암 알란손화이트 정신분석연구소에서 수련을 거친 전문의이자 의학박사이다. 수도의대(현 고려대 의대)와 경북대 의대 교수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과 한국카운슬러협회 고문을 지낸 바 있다. 현재는 한국정신치료학회 명예 회장, 연세대 의대 신경정신과 외래 교수로 후진 양성에 종사하면서 동북의원(신경정신과)에서 정신치료를 하고 있다.

신개발 玉 佛 (옥불)

천연 비취 옥을 이용, 압축 성형하는 최첨단 공법으로 기존 옥불 보다 더욱 정교하고
정밀하며 가격 면에서도 월등히 저렴합니다.

비취 옥 불상 조성 불사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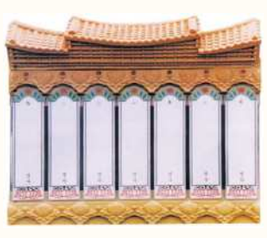


■ 종류 : 석가, 관세음, 지장, 약사불 외 각종 옥불 가능 ■ 크기 : 7인치, 1자, 2자반, 3자 ■ 108불, 500불, 1,000불, 3,000불, 10,000불

정심원 옥불의 특징점

1. 변색이 전혀 없어 장기간 깨끗하고 미려합니다.
2. 옥에서 기(氣)가 발생하여 건강에 좋습니다.
3. 개금할 필요가 없어 차후 금전 부담이 없습니다.
4. 금이 가거나 깨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5. 법당 내부나 외부에도 모실 수 있습니다.
6. 가격이 저렴합니다.
7. 화재시 타거나 변색이 전혀 없습니다.

영가위패단



의 장 등 록 제 20819호
실용신안출원 제 15466호



영가위패의 좋은 점

1. 혁신적인 기술로 최첨단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여 화재 및 감전의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2. 자석과 특수가공 철판을 사용하여 탈,부착이 용이하며 수정아크릴을 사용하여 장기간 사용하여도 변색되지 않고 깨끗합니다.
3. 위패 한위 한위마다 연화문양을 조각하였고, 상단에는 닫집 문양을 넣어 현대감각과 불교미술적 조화로콤팩트하고 장엄합니다.
4. 장소를 적게 차지하여 같은 장소에 많은 영가를 모실 수 있습니다.
5. 특수 반도체 전구를 사용하여 반영구적이며 전기료도 거의 들어가지 않아 경제적입니다.
6. 위패 한위 한위마다 인등처럼 불을 밝혀 미려하고 장엄합니다.

인 등



안전하며, 편리하고, 디자인까지 완벽한 정심원 인등

- 일반 인등 - 석가, 관세음, 지장, 연꽃, 산신, 호롱
- 호박 인등 - 산신, 연꽃
- 크리스탈 - 연꽃
- 특수인등 - 삼존불, 주존불
- 특수 반도체 전구 인등 - 지장, 관세음, 석가

저희 정심원 제품은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는 불필요한 유통을 줄이고자 불교용품점에는 일체 납품하지 않고 사찰에 직접 보급합니다.

영가위패 · 인등 · 옥불 전문
正 心 院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1474
전화 031)969-6310 핸드폰 011-724-0455

정목 스님이 말하는
'원효의 염불선'<6>



대승의 관문 '보리심'

불법문중에 입문한 사람은 누구든지 "부처님을 우러러 생각하고, 그 지혜를 한결같이 엎드려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러하지만 수행문에 따라 믿음을 성취하는 데는 차별이 있습니다. 염불수행에서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믿고 무량한 자비광명에 대한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신성취(信成就)입니다. 이 믿음을 성취한 다음 단계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발보리심 혹은 발심(發心)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발심으로 인하여 삼신을 갖추셨습니다. 첫째는 법신(法身)이니 원심(圓心)을 증득하셨습니다. 둘째는 보신(報身)이니 만선(萬善)을 감득(感得)하셨습니다. 셋째는 화신(化身)이니 인연따라 출현하십니다. 법신은 무수한 번뇌를 모두 다 끊고 원심을 증득한 체(體)입니다. 원심은 곧 일심(一心)입니다. 보신은 무량한 선법(善法)을 모두 다 닦은 상(相)입니다. 무량한 공덕을 갖춘 것입니다. 화신은 무변한 중생을 모두 다 구제하는 용(用)입니다. 삶의 모습과 근기에 따라 방편을 보여 교화하십니다. 이 삼신을 꽃피우는 씨앗이 보리심이니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신 꽃피우는 씨앗 역할
이치 알고 지혜 원하면 정각

발심 혹은 발보리심이란 무엇인가? 보리(菩提)는 범어인 보디(bodhi)를 음역한 것으로 '깨달음의 지혜'라고 해석합니다. 발보리심(發菩提心)은 삼신을 성취하고자 일으킨 마음인데, 이로써 무상도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발심은 지혜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무수한 번뇌를 모두 다 끊기를 원하고, 무량한 선법을 모두 다 닦기를 원하고, 무변한 중생을 모두 다 구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궁극적이고 참다운 지혜는 번뇌를 멸진할 뿐 아니라, 선법을 닦아 중생을 구제하는, 곧 해행(解行)이 일치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대승은 자각이든지 자비광명에 의지함이든지 어떤 수행문에서도 반드시 발심해야 합니다. 발심은 대승의 관문이요, 근본정신이며, 대승불교의 실천철학입니다. 발심이 곧 대승이요, 정각입니다.

원효는 <무량수경종요>에서 정토에 왕생하는 정인(正因)은 보리심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 마음의 열매가 되는 과보는 비록 보리이지만 그러나 꽃이 되는 과보는 정토에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보리심의 양은 광대하고 끝이 없으며 길고도 멀어 무한하다. 그러므로 능히 광대하고 가없는 의보(依報 : 유정이 의지하는 국토)의 정토와 장원하고 무량한 정보(正報 : 유정의 몸)의 수명을 감득한다. 보리심을 제외하고는 저 의보와 정보를 능히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이 마음을 설하여 정토왕생의 정인(正因)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불법문중에는 삼보에 귀의한다고 말하면서도 지혜는 구하지 않고 복만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는 삿된 믿음의 무리입니다. 지혜를 구하지만 반신반의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는 믿음이 성취되지 않은 때문입니다. 믿음을 성취하여 발심하였으나 곧잘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는 이치를 모르고 발심한 때문입니다. 이치를 깊이 이해하고 지혜를 원하는 순리발심(順理發心)에 이르면 곧 정각(正覺)입니다. 십해초발심주에 올라 범부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염불선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일심을 증득하고자 수행합니다.

<양산 정토원 원장>

티베트 수행 기본은 '보리심과 이타행'

달라이 라마 한국인 제자 청전 스님 '입보리행론'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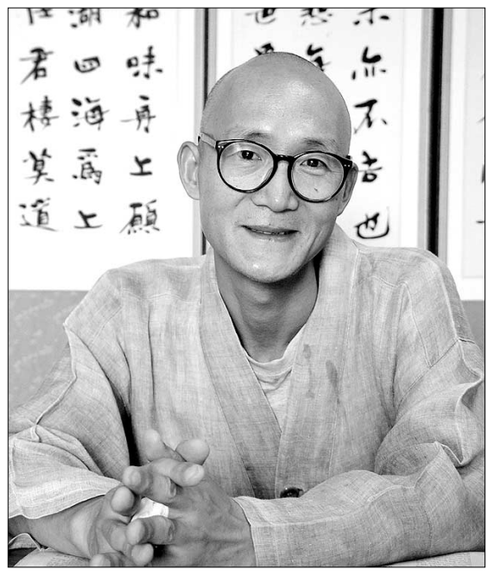
"수행의 기본은 큰 자비심을 바탕으로 보리심을 일궈서 이타행을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 대보리심, 대자비심입니다."

최근, 3년만에 귀국한 달라이 라마의 한국인 제자 청전 스님은 티베트의 불교 수행은 발보리심과 자비심이 근간을 이룬다고 말했다. 7월 6일 부산 관음사에서 만난 청전 스님은 화두가 뭐냐는 질문에 한마디로 답할 수 없듯, 보리심을 일깨우는데도 순서가 있으며 그것을 수행하는 데는 12년이 걸릴 정도로 간단치 않다고 답했다.

"티베트에서는 육바라밀, 사무량심(四無量心: 慈悲喜捨)을 바탕으로 한 수행을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빨리 깨달아서 부처가 되라는 법문은 많이 하는데 육바라밀, 사무량심을 기본으로 보리심을 일깨워서 중생을 부처님처럼 모시는 수행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보리심 일깨우는데도 순서가

청전 스님은 "개인의 삶과 지구촌의 모든 뿌리가 고(苦)이고 무상(無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교학적 앎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바라밀, 사무량심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와 무상에 대해 바로 알 때 보리심을 발하게 되며 이타행을 실천하는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청전 스님은 스승의 역할을 강조했다. 스승은 삶의 무상함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법을 설하고 이 세상이 참으로 무상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준다. 그로써 인내하고 보시하고 염불하고 참선하는 수행으로 나아가도록 제자를 이끌어주는 것이다. 또 수행자는 자(慈) 비(悲) 희(喜) 사(捨)의 네 가지의 무량심의 실천을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즉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과 우애의 마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동정하여 제거해 주는 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고 기뻐하는 일,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의 마음을 버리고 평등하게 대하는 일, 이 모든 것은 곧 보살행의 실천과 다르지 않다.



자리 · 이타의 겸수를 말하는 청전스님.

'보시 · 지계 · 선정'을 삶의 축으로

출가 후 한국의 선원에서 10년 동안 수좌로 정진하던 중 해결되지 않는 의문을 안고 인도를 찾았던 청전 스님. 달라이 라마에게서 의문을 해결하는 진솔하고도 분명한 답을 얻은 이후 17년 동안 보시, 지계, 선정의 삼박자를 삶의 축으로 삼아 수행하고 있다. 가진 모든 것을 보시하고 지계(持戒)를 생명으로 삼으며, 선정을 지켜나간다는 것이다. 선방에 앉아 정진하는 것을 최고의 수행으로 삼았던 스님에게 이제 보살행의 실천은 삶이자 곧 수행이 되어 있었다. 스님은 라다크 현지민들에게 한국 불자들의 도움을 받아 의약품, 돋보기 등을 보시하고 있지만 수행의 방편일 뿐이라며 밝히길 꺼려했다.

대자비심과 발보리심의 중요성을 수행을 통해 체득한 청전 스님은 6개월에 걸쳐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 티베트본을 완역했다. 이 경전이 한국의 많은 불자들에게 보리심을 일깨우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7월 말경 출판되는 이 책은 한국에 소개되는 <입보리행론>의 첫 완역본으로 달라이 라마가 한국인을 위한 법회 교본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8세기 산티데바 큰스님이 읊은 천 개의 게송으로 된 이 경에 대해 스님은 "실질적으로 자비행을 실천하면서 깨달음에 들어가도록 이끌어주며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다루고 있는 경"이라며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입보리행론>의 제 2장은 보시 바라밀, 3~5장은 지계(持戒) 바라밀, 6~9장은 각각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 바라밀을 설명하고 있으며 1장은 보리심을 찬탄, 10장은 여러 부처와 보살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苦 · 무상 바로 알면 이타행 자연스러워

"3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보니 깨달음을 빨리 얻을 수 있다는 수행 속성반이 유행하고 있어 놀랐다"며 "수행에는 절대 속성이 없으며 또 수행법에는 우열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스님은 "수행에는 돈이 들 수 없으며 큰 자비심으로 이웃과 나를 위하는 길이 있을 뿐이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바르게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가톨릭신학대학을 다니다 불교에 귀의한 후 다시 인도 다람살라에 자리잡기까지, 삶 전체를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선택을 감행해야 했던 수행의 길이었기에 청전 스님의 구도관은 남달라 보였다. 한국을 떠날 때 75kg였던 몸무게가 55kg로 줄어든데다 너무나 오래돼 도수마저 맞지 않는 검은 뿔테 안경을 낀 스님은 외모마저 남방의 수행자를 닮아 있었다. 스님은 "흔히 남방불교하면 뭔가 신비한 것, 신통력 등을 기대하지만 수행자로서 부드럽고 자애로운 미소를 보여주며 자기를 없애 무아(無我)의 경지에 다다르고 공성(空性)을 깨닫는 것이 수행의 참다운 열매"라고 힘주어 말했다. 청전스님은 7월17일 오전 10시30분 안성 도피안사에서 '가까이서 본 달라이 라마'를 주제로 설법한다. (031)676-8700 부산=천미희 기자



태국 '염불위빠사나' 국내 첫 소개

호두마을선원, 아짠 차 선사 수행법문집 출간

'염불 위빠사나'가 국내에 처음 소개됐다.

천안 호두마을선원이 최근 펴낸 아짠 차(Phra Ajahn Chah, 1918~1991 · 사진) 선사의 수행법문집 <위빠사나,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김열권 · 김해양 번역)에서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염불위빠사나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염불 및 위빠사나 수행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계적인 태국의 고승 아짠 차 스님의 핵심 수행법 중 하나인 염불위빠사나는 집중력 증대에 뛰어난 효과를 지닌 염불수행(佛隨念)과 수행단계가 잘 밝혀져 있는 위빠사나의 장점을 접맥시킨 탁월한 수행법으로 알려져 있다. 염불이 염송을 통한 정신집중과 선정을 강조하는 반면 위빠사나는 알아차림에 치중하다 보니 집중력이 약한 점을 상호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염불과 위빠사나의 단점을 극복하고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염불위빠사나는 태국 수행자의 대다수가 실참하고 있는 수행방편이기도 하다.

염불위빠사는 자신의 성향에 맞춰 '붓도(Buddho : 붓다의 주격)'라는 명칭을 염송하며 호흡관찰 등의 사념처관과 연계시켜 수행하거나, 염송없이 순수하게 위빠사나만 수행하거나, 붓다의 공덕을 기리며 붓도 염송만 행해도 된다. 이 수행법의 특징은 붓다의 공덕을 기리며 심신을 견실히 다지면서 집중력과 알아차림의 힘을 견실히 다지면서 일상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점이다. 바쁜 현대인이나 집중력이 약한 불자들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태국의 숲속사원 왓빠뽕 분원과 서구 전역에 50여개의 사원을 세워 태국 불교를 전세계에 알린 아짠 차 선사. 그의 수행법 핵심은 염불위빠사나와 함께 선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놓아버림(放下着)'에 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므로 일체를 (심지어 불법까지도) 놓아버림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아짠 차 스님은 "사물은 물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까지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쳤다.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들을 지켜봄으로써 그 무상한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하게 되면, 고통의 근원인 집착과 무명에서 벗어나 참된 법(法)을 발견하게 된다는 법문이다. 김재경 기자

佛經漢文科
▶ 통신반 · 출석반 募集 ◀
1. 募集期間 ▷ 후기 : 7월 15일 ~ 8월 15일(기간엄수)
2. 教育科目 ▷ 무량의경 (漢文本)
▷ 묘법연화경 (漢文本)
▷ 관 · 보현보살 행법경 (漢文本)
▷ 교양한문(생활한자 5,000자)
▷ 간체자 (중국한자)
▷ 기타교양과목 (특강)
3. 教育期間 ▷ 3년(6학기)
▷ 통신반 · 출석반 동일
4. 教育方法 ▷ 매주교재와 강의테이프 우송 (통신반. 출석반 동일)
▷ 월1회 출석특강 (통신반)
▷ 출석반 주 1회 출석 (대구. 부산지역)
※ 본 연구소에서는 불경공부와 수행이 알음알이로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5. 畢業惠澤 ▷ 畢業證書 수여
▷ 한자원리지도사 자격인증서 수여(심사후)
▷ 전문 연구과정 수강자격 부여
6. TEL 053)952-8711 / 017-501-8711
※ 자세한 입학 안내서는 청구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社)國際語文研究所
所長 · 哲學博士 崔光永
우편 : 대구시 동구 동대구우체국 사서함 41호(우 701-600)

법요집·기초교리 集괘도 재발간
첨단교육 매체가 다양한 오늘날에도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보조재료로는 칠판과 괘도를 활용하는 입체적 교수 방법이 좋습니다. 특히 청소년 여름불교학교 담임법사님들께서 교보재로 활용 하시면 좋은 결실을 거두실 것입니다.
군법당, 경찰서 교도소 등 대중교리 교육이 필요한 곳에 법보시를 하고자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 전화주시면 택배로 우송해 드립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정근
• 찬양합니다 • 발원 및 축원
• 반야심경 • 사홍서원
• 입정 • 산회가
• 청법가 • 기타찬불가
•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15. 사성제 16. 사섭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왕삼매론
■ 기획 : 예맥불교문화원 ■ 제작 : 불교포교자료원
■ 전화 : 02-772-9052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시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 가 풍부하며, 강장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 약 3Kg
- 지름 : 20~30Cm
- 원산지 : 태국
※ 태국에서 영하 40℃ 급냉 직송하여 냉장창고에 보관중
- 가격 : 1개 35,000원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 판매 및 문의 :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 031)882-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입금계좌 : 농협 100023-56-156761 예금주 : 조명숙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卍 해동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겹누비면(먹물)
적삼, 조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180,000
두루막 250,000
면(먹물), 광목
적삼, 조끼, 바지 16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무 명
적삼, 조끼, 바지 220,000 ~ 300,000
동방, 바지 220,000 ~ 300,000
두루막 180,000 ~ 250,000
모 직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200,000
동방, 바지 160,000 ~ 20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마(먹물)
적삼, 조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하복지-구김없고세탁 용이
적삼, 조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 장삼 200,000 ~ 260,000 조끼 몸빼 60,000 ~ 셔츠 30,000 ~


대구 고속터미널 중간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휴가 알차게 보내기

명상이 딱이네

휴가철이 성큼 다가왔다. 방학 · 휴가철을 맞아 명상프로그램과 다양한 테마를 결합시킨 수련회가 쏟아지고 있다. 오래간만에 맞은 여가시간을 명상수련 프로그램과 함께 하는 것은 어떨까? 7~8월 명상수련 일정을 소개한다.



충북 보은군 샨띠와남 요가수련원의 '2003 명상캠프'에서 황토염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 사진제공=샨띠와남 요가수련원



화두삼매에 빠진 수련생들.

찻잎 따고 록음악에 취해봐

놀이명상 도리산 **육지장사**(031-871-0101)는 7월 31일(토) 오후 2시~8월 1일(일) 밤 10시 '명상과 함께 하는 록 뮤직 페스티벌'을 연다. 참선과 밀교관법, 생활명상 이론 · 실습 등의 명상프로그램과 함께 록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하는 록 축제마당을 선보인다. 국악과 양악을 넘나드는 퓨전그룹 가이아, 국내 헤비메탈의 선두그룹 블랙홀舅 비룻, 베베 · 브리즈 · 투 · 블랙신드롬 등이 공연을 이끌 예정이다. 수련비 3만원, 숙박수련생 선착순 150명 마감.

녹색대학교(055-964-0986)는 7월 29(목)~8월 1일(일) 명상캠프를 연다. 녹색의 삶과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서는 명상요가(양희연 · 참선요가 지도자)를 비롯해 찻잎따기 · 덖기(주주미 · 도예전문가), 벼 알기와 피 뽑기(이재연 · 농부), 척추 알기(이정훈 · 인산의학 연구가)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요가삼매로 더위도 잊고

요가명상 대한요가협회(02-3444-6618)는 7월 24일(토) 오후 2시~25일 오후 2시까지 경기도 양평 리조트 호텔에서 하계 요가 축제를 연다. 요가 세미나와 요가포즈 경연대회, 요가운동처방 토론 및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참가비 5만원.



기구를 이용한 요가아사나.

홍익요가연구원(02-333-2350)은 충주연수원에서 7월 23(금)~25일(일), 7월 30(금)~8월 1일(일), 8월 6(금)~8일(일) 3회에 걸쳐 '2004 요가 할러데이'를 연다. '집중력'과 '건강'을 화두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에서는 집중력 계발 요가 · 호흡과 명상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샨띠와남요가수련원(043-544-4406)도 7월 29(목)~ 31일(토), 8월 5~7일(토) '2004 샨띠와남 여름 요가 캠프'를 연다. 참가비 8만원.

큰스님 곁에서 집중수행

집중명상 위빠사나 선원 호두마을(041-567-2841)은 7월 23(금)~ 8월 1일(일) 미얀마 우 에인다까 스님 초청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미얀마의 따담마란디에 주석하고 있는 우 에인다까 스님은 마하시 스님 직제자인 우 쿤다라 비왐사(따담마란디 선원장) 스님의 십대제자 가운데 한 명이다. 참가인원 40명, 참가비 20만원.

보리수 선원(02-517-2841)역시 7월 17(토)~8월 7일(토) 안성 황룡사에서 스리랑카 구나라타나 큰스님 초청 특별 집중수행을 연다. 구나라타나 스님은 경학과 수행 지도자로 전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명상의 집 삿상(031-768-7180)은 8월 14(토)~18일(수) '어린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수련'을 마련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자녀와 어머니로 한정되고 선착순 7쌍 마감이다.

공부하며 마음도 닦아요

학습 명상 BNB능률학습아카데미(033-747-7941)는 7월 30(금)~8월 2일(월), 8월 4(수)~10일(화) 2차에 걸쳐 한국노총중앙교육원에서 '과외탈출 BNB 2004 집중력 자신감 캠프'를 연다. 6명의 명상수련 지도자들과 함께 하는 이번 캠프에서는 마인트컨트롤, 명상기공 등을 응용한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참가비 27만원(1차), 52만원(2차), 접수마감은 7월 22일까지.

동서심리상담연구소(02-564-3231)는 7월 31(토)~8월 4일(수) 오덕원 수련원에서 '마인드 학습클리닉 여름캠프'를 연다. 심리검사, 주의집중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학습명상법을 제공하며 7월 31일에는 부모교육도 예정돼 있다. 참가비 80만원.

강신재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heegyunwiz@hanmail.net



선의 세계 ㊾

교외별전(敎外別傳)-11

우리가 일상대화에서 방편이라 하면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특히,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정식의 수단이 아니라 그 때그때 형편에 따라 손쉽게, 또는 임시로, 또는 할 수 없이 취하는 수단을 뜻한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좀 부정적인 의미를 깔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결혼을 출세의 방편으로 삼는다'거나, '그 사람은 워낙 시인인데, 생계의 방편으로 출판사에 다니고 있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말한다. 아예 임시방편이라는 말도 있다. 어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취할 방도는 따로 있지만 그때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는 차선책으로 취하는 수단이라는 뜻이겠다.

불교에서 방편의 대표적인 예로 흔히 언급되는 것은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을 구해내는 방법이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비유품(譬喩品)에 보면 삼계화택(三界火宅)이라는 말이 나온다. 삼계란 세 가지 세계라는 말이고, 이것은 중생이 살아가는 세 가지 종류의 세계를 가리킨다. 욕망에 매어서 사는 욕계(欲界), 욕망은 넘어섰지만 물질적인 조건에 매어 있는 색계(色界), 그리고 욕망과 물질적 조건은 넘어섰지만 정신적인 조건에 매어 있는 무색계(無色界)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해탈하려면 탐욕을 떨쳐버리는 것은 기본이요, 개체로서의 몸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안게 되는 물질적인 조건도 초탈해야 하고 나아가 개체로서의 의식까지도 넘어서야 한다.

아무튼, 삼계화택이라 하면 중생의 세계가 온통 불타는 집이라는 얘기이겠다. 어리석음, 번뇌, 괴로움으로 불타는 집이다. 그런데도 중생이라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사는 그 집이 불타고 있는 줄 모르고 그 안에서 놀고 있다. 시급히 빠져나와야 할 텐데도, 사는 게 워낙 그렇거니 하며 유유자적한다. 진상을 아는 이가 말을 해준다면 대개 두 가지 반응이 나올 터이다. 깜짝 놀라고 겁에 질려서 우왕좌왕하는 이들도 있겠다. 하지만 대다수의 중생은 자기들의 집이 불타고 있다는 말을 전혀 믿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인 줄 모르고 똑똑한 것으로 착각하며, 괴로움을 괴로움인 줄 모르고 즐거움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두 가지 반응 모두 그들을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이 났다는 말을 믿고 놀라는 것이 아예 안 믿는 것보다는 좀 낫겠지만,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없다. 화재에 대한 처신방법을 가르칠 때 침착하라는 얘기를 늘 첫째로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들은 솜씨 있게 방편을 쓴다. 예를 들자면 저 밖에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다고 아이들을 꼬드겨서 데리고 나온다.

중생 인도하기 위한 교화법이 방편
방편을 진실로 착각하는 폐해 질타

그러니까 불교에서 방편이라는 말은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 고안된 솜씨 좋은 교화의 방법을 뜻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방편이 진실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앞에서도 누차 설명했듯이, 불교의 궁극적인 진실은 결코 언어문자로 담아낼 수 없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선종의 입장이다. 언어문자뿐만 아니라 중생의 의식으로 고안해내는 그 어떤 매개체로써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없다고 본다. 중생의 의식은 늘 분별의 틀 속에서 작동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진실은 분별을 떨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불이법(不二法)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선종의 입장에서 보자면 언어문자를 사용한 가르침은 모두 방편설이다. 달리 말하자면, 진실 그 자체가 아니다. 교외별전이라는 선종의 종취는 방편을 진실 그 자체로 착각하는 폐해를 질타한다.

사주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9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中

기도처 자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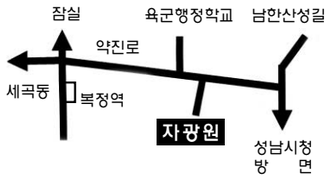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제 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틀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황금당어리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서언(3) 왜 <금강경>을 골랐나

가장 친숙하기에 가장 낯선 경전

선의 소의경전, 혹은 교와 선의 접점

<금강경>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경전입니다. 조계사 근처를 오가는 길에, 혹은 문득 들른 산사에서, 불교신도라면 불교방송에서 새벽을 열고 밤을 닫을 때 유장하고 낭랑하게 울리는 이 경전의 독송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 잠결에 어머님이 새벽마다 예불하며 낮게 읊조리는 이 경전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때는 내용을 전혀 몰랐지요. 무슨 주문처럼 기이하고 낯설어서 거 좀 그만하시라고 어머님께 역정을 내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짓궂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 그거 무슨 소린지나 알고 따라하는 거유?" 이런 당돌하고 불경스런 질문에 어머님은 정색을 하고 자리를 고쳐 잡으며 일장 법문을 펼쳐놓으시곤 했습니다. 어머님은 <금강경>의 이름으로, 다니던 절에서 듣던 스님들의 말씀, 이런 저런 책에서 읽은 지식, 당신의 삶에서 겪은 경험들이 뒤섞인 교훈적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그게 좀 억지스럽고 견강부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금강경>의 문자는 대학을 나온 내가 뜯어보아도 모를 소리뿐인데, 어머님은 그 모든 세부 곡절을 무시하고, 전체를 휘몰아 "바로 이것이 <금강경>"이라고 단정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압니다. "아하, 그 총지(摠持)가 진정 <금강경>이었구나!"라고요.

그러니 문자를 몰라도 <금강경>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문자를 몰라야 <금강경>을 알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선가에서 늘 말하듯이 말이죠. 둘 다 맞는 말이라면, 문자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 <금강경>을 알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방편적으로도 <금강경>은 문자를 '통한' 불교와 문자를 '떠난' 불교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교와 선의 접점이 바로 이 경전입니다. 이 경전이 대승의 중심이면서 선의 소의경전이기도 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에 무슨 소의경전이 있는가 하는 분도 있겠군요. 불립문자라는데 말입니다. 선의 실질적 창시자인 육조 혜능은 주지하다시피 남방 벽지 시골에서 어느 스님이 지나가며 읊조리는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불법의 소식을 얻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그는 나중 <금강경>의 가장 빛나는 주석이면서 또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육조 구결(口訣)>을 남겼습니다.

그 첫머리에 그는 <금강경>이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선이 깨닫고자 하는 핵심이 <금강경>에 잘 표명되어 있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이 뜻을 조선의 선종에서도 받아들였습니다.

서산대사께서는 "굳이 소의경전이 필요하겠느냐"고 썩 내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치신 까닭이 선이 표방한 불립문자의 방법에 더욱 철저하자는 뜻이었지, <금강경>의 취지가 선의 목표와 어긋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문자를 '통해' <금강경>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문자는 결국 쓰러뜨려야 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이해가 깊어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문자 밖에 서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경>이 과연 불교의 중심인가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금강경>이 대승 중관의 대표이고, 또 선과 교의 접점이긴 하겠지만, 그것이 과연 불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물음에는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불교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대해 수많은 논란과 견해차가 있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팔만사천의 법문들이 시간적 순서를 따라, 학파의 발전에 따라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구난방의 한역 경전들을 놓고, 그 가치와 위계를 따지는 교상판석(敎相判釋)이 유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천태와 화엄의 것이 유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분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영미어권에서도 이 문제를 보는 시각과 판단이 제각각입니다. 원시불교에 초점을 두어 대승의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 대승 가운데서도 유식이 정통이라는 사람, 반야가 붓다의 관점을 가장 훌륭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람, 화엄이 불교적 깨달음의 최고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천태를 불교적 선교방편(善巧方便)의 모델이라고 말하는 사람, 정토야 말로 종교로서의 불교를 성립시키는 토대라고 말하는 사람 등, 정말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학을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어리석음"으로 쓸어버리고,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직지인심(直指人心)을 통해 불교의 취지에 직접 닿겠다는 선의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효 스님의 말씀처럼 불교는 능소능대, 한 마디로 끝낼 수도 있고, 팔만 사천 법문으로도 다할 수 없습니다. 근기와 인연에 따라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경전과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위의 분류와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의 성향과 근기에 맞는 방편을 찾아 나설 일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설화적이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법화경>이나 <화엄경>이, 일상적이고 교훈적인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법구경>이나 <수타니파타>를 읽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들은 아비달마나 유식이 맞겠고, 직접적이고 간결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선의 문헌을 읽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잡담 제하고, 핵심만 추려, 불교의 체계와 골격을 알고 싶은 사람은 이를테면 <대승기신론>이 제격입니다. 이도 저도 번잡하고 곧바로 핵심에 닿겠다는 분들은 화두를 들 만합니다. 그러나 이 돈초가(頓超家)의 방법은 보통의 근기에 권할 사항은 아닙니다.

불교의 비밀 늘 삶 가까이에 존재

이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전은 <대승기신론>입니다. 다들 원효 스님의 소와 별기를 더 중시하지만 저는 그 짧고 간결한 대승기신론의 본문을 들여다보기를 더 좋아합니다. 낯선 구절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원효 스님의 주석과 스즈키의 영역을 참고로 들추어 봅니다. 처음에는 이 강좌를 <대승기신론>을 읽고 해설하는 자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신문의 처음 공지도 그렇게 나갔습니다만, 결국 <금강경>으로 낙착시킨 것은, 이 경전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입니다. 가장 대중적이면서 친숙한, 그러면서도 낯설고 어려운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 아닐까 해서입니다.

제가 불교를 말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팔만사천의 법문을 모두 알아야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십시오. 불교의 비밀은 여러분이 늘 말하는 그 익숙한 불교용어와, 늘 독송하는 사구게 속에 있습니다. 그 뻔한 구절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눈에 밟힐 듯 선명하게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은 불교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법문이란 누구나 아는 공이니, 무아니, 법계니, 사성제니를 우리네 삶의 구체적 정황 속에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겁먹지 마십시오. 저는 이 강의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불교 용어나 수많은 주석의 주석들은 가급적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낮고 쉬운 언어로도 우리는 충분히 불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장자따라…

㉖ 봉수 스님의 '도둑'

조태호



봉수 스님(1901~1974): 호는 해안. 전북 부안 生. 내소사에서 경화 스님에게 출가. 불교중앙학림 수료. 금산사 주지. 1969년 불교전등회 설립.

네티즌 교리문답

"열반과 보리의 차이점은?"

문 초기불교에서는 열반의 증득을 목적으로 수행하고 대승불교에서는 보리의 증득을 목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행함에 있어서 열반을 구하는 것과 보리를 구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ID '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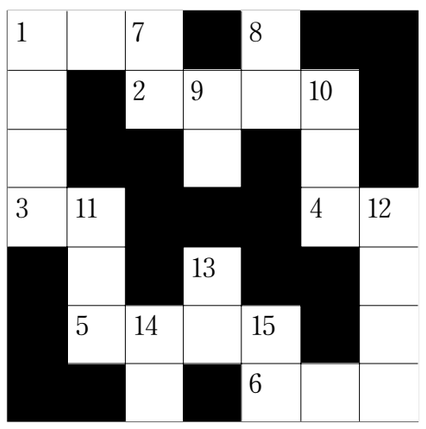
답1: 열반과 보리(정등각)는 같다. 비유하자면 어두운 방에서 스위치를 켰을 때, "어둠이 사라졌다" 라는 표현이 열반이라면 "방이 환하다" 라는 표현이 보리이다. 상황은 하나이지만 시각과 표현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내용인 열반과 보리임에도 강조하는 바에 따라 내용이 다른 불교가 전개되었다. 초기불교에서는 세상의 고(苦)에 대한 통찰과 그 고의 소멸을 강조한다. 그래서 4성제 수행을 통해 열반(고통의 소멸)의 증득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대승경전인 <금강경> 등에서는 아뇩다라삼막삼보리를 많이 말하고 있다. 이것은 부파불교시대에 열반에 대한 오해 내지는 실체화되는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표현인 것 같다. 부파불교시대에 열반을 구하는것은 자리(自利)만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대승에서 그들을 소승이라 비난했기 때문이다. 열반을 구하기 위해서는 숲속에서 선정을 닦음이 강조되고 보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살행이 강조된다. ('서림')

답2: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불이며, 그것은 깨달음으로 성취된 진여, 무분별지혜의 경지이다. 유식학에서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원리를 전식득지(轉識得智), 즉 현상계의 허망된 식(識)을 진여의 무분별지혜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전식득지는 전의(轉依)로서 이뤄지는데, 전의는 자기 존재의 기체(基體)를 허망한 상태(변계소집성)에서 진실한 상태(원성실성)로 질적으로 변혁시키는 과정, 또는 그 과정의 결과로 증득된 열반과 보리를 가리킨다. 보리와 열반은 이 수행의 원리를 통해 동시에 증득되는 결과물이란 점에서 동일하며, 다만 지혜(보리)와 고통의 소멸(열반)이란 측면에서 설명하기 위해 구분한 개념일 뿐이다. ('유식')

답3: 원효는 그의 <열반경종요>에서 열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하고 여러 이론들을 그 특유의 화쟁(和諍)의 논리로 조화시키고 있다. 열반의 번역 문제에 대해 원효는 밀어(密語)로 보면 열반은 많은 뜻을 포함하기 때문에 번역할 수 없지만, 현료어(顯了語)로 보면 음성에 따라 중생에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멸도(滅度)라 번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원효에 따르면 열반은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사덕을 갖는데 이것은 부정적 허무적 견해를 버리고 망집을 떠난 '중도적 지혜' (보리)를 얻는 것을 말한다. ('원효제자')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백제시대 부여 지역에 있던 성, 백제의 도읍 2. 권세가나 부잣집 문 앞이 방문객으로 시장을 이루다시피 붐빈다는 뜻의 한자성어 3. 잘못을 나무라거나 탓함 4. 뒤쫓아 가며 공격함 5.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를 뜻하는 한자성어 6. 마음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 지눌 스님이 저술한 책.

세로 1. '석가의 딸들'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세계 최대 여성불자단체의 명칭(Sakyadhita) 7.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자, ○○, 연각, 보살 8. 중생이 본디 가지고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 여래장과 비슷한 말 9. 전신을 이용한 통신이나 통보 10. 괘종시계에 달려있는 추 11. 이마로 세계 받아치는 행위, 김일 선수의 이것이 유명 12. 학문을 시작하는 이들을 위해 율곡 이이가 편찬한 책 13. 새의 보금자리 14. 불법을 수호함 15. 얼굴을 씻음.



불서의 바다에 빠져보자

여름 휴가철 읽을 만한 책 10권

여름의 유혹은 뿌리칠 수 없이 강렬하다. 아직은 장마로 눅눅하지만 멀지않아 작열하는 태양과 푸른 바다가 우리를 불러낼 것이다. 그 순간이 다가오면 애써 저항 말고 훌쩍 떠나보자. 벗삼을 책 한 두권 챙겨들고. 시원한 숲속과 포효하는 바다를 책상 삼아 휴가지에서 불서를 펼쳐보자. 오히려 일상에서 그토록 짬을 내 읽고자 했지만 실패했던 책들도 휴가지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책장이 술술 넘어 갈 수 있다. 몸은 시원한 바다에, 정신은 불서의 바다에 흠뻑 적셔보자.

일상에서 지쳐버린 정신과 육체를 바다와 불서에 행군다면 그 피로는 금방 희석될 수 있다. 추천 불서를 잡고 법음(法音)의 여행을 훌쩍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식을 줄 모르는 열대야도 금방 사그러들 것이다. 이번 여름휴가의 냉매재로 영풍문고와 교보문고, 책방 여시아문 등에서 베스트에 올라 있는 불서를 장르별로 추천한다.

법문집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지음 | 시공사 | 9천원

40년 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하루도 바닥에 등을 대고 눕지 않는 장좌 불와(長坐不臥)의 수행과 정진으로 놀라운 참선의 경지를 보여준 청화 스님의 법문 가운데 10가지를 정리한 책이다. 스님 말씀은 결국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이치를 강조한다. 그 이치를 깨달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선의 길을 알아야만 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법문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참선의 공덕, 방법 등에 할애돼 있다.

달라이 라마 죽음을 이야기 하다

달라이 라마 지음| 문이당| 1만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중생들에게 전하는 달라이 라마의 법문서. 달라이 라마는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당부한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바로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의 과정 속에서 명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좋은 환생을 가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조언해준다.

홀로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지음| 샘터| 9천8백원

법정 스님이 그동안 맡아왔던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회주직에서 물러나면서 펴낸 산문집이다. 진정한 '홀로 있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고독에 깊은 매력을 느끼지만, 고립 속에만 머물게 되는 현대인들에게는 숨통을 터주기에 충분하다. 현대인들의 고립감은 스님이 보기에는 넘침에서 오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들에 시간과 기운을 빼앗겨 차분히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산문집

신경림 시인과 오현 스님의 열흘간의 만남

신경림 · 조오현 지음| 아름다운 인연| 9천8백원

소박하고 순수한 내면과 세상에 대한 깊은 시선을 간직한 시인 신경림과 승속을 넘나드는 신비함으로 문학보다 더 문학 같은 삶을 살아온 오현 스님(백담사 회주)이 만났다. 시인과 스님이 거침없이, 꾸밈없이 쏟아내는 이야기들은 삶의 깊이와 순수함을 간직한 무욕의 법문과도 같다.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깊은 울림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과 지침을 발견하게 해준다. 여행으로부터 수반되는 인생의 여정, 은밀하고 흥미진진한 사랑이야기, 사회적 이슈와 문제이기도 한 환경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스님이야기 지묵 스님외 지음| 여시아문 | 1만2천원

2000년 1월부터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스님이야기'를 추려 엮은 책. 수행 · 복지 · 포교 · 교육 등에 매진하며, 구도에 힘쓰는 85명 스님들의 치열한 삶과 열정을 소개했다. 그 수행일화 속에는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가득 담겨있다. 길상사 회주였던 법정 스님이 쓴 글에 사인을 받으려고 "스님, 한 말씀 써 주셔요"하면 정말로 '한 말씀' 이렇게 쓰신다. 스님의 유머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또 어떤 육덕이 좋은 노보살이 불명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니 즉석에서 이렇게 작명했다. '우량모(優良母)보살!' 체격이 튼튼한 아이의 튼튼한 어머니로 적합하기에 '우량모' 라고 지으신 것이다.

학술 · 교리 外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덤하우스 중앙| 1만원

문외한도 쉽게 불교를 이해할 수 있다. 미국 하버드대 박사 출신의 비구니 소운(素雲 · 42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스님이 말하는 불교는 어렵지 않다. 하룻밤이면 된단다. 그래서 제목이 <하룻밤에 읽는 불교>다. 이 책은 인도와 중국, 한국, 티베트, 일본 등의 불교를 시대 순으로 소개하고, 초기불교사상과 중관사상, 유식사상, 화엄사상, 천태사상, 선사상, 정토사상 등을 차례로 설명해 놓았다. 주장을 담지 않고 개념과 역사를 망라한 대중 개론서인 셈인데, 사진과 지도 등 시각 자료가 많아 제목처럼 하룻밤에 읽어 내려갈 수 있다.

육조혜능 평전 이은윤 지음 | 동아시아 | 1만2천원

불학적인 연구에만 치중했던 기존의 '혜능과 <단경>에 대한 연구' 스타일에서 벗어나 혜능의 선사상이 성립 · 발전하게 된 사회사적 측면까지 시선을 넓히며 혜능을 입체적으로 조망했다. 혜능과 그의 사상에 대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접근, 최근 연구에서 새롭게 밝혀진 모택동의 혜능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하고 있어 흥미롭다. 마지막으로 혜능의 설법을 모체로 한 <단경>을 살피며, 혜능의 출생과 생애와 관련한 논쟁 및 단경의 작자와 개작의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어 혜능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라 할만 하다.

불교가 좋다

가와이 하야오 지음 | 동아시아 | 1만2천원

인문학의 관점에서 종교를 아우르는 최초의 불교 대담집이다. 일본 융 학파의 선구자이자 동양적 심리학의 개념을 주창한 현 문화청 장관 가와이 하야오와 인문학계의 선두주자로서 종교학과 철학을 넘나드는 전방위 사상가 나카자와 신이치가 불교를 중심에 두고 나눈 대화를 기록했다. 종교의 테두리를 넘어 동 · 서양 문화와 학문의 경계를 하나씩 무너뜨려가는 작업을 시도한다. 개체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근대과학의 원리를 '관계'의 논리로 회복하고, 과학(구체적으로 양자론)과의 만남을 통해 '자율'과 '조화'의 원리를 이끌어낸다.

첫지순례 外

세계의 붓다 마이클 조든 지음 | 궁리 | 2만3천원

불교미술을 따라 붓다의 행적을 좇고 세계 사원을 순례하며, 불교미술에 나타나는 상징과 유래를 밝힌 책. 거대한 암벽, 산꼭대기, 강가 절벽 등지에 하늘이나 나무와 어울려 있는 불상과 사원의 사진 200여 컷을 풍부하게 수록해 읽기가 지루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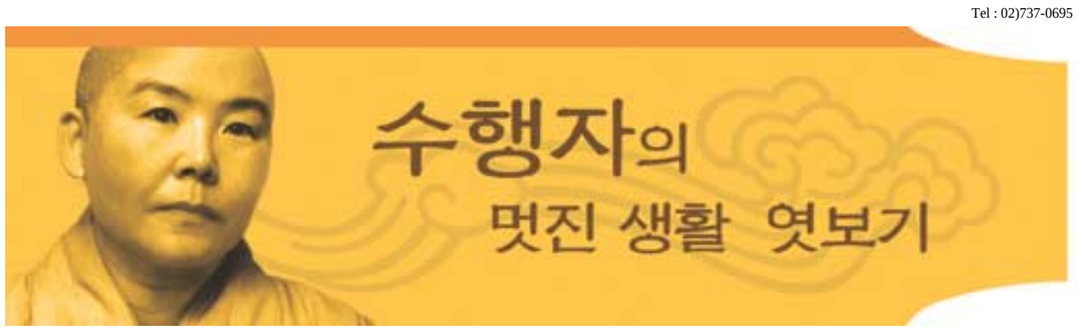
1부에서는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에서 열반지인 쿠시나가라까지를 돌아보며 붓다의 행적을 좇는다. 또 2부에서는 붓다가 태어난 인도부터 네팔,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한국까지 아시아를 가로질러 불교가 전래하고 발전한 과정을 추적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불상의 머리, 백호, 만다라 등 불상에서 나타나는 상징을 세세히 짚었다. 부록으로 용어 설명과 본문에 나온 가볼만한 곳을 나라별로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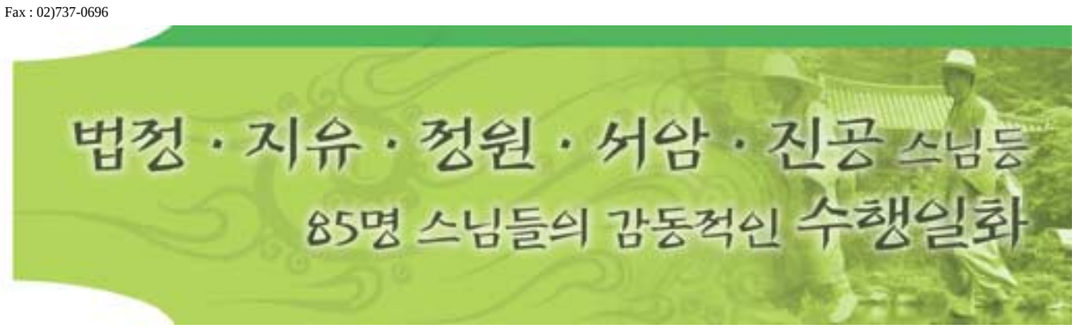
뷰티풀 티베트여행 이태훈 | 다른세상 | 1만6천원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척박한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일구고 사는 티베트 문화 여행서다. 티베트와 라다크, 네팔 등지에 살고 있는 티베탄의 삶과 터전이 250여 컷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그들의 의식주, 종교, 문화, 역사, 자연, 유적 등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만년설로 덮여 있는 히말라야 산군들을 바라보며 걷는 산행의 즐거움뿐 아니라 저자가 추천하는 여행 코스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여행 가이드 북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스님 요즈음 뭘 하십니까

수행자로 사는 보람과 기쁨, 스승과 도반들과의 따뜻한 인연 등이
정운 스님 특유의 맑고 정감 어린 문체에 실려 잔잔하게 표출된
이책을 읽노라면 문득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싶어진다.

"종교는 내속에 잠재돼 있는 에너지의 방향전환이다. 또 비우는 연습이다.
현실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한다면 이보다 더 멋진 생활이 있을까 싶다."

— <스님 요즈음 뭘 하십니까> 중에서



스님이야기

최근 발간된 '스님이야기'(여시아문)는 지묵 · 효림 · 현진 스님 등이 수행길에서 만난 스님 85명의 일화를 소개했다. 엄숙함의 베일을 걷고 보아도 수행자로서 고결한 자세와 인간미가 도드라진다. - 조선일보

경남 합천 해인사 주지이면서도 절 주변을 돌며 관광객이 버린 담배꽁초와 휴지를 주웠던 지월 스님, 코피 나도록 얻어맞아도 상대방에게 주먹질을 하지 않았던 무술 고수 대오 스님 등 다양한 수행승 이야기가 진솔하게 펼쳐진다. - 동아일보

15명의 스님이 필자로 나서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 전형적인 학자풍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20여년 가까이 장좌불와(長坐不臥), 오후불식(午後不食)을 해오고 있는 지유 스님 등 그동안 곁에서 지켜본 큰스님들의 수행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출판사 · 종단 · 불자 힘모아 출판 살리자”

‘불교출판 현황과 전망’ 토론회 주요내용

장기적인 불황으로 날로 악화되어 가는 불교출판의 현실을 짚어보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불교출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7월 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불교 출판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에는 최근의 출판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하듯 50여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시열 대표(도서출판 운주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불교출판인들은 현재 출판시장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불서읽기 운동 전개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양서 발간 ▶교구본사의 도서관 설치와 사찰 북 카페 신설 ▶도서거래형태 개선 ▶디지털 시대의 대응책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세 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불교출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토론 내용을 소개한다.



7월 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불교 출판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에는 50여명의 출판 관계자가 참석해 불교 출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출판 불황, 원인은

사실 불교출판 위기론은 지난 십여 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다. 그렇다면 이처럼 불교출판 시장이 심각한 불황을 겪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불교출판인들은 불교계의 ‘책 안 읽는 풍토’를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든다.

민족사 윤창화 대표는 “참선이나 마음공부만을 우선시 하는 분위기 속에서 불자들이 책을 도외시하는 풍토를 답습하고 있다”며 “심지어 출 · 재가를 막론하고 책을 읽으면 알음알이가 생겨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늘날 책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축소된 것도 출판 불황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불교시대사 고광영 편집부장은 “문화산업의 토대이자 지적산업의 가치척도였던 책은 이제 하나의 공산품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정보 습득의 매개체였던 책이 이제 영화와 인터넷 등 영상 디지털 매체에 그 역할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토론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각 분야별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출판사 ‘책 안 읽는 풍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출판사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당연하게도 정답은 출판사나 필자들이 불자들에게 ‘읽을만한 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많은 불자들이 ‘불서’라고 하면 어렵다는 인식을 먼저 갖게 되고, 실제로 일부 출판사들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책을 펴내기보다 번역물 출간에만 주력하고 있다.

‘출판기획’이란 주제로 발표한 김형균 동쪽나라 대표는 “불교계 출판사들도 일반 출판사 경영 흐름에 발맞추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편집과 디자인, 유통 등의 분야에서는 전문 외주시스템을 도입하고 출판사들은 다양한 기획 시리즈물 출간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자들의 요구를 찾아내고 그에 맞는 기획출판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편집자가 본 불교출판의 현실과 전망’을 발표한 고광영 편집부장은 “불교계에는 아직 기획출판과 대중적 글쓰기에 능숙한 인재양성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판매 아무리 좋은 책이 출간된다 하더라도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판매 역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불교서적 총판의 현실과 전망’을 발표한 운주사 임희근 대표는 최근의 불서 판매 현황을 소개하며 문제점을 짚었다.

임 대표는 “불서 판매의 70%를 차지하는 불교서점의 경우 사찰의 매장이 그 중 45%를 차지한다”며 “이 같은 수치를 볼 때 사찰이 문서포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사찰에서는 불교용품과 불서를 함께 진열 판매하기보다 전문 서점을 개설하거나 ‘북 카페’ 같은 공간을 마련해 관광객들이 차를 마시며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 대표는 불교 서적이 도외시 되는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일반 서점의 양분화 된 판매순위 집계를 지적했다.

“일반 출판사에 발간된 불교 관련 서적은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일반책(비소설 분야 등)으로 집계됩니다. 당연히 불교서적은 전체 판매비율에서 줄어들고, 이는 곧 도서 전시공간과 판매대의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조동규 부장은 “대형서점과 온라인 서점이 경쟁적인 할인판매나 끼워 팔기, 경품행사를 벌여 출판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도서정가제가 실시된 후 출판사와 대형 서점, 할인마트 등이 변칙적인 영업행태로 군소 서점 몰락시키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출판사에서 정상유통이 어려운 책을 할인판매하는 행사를 여는 등 불서를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 각 서점들이 정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도서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 불서읽기 운동 전개
> 눈높이 양서 발간
> 교구본사에 도서관 설치

> 관광사찰에 북카페를
> 도서공급 창구 일원화
> 전국 서점 정보 공유해야

영업 출판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자들도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영업자가 본 불교출판의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한 도서출판 불광 허성국 영업부장은 “불서의 판매부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출판사들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종단 차원의 독서캠페인 전개와 종단 및 본사의 도서관 건립, 도서전시회 등의 이벤트 실시 등 문서포교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출판사 스스로 도서공급율과 할인율을 지키고 일반 서점에 대한 불서공급을 일원화하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불교시대사 이규만 영업부장도 도서공급 일원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부장은 “오늘날 대형 서점에 밀려 군소 서점들은 문을 닫거나 잘 팔리는 책만 진열하고 있어 불서는 독자들에게 ‘보여지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불교출판사들이 공동으로 대형 서점과 거래하는 등 공급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사 성재영 영업부장은 “기존의 대표자 중심의 ‘불교출판협의회’를 불교출판에 종사하는 편집자, 영업자, 서점 등의 포괄적 모임체인 ‘불교출판인모임’으로 발전시켜 공동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종단 ‘불교출판의 미래와 전망’을 발표한 민족사 윤창화 대표는 “오늘날 불교출판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불교출판인들은 보다 좋은 출판물을 기획해야 하고 필자들은 가능한 우리말로 쉽고 간명하게 책을 써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이 바탕이 되어 범종단 차원의 독서운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각 종단의 총무원이나 본산, 또는 규모 있는 사찰에서는 반드시 도서관을 설치해 불자들이 쉽게 불서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님들은 법회 때 마다 양질의 책을 선정해 책 읽기는 권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불자 필독서’ 50~100여권 선정, 체계적인 신도교육 실시와 불서의 적극적으로 활용 등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을 실천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윤 대표는 9월부터 독서운동인 ‘초심자를 위한 불서 읽기 모임’을 펼칠 예정이다. 이는 1주일에 한 번 씩 모여 부처님의 생애를 비롯한 불교교리, 입문서, 개설서 등 기초적인 불서를 읽는 모임으로, ‘불서 읽기 운동’의 불씨를 지피는 도화선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정리=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인도성지순례>**(우학 스님 글/사진, 좋은인연, 2만7천원)=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이 글과 사진으로 엮은 인도성지순례기.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동산을 시작으로 열반의 땅 쿠시나가라까지 8대 성지를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의 모습과 감상이 담겨 있다. “여행은 곧 인생”이라는 스님은 “부처님의 땅 인도성지순례는 여행 가운데 최고의 여행이었다”고 회상한다.

■ **<부처님 찾아가는 예절>**(영산 스님 지음, 중명출판사, 1만원)=절은 왜, 어떻게 하는 것일까? 법회에 참석하거나 공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불교초심자나 ‘베테랑’ 불자도 가끔 잊기 쉬운 것이 사찰 예절이다. 이 책은 법회 때와 사찰에서 생활할 때, 조문을 갔을 때 등의 상황에서 지켜야 할 불자로서의 예절을 소개하고 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부처님을 찾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해 준다.

■ **<禪 이야기>**(임원용 엮음, 여래, 8천원)=“화두는 들어 일으키는 곳에서 알아맞히려 하지도 말고, 생각으로 헤아리지도 말며, 또한 깨닫기를 기다리지도 말라.”(<선가귀감> 중) <임제록> <나옹록> <수심결> 등 선사들의 선어록과 경전에서 100여 개의 화두를 가려 담았다. 책 뒤편의 ‘선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선의 의미와 역사, 다양한 선수행법을 소개하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덤하우스중앙
2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터
3	동양사상 CD	탄허 스님	교림
4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른아침
5	스님이야기	지묵 스님 외	여시아문
6	참회 · 참회기도법	김현준	효림
7	백일법문	성철 스님	장경각
8	불교가 정말 좋아지는 불교우화	이용범	수희재
9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10	불교가 좋다	가와이 하야오 외	동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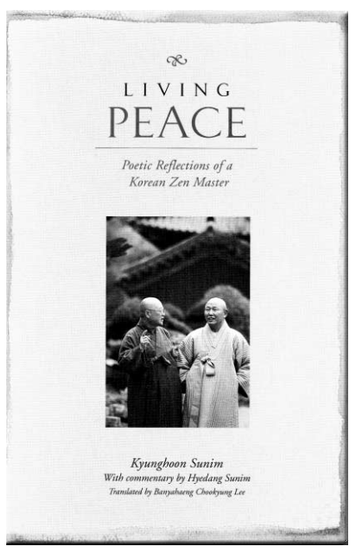
도서 안내 : (02)737-0695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강 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제현 선사님이 역작한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 30권 중 제 5권 출간! 1,454칙의 본 공안, 매 칙마다 취모검을 휘둘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른법

30년 한결 같은 도반, 월간 불광


창조적인 생활인을 위한 교양지 월간 「불광」은 30년간 불자님 곁을 지켜온 가장 오래되고 자부심 높은 불교잡지입니다.
http://www.bulkwang.org
구독신청 문의 420-3200

한국 선사의 시집
경훈스님 영문 선시집
LIVING PEACE
살아 있는 평화
세계최대인터넷서점 아마존닷컴 (amazon.com)에서 최고점인 별 5개를 받아 화제



저자 경훈스님(약사사 조실)
저자 경훈스님은 “몇해 전 맑은 마음으로 살고 싶은 생각에서 수시로 떠오른 선상(禪想)을 시집으로 정리했는데 이번에 영문으로 번역하게 됐다”며 이 책을 통해 영어문화권에서 불교와 동양사상,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IRIS 출판사 초청으로 10일간 오리건 주를 방문하고 귀국한 경훈스님은 “출판 후 며칠만에 서구 독자들에게 좋은 평을 받아 의외다”며 “물질문명에 짓눌린 서구인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은 감로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글 선시집
아시게나, 우리가 선 이땅이 낙원이라네
역사 비평사 간
2001년12월 2권으로 출간된 책에서 선별하여 영역함.

경훈 스님의 선시를 풀이한 혜당 스님(담양 금타선원)이 미국 대학에서 종교학 교수를 역임할 때 인연맺은 출판사 대표 모리슨 박사의 원력으로 출판됐다.

국제포교사 이추경
경훈 스님의 선시를 영문으로 번역
(87년 미국 오하이오주 마이아미대학 환경과학 석사, 91년 “2분간의 환경운동” 번역서 출판)
선시집 구입문의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약사사 061-453-2422 • 전남 담양군 수북면 오정리 금타선원 061-382-7819



조계종 문화부장 성정 스님(사진 오른쪽)과 문화국장 심원 스님이 12~13세기에 제작된 자야 바르만 7세의 두상을 보고 웅장함과 정교함에 감탄하고 있다.

불가사의한 천년의 숨결

캄보디아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 100점 진품 전시
2실 비슈누 입상, 4실 자야바르만 두상 눈여겨 볼만
유리관 제거 실감, 방학 맞이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장마의 기운이 채 가시지 않아 후덥지근하고 무더운 요즘, 시원한(?)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 문화 기행을 떠나보자. 캄보디아는 더운 나라이고 그곳에 가려면 비용도 만만찮은데 무슨 소린가 의아해 할지 모른다. 하지만 걱정은 금물. 값비싼 유물덕에 냉방 장치가 잘 된 서울 신문로 역사박물관에 가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앙코르 와트 보물의 진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앙코르 와트 보물전 전시위원회'(위원장 정양모)와 서울 역사박물관(관장 김우림)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크메르 문화, 그 천년의 신비를 찾아서'란 부제로 6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열린다.

전시기간이 비교적 긴 편이지만 오픈한지 10일만에 입장객 수가 벌써 1만명을 돌파했다. 앙코르 와트 보물전 전시 사무국의 이철주 프로듀서는 "쉽게 감상하기 힘든 진품을 옮겨와 장엄하고도 매혹적인 천년의 숨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이 소장한 대표적 유물 100점(감정가 280억원)과 배병우 작가의 앙코르 와트 관련 사진 20점을 감상할 수 있다. 대표 전시품으로는 12~13세기에 제작된 자야바르만 7세의 두상을 비롯해, 팔이 넷 달린 비슈누 입상, 우마와 시바신 조각상 등이 있는데 총 6개의 전시실에 안치돼 있다.

특히 제 2 전시실에 있는 앙코르 와트의 주신인 비슈누 입상과 시바상은 놓치지 말자. 9세기경 작품인 이 입상은 팔 네 개에 각각 지구 · 원반 · 소라 · 곤봉을 들고 있는 신상(神像)이며, 10세기경에 제작된 우마와 시바상은 왕관을 쓴 시바신이 그의 배우자인 우마의 허리를 감싸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제 3전시실의 사다시바 상은 12세기 무렵에 등장한 청동제 조각으로 시바신을 묘사하고 있다. 이 조각상에서 시바신은 얼굴이 아래 각 네 면에 하나씩 배열돼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얼굴 하나가 얹혀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들 다섯 얼굴은 각각 땅 · 물 · 불 · 공기 · 기의 다섯 원소를 의미한다고 한다.

제 4 전시실에 자야바르만 7세 두상도 눈여겨 볼만한 작품. 프레아 칸의 콤퐁 톰이란 곳에서 출토된 사암(砂岩)제 조각인 이 두상은 정복 군주이자 불교에 심취한 앙코르시대 제왕이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눈을 감은 채 명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걸작이다.

앙코르 와트는 앙코르 왕조 전성기를 이룩한 제왕 수리아바르만 2세가 기술자 3만명을 동원해 30년만에 쌓은 거대한 힌두교 사원으로 855년 프랑스 탐험가이자 생물학자인 앙리 무어에 의해 재발견되어 널리 알려졌다.

이번 전시를 둘러본 조계종 문화부장 성정 스님은 "몇년전에 실제로 앙코르 와트에 가본 적이 있어 크메르 문화의 웅장함에 혀를 내둘렀었다"며 "진품들을 다시 보니 앙코르 와트에 다시 서 있는 듯한 감회를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우림 관장도 "워낙 고가의 진품들이라 처음에는 보호 유리관을 씌워 전시하려 했지만 감상하는 재미가 떨어질 것 같아 대다수 오픈 했다"며 "이번 전시는 97년 캄보디아와 수교한 이래 처음으로 양국의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람시간은 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 토 ·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0시~오후 7시다. 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하루 세차례 운영한다. 관람료는 성인 1만원, 청소년 8천원, 어린이는 6천원이다. 월요일은 휴관.

서울 전시가 끝나면 내년 3월까지 지방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한국 전시 이후에는 일본 8개 도시와 독일 6개 도시 순회전을 하게 된다. (02)724-0114

글=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앙코르 와트 기획전

서울 역사박물관
9월 12일 까지

전시회 엿보기

역사박물관 입구에 핀 우담바라!

김우림 관장은 "앙코르 와트 유물전을 시작한 이후 역사박물관 입구와 왼쪽 건물 끝 부분에 우담바라가 피었다"며 "아마도 캄보디아인들의 불심이 건너와 우담바라로 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박물관 측은 우담바라가 핀 장소에 유리덮개를 씌워 놓았다.

제 5전시실 기도 공간으로 사용 가능

제 5 전시실 작품의 대부분은 후앙코르 시대의 목조 불상들로 가득차 있다. 이 불상군의 맞은 편에는 예쁘게 수를 놓은 삼풋을 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 드리는 전형적인 크메르 인의 모습을 조각한 '예배자'(아래 사진)란 제목의 목조각이 있다. 이는 캄보디아 박물관측에서 불심이 강한 캄보디아인들과 한국 불자들이 함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전시관 내에 꾸며 보겠다는 의도로 기획해 놓았다. 단체나 개인이 와서 기도해도 무방하다고 한다.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 드리는 크메르인을 목조각한 '예배자'.

'비슈누 상'의 아픈 발은 한국서 응급처치

제 2 전시실의 대표적인 볼거리인 비슈누 상을 유심히 들여다 보자. 왼쪽 발목 부분이 잘라져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운반 과정에서 손상된 것인데 재빨리 역사박물관 보존처리 팀의 우수한 기술로 응급처치를 해 캄보디아 국립박물관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 유물의 응급처치는 떼어진 것을 다시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기술진이 복원할 수 있도록 떼어진 자리를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것이다.

특급 수송 작전

유물의 대부분이 모래로 만들어진 것들이라 습도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위해 한국산 오동나무로 특수 제작된 박스를 1백여개 이상 만들어 캄보디아로 미리 보내 유물을 수송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유물은 설명을 들어야 그 의미를 비로소 알 수 있다. 박물관 내에는 앙코르 와트 유물에 대해 전문 교육을 받은 13명의 가이드가 있다. 하지만 안내를 받으려면 시간 제한이 있다. 오전은 11시부터, 오후에는 1시부터 각각 1시간씩이다. 15인 이상 단체는 미리 예약하면 된다.

기술고문 '속안'에 듣는 귀한 정보

전시장 내에서 운이 좋으면 캄보디아 박물관에서 특사로 파견된 기술고문인 속안(58 · 사진)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유물에 대한 보존과 관리 때문에 상주하고 있으며, 관람객의 수를 매일 캄보디아 박물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영어를 할줄 안다면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그만이 간직한 귀한(?) 유물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마하몰 단체 행사용품 특별기획전

티셔츠 기본 색상
카키, 베이지, 소라, 오렌지, 연옥, 검정, 홍색, 코발트, 곤색, 멜란지, 자주, 백색, 분홍, 노랑
상담 및 주문전화
02) 732-1520


▮ 20수 아동 라운드티
백색 4,000원, 유색 4,500원


▮ 30수 아동 라운드티
백색 3,200원, 유색 3,800원


▮ 20수 이중 라운드티
5,200원(아동) 5,500원(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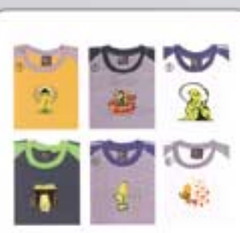

▮ 20수 아동 폴로티
6,500원


▮ 20수 라운드 티셔츠
백색 4,500원, 유색 5,000원


▮ 30수 라운드 티셔츠
백색 3,500원, 유색 4,000원


▮ 배색라운드 티셔츠
6,000원


▮ 20수 2선 나그랑 라운드티
6,500원


▮ 20수 나그랑 라운드티
6,000원


▮ 면 반바지
백색 5,000원, 유색 5,500
▮ 면 반바지(아동용)
백색 4,500원, 유색 5,000

추천상품


▮ 법구경카렌다
1,500원


▮ 연꽃저금통
2,500원


▮ 동자저금통
4,000원


▮ 풍경 차걸이
4,000원


▮ 캐릭터 열쇠고리
개당 2,000원

* 마하몰 T-셔츠 캐릭터 *
* 순면 20수 코마사 100%
- 두툼하고 고급스러운 원단
* 순면 30수 코마사 100%
- 대중적인 티셔츠로 부드러운 질감
* 사이즈 : 아동용 14호~19호, 성인용 90~110
* 단체명 · 사찰명 원하는 이미지 인쇄가능
* 나염비(1도당) 15,000원 추가
(인쇄색상 추가시 인쇄비용 별도)
* 최소주문수량 50장
* 기타 색상 및 로고제작은 전화상담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예금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28>



편안하게 보냅시다

현대의학의 비약적인 의료기술과 기계의 발달로 과거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질병들이 치유되고 사람의 수명도 연장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는 복잡한 의료 윤리문제가 잠재해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 안락사를 예로 들 수 있다. 몇 십 년 전만도 해도 안락사와 같은 문제는 심각하게 제기되지도 않았다. 의료보조장치가 없었던 시기엔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산소호흡기 등 의료보조기구로 호흡을 유지시켜 살고 있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가족의 입장에선 환자를 계속 붙잡아 두고 싶지만 가족들에게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너무 많이 안기고 가족 개개인의 생활을 희생시킨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놓여있다.

얼마 전(6월29일) 대법원은 가족의 요구에 따라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두 명의 의사들에게 살인방조죄로 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 보조장치를 제거하는 등 살인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되는 만큼 살인방조법으로 처벌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환자를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의료 기계로 붙잡아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환자를 무작정 붙잡아 두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되지만 과연 그것이 환자를 위하는 것일까? 환자 자신도 기계와 약물에 의존해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더 이상 고통스럽게 만들고 쉽지 않을 것이다. 삶과 죽음은 자연의 이법이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거역하면 그만큼 부자연스럽게 되고 불편하게 된다. 붓다는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편안하게 떠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상윳타 니카야>에 나오는 가르침이다. 마하나마라는 이름의 재가 신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격심한 중병에 걸려 있는 재가신자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먼저 삼보와 계덕(戒德)에 대한 신심을 확립하도록 유도한다.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을 따르는 성인 제자들, 바른 윤리 행위의 공덕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구족하도록 환자에게 말한다. 그리고 나서 환자에게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걱정됩니까?"라고 물어 보라. 만약 환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다음과 같이 응답하라. "당신이 부모를 걱정하든 걱정하지 않든, 당신은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부모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그가 더 이상 부모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당신은 당신의 아내와 자식이 걱정됩니까?"라고 물어 보라. 만약 환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다음과 같이 응답하라. "당신이 당신의 아내와 자식을 걱정하든 걱정하지 않든, 당신은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부모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그가 더 이상 아내와 자식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당신은 당신의 오욕락이 걱정됩니까?"라고 물어 보라. 만약 환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다음과 같이 응답하라. "천상의 욕락이 더 좋으니 인간의 오욕락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천상의 세계를 굳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천상의 세계 조차도 무상하여 윤회의 세계에 속한다고 말하라. 그러므로 천상의 세계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열반에 고정시켜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라."

임종 직전 어떤 생각 하느냐가 내생 결정
부처님 품에서 걱정놓고 떠나도록 돕자

임종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다음 세상에도 불법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일이다. 따라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을 상기시키고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도록 해 내세에 불법을 다시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임종에 즈음해 붓다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일이다. 그 다음엔 떠나는 이로 하여금 부모 등 가족에 대한 걱정을 갖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사실상 죽는 사람이 걱정한들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므로 유가족은 죽는 이가 걱정하지 않도록 안심시킨다. 그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미련을 남기지 않도록 해 더 좋은 천상의 세계를 생각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죽기 직전에 가장 좋은 생각은 열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부처님은 결론짓고 있다. 이번 생애에 마지막으로 갖는 최후의식은 다음 세상에서 최초의 의식이 되므로 임종 직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내세의 출생을 결정지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모든 걱정을 버리고 떠나도록 돕는 것이 임종을 앞둔 사람을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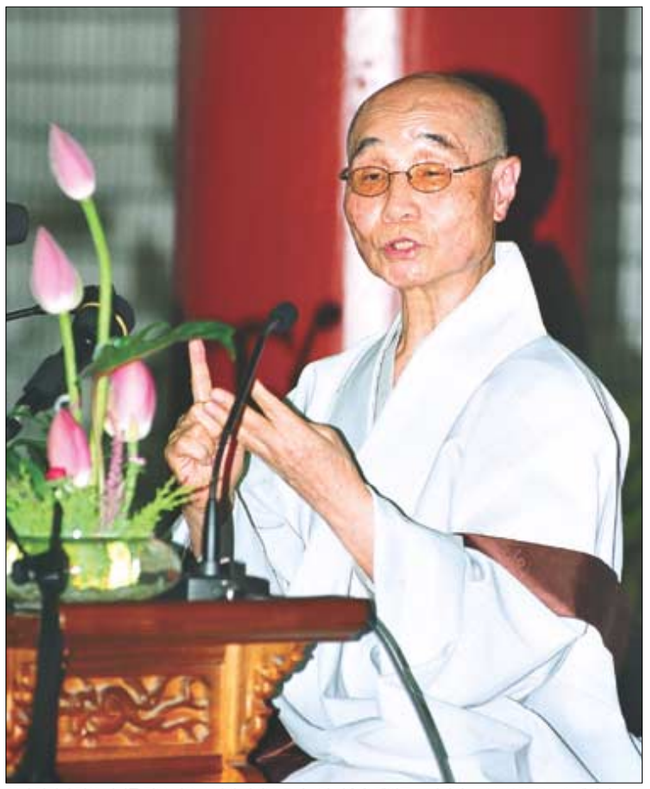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지상 백고좌

지유 스님

(범어사 조실)

"걸림없이 살고



유머 감각과 깊은 선지를 담은 지유 스님의 설법은 불자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심지법문(心地法門)으로 유명하다.

우리는 보통 법문이나 설법이라고 하면 말로 하는 것인 줄만 압니다. 말로 법문을 해야 법문 잘 들었다, 멋지게 들었다고 합니다. 법문은 말이 아닙니다. 물건을 운반하는 기구가 있듯이 말이라는 기구를 통해 뜻을 전달할 뿐입니다. 뜻이 전달됐다면 말이란 필요 없습니다.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 말이 없으면 오늘 아무 법문 안 하시는구나 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워낙 형상, 소리, 모양에 집착하다 보니 뜻은 소리가 아닌데 소리로 착각을 하고 말로 설법을 하지 않으면 법문을 안 한 줄 안다 이 말입니다. 뜻을 알아차렸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이란 말이 있죠? 대중들을 향해 항상 귀로 들을 수 있는 법을 설해 오신 부처님께서 어느 날은 그날따라 아무 말 없이 꽃 한송이만 들어 보이셨어요. 대중들은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 싶어 귀를 기울였으나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대중들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사람, 가섭 존자만이 빙긋이 웃었습니다. 말

고통의 원인은
돈·명예·권력이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난 '감정'

하지 않아도 알아차리고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 것이죠.

결코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둥근 달이 있는데 그 달을 못 보니까 달을 보게 하기 위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법문입니다. 그런데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못합니다. 달을 봤으면 손가락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선지식이 달을 가리키기 위해 어떤 때는 손가락을 사용하고 또 어떤 때는 나무막대기, 혹은 쇠막대기 등을 사용했는데 부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하면서 손가락, 나무막대기, 쇠막대기를 달달 외우면서 나는 부처님 뜻을 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보짓입니다. 쇠막대기를 통해 달을 보라고 했지 누가 쇠막대기를 외우라고 했나요? 경전을 아무리 달달 외우더라도 소용없고 불문에 들어왔으면 부처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범어사는 선찰 대본산입니다. 선(禪)이 뭡니까? 이것은 핵심입니다. 불법승을 깨달은 자리가 선입니다. 선이라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서산 대사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禪是佛心)'이요 '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敎是佛語)'이라고 법문했습니다.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중생의 마음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면 삼독심도 있고 온갖 번뇌망상이 많은데 이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이상하죠?

달마 대사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법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많은 경전도 있었고 사찰과 승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마 대사는 "부처님의 참된 뜻은 사람 사람마다 자기 마음을 부처님이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보도록 가르친 것이 불교다. 그런데 그 마음을 보지 않고 경전이나 불상만 쳐다보고 자기 마음을 닦지 않았다면 부처님의 뜻을 위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저 사람이 불법을 전하러 왔다고 하면서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이라고 중상모략 해서 나중에 독 사발을 받았어요.

말에 집착하지 않는 불립문자(不立文字)의 가르침을 설했던 분이 달마 대사입니다. 경전이나 불상에 집착하는 헛된 착각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중에 차 마실 때 차 마시고 손님 대할 때 손님 대하는 것이 불교라는 말입니다. 일체처, 일체시에 일상생활을 해 나가되 다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생각하다 보면 구름처럼 안개처럼 가리게 되니까 제일 가까운 것이 안보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것을 봤을 때 가장 먼 것과 일치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고통이나 괴로움이 무엇인가 깊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돈, 명예, 권력이 고통의 원인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게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욕을 들으면 욕을 들은 대로 화가 나고 칭찬을 들으면 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자기 감정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고통 받는 게 사람입니다. 감정을 소화시키는 것이 수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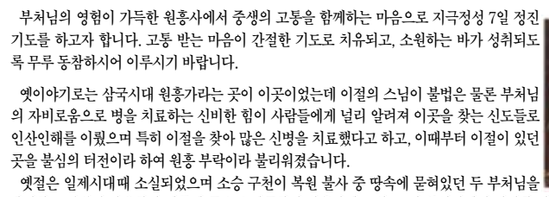
그러면 감정을 소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부처님하고 중생이 똑같지만 중생은 번뇌망상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수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번뇌망상을 녹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하고 결론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피 흘리는 부처님의 영험 도량 가평 원흥사 (세계불교 법왕종)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 7일 정진기도

부처님의 영험이 가득한 원흥사에서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 7일 정진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고통 받는 마음이 간절한 기도로 치유되고, 소원하는 바가 성취되도록 무루 동참하시어 이루시기 바랍니다.

옛이야기로는 삼국시대 원흥가라는 곳이 이곳이었는데 이절의 스님이 불법은 물론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힘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이곳을 찾는 신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특히 이절을 찾아 많은 신병을 치료했다고 하고, 이때부터 이절이 있던 곳을 불심의 터전이라 하여 원흥 부락이라 불리워졌습니다.

옛절은 일제시대때 소실되었으며 소승 구천이 복원 불사 중 땅속에 묻혀있던 두 부처님을 발견하고 정성껏 관욕하여 새롭게 금으로 개금하여 원흥사에 모셨고, 이 부처님께서 기이한 괴흘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정진기도 토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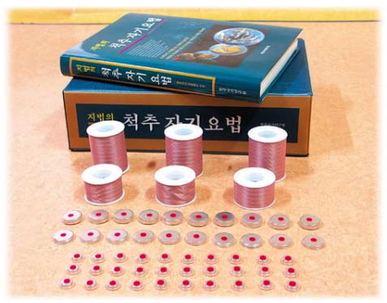
기도안내
7일 정진기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기도)
● 입재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회향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찾아오시는 길 ✪ 서울에서 포천 일동 방향 신팔 사거리에서 현리(37번 국도) 방향 10분. 청평에서 포천 방향 20분.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 2리 494-1 전화 031)585-2090 원 흥 사 주지 구천 합장

다른 치료법과 비교 불허!
최고의 건강체를 만들어가는 지법의 척추 자기요법!!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을 위한 치료법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
◎ 수행하는 스님들이 치료하면 척추가 곧아지고 기혈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 심장이나 폐, 위장, 대장등 오장육부의 질환.
◎ 관절염, 골수염, 오십견, 요통등 관절의 질환.
◎ 여성들의 생리통, 요실금, 냉증등의 부인병 질환
◎ 남성들의 조루, 정력감퇴, 소변이상등의 질환.
◎ 고질적인 천식, 숙취, 변비, 감기등의 질환을 부작용없이 쉽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치료법에 대해서 문의해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란에 들어가서 보시면 치험사례 및 척추자기요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주소 : www.jibub.com E-Mail : jibub@jibub.com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석치료의 진수

척추자기요법을 발명한 지법스님은 1976년에 법주사에 출가한 사문으로써 송광사, 봉도사, 범어사등의 사찰에서 수행하였으며 **20여년전에 중생들을 질병에서 구원해주는 약사여래부처님을 조산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동양의학에 관심을 갖고 체침을 비롯한 민간요법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자기요법을** 오직 치료효과에만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인체의 가장 중요한 척추를 강하게 다스리면서** 오장육부의 질환과 좌골신경통, 요통, 오십견등의 질환을 다스리는데 가장 체계화된 치료법을 발명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치료가 **근골과 근육을 강하게 해주고, 체내의 노폐물을 분해하여 체외로 빠르게 배출시키면서 혈액을 맑게하고 질개하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후에 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면서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술을 베풉다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이번에 척추자기요법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석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석은 크기나 가우스(세기)양이 수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 모든 자석을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인체에 가장 적합한 자석을 사용할 때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생체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자석은 **반영구적으로 자력이 변하지 않는 최고의 품질인 특수한 자석만을 엄선하여 선별하였으므로** 한번 구입하시면 평생동안 반복해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효과 또한 여타의 다른 치료법과 비교를 불허하는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삼폐(폐식,폐변,폐면)의 즐거운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 출원된 제품 | 한세트가격: 150,000원

상담및 구입문의 : 02-987-3110 / 011-9643-8161
국민은행 824002-04-030421(예금주 : 홍현의)

내주신의 건강과 내가족의 건강을 평생동안 지켜주는 건강지킴이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치료법!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연구하는 한국자기원이 되겠습니다.
韓國磁氣院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번지

쓸데없는 생각만 멈춰라”



“생각을 벗어던지고 목전(目前)을 바로 보라.” 7월5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10여년만의 대중설법에 나선 지유 스님의 법문 한 마디 한 마디에 집중하는 부산 지역의 불자들.

법 묻는 이에게 늘 열려있는 선지식

가까이서 뵌 지유 스님

“인연 있으면, 또 공부할 마음 있으면 찾아와서 다 공부한다”며 신문에 법문이 실리는 것조차 마다하시던 지유 스님. 대중 법석에서 좀체로 만나기 어렵지만 찾아와 법을 묻는 이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선지식이다. 원효암과 문경 관음사를 오가며 후학들을 제접하고 있는 지유 스님은 1931년 일본 동경에서 태어나 중학교 과정까지 일본에서 마쳤다. 15세까지 일본에서 생활하다 해방과 함께 귀국한 스님은 18세 되던 194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듬해 50년 상월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봉암사를 비롯한 전국의 제방 선원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하고 문경 봉암사 및 범어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스님에겐 특별한 일화가 많다. 수마를 조복받기 위해 산 하나를 걸어 왕복하고, 라디오 부품을 분해해서 밤새 다시 조립하면서 수마를 조복 받고 장좌불와를 하는 스님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스님의 유머감각은 남다르다. 7월5일 범어사 고승 초청 법회에서도 급한 공지사항이 있어 법회가 중단되자 “법문을 하라고 했더니 하루종일 떠들어도 되는 줄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이제 그만할까요?”라고 말해 대중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스님은 “불문에 들어온 이유야 천차만별 이겠지만 들어온 자리는 한자리이니,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바에야, 고생 고생하면서 절에 다닐 필요가 없다”며 불자들의 실천 수행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몸은 여기 있고 머릿속엔 과거·미래로 가득 차 눈앞의 현실조차 못봐

그 말대로라면 10년 전에 공부를 시작했다면 지금 번뇌망상이 다 녹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뭘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뇌망상이 있기 때문에 번뇌망상을 녹여야 된다는 생각이 잘못입니다. 번뇌망상은 본래 없는 겁니다. ‘저는 많은데요’ 하겠죠? 그것은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번뇌망상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겠습니까?”

선지식이 껄껄 웃으며 “미친 놈아!”하거든요. 그러자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번뇌망상이 많아 그 번뇌망상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데 왜 미친 놈이라고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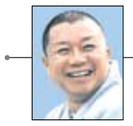
“없는 것을 있다고 하니 그러지. 허공에 페인트칠을 해 봐라. 허공에 아무리 칠한들 칠해지냐?”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듯 실제로 번뇌망상이 없습니다. 그림자 살짝 비친 것일 뿐인데 그림자에 사로잡히니까 문제입니다. 마치 호수에 비친 달을 붙잡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감정에 사로잡히면 현실이 안 보입니다. 현실을 볼 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냐요? 기술이 필요 없죠.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생각만 털어 버리면 됩니다. 단지, 놓치지 말고 현실을 바로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몸은 현실에 있는데 머리 속엔 지나간 과거, 오지 않는 미래로 가득 차 현실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먼 곳이라면 할 수 없지만 제일 가까운 자리를 못 보니 말입니다. 깨친 선지식에게 물어보면 “나는 가장 가까운 곳을 바로 봤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가려서 안보입니다. 생각이 생사(生死)입니다.

화두는 “지금 이 자리를 바로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갖 생각을 하다보니, 목전(目前)의 이것이 안 보입니다. 처음엔 뭔가 나올까 싶어 눈감고 있어 보지만 아무리 찾아도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기진맥진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모든 생각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법당에서 덩~ 종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차 이제 보니 종소리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종소리였는데 몰랐구나 하고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두두물물(頭頭物物)이 다 불법이고 진리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몰랐을 때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 생각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에서 벗어나서 밥할 때는 밥하는 모습, 일 할 때는 일하는 모습, 항상 그때그때 목전과 하나가 돼라 이 말입니다. 수행이라고 특별한 모습, 특별한 장소가 없습니다. 목전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10년을 한다면 10년 후에는 얼굴이 확 달라집니다. 생사해탈 해 버려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선의 뜻이 이렇습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 원철 스님



원철 스님과는 해인사 행자시절부터 함께해온 관계로 인연이 비교적 질긴 편에 속한다.

행자 시절에는 모두가 피교육자 신분이고 엄격한 규율아래 지내다 보니 각자의 개성이나 실력은 드러나지 않고 성격만 드러나게 된다. 행자실에서는 이름을 안 부른다. ‘찌개 보조’에서 ‘찌개장’으로 승진하면 수계전 까지는 그 행자 이름이 ‘찌개장’이다.

지금은 밥짓는 일도 압력밥솥으로 하기 때문에 일이 많이 줄고 수월해 졌지만, 내가 행자로 있을 때만 해도 가마솥에 장작불로 밥을 지었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 생각에 빠져도 밥을 태우게 됐다. 해인사의 공양 짓는 법은 매우 특이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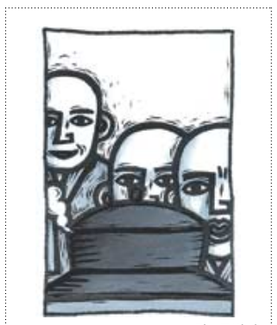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법이라고 해서 ‘후 소임자’는 반드시 전임자의 인계사항을 지켜야 했다.

먼저 아궁이에 장작을 우물 정(井)자로 쌓은 후, 가마솥에는 펄펄 끓인 물을 붓는다. 다음에 대중숫자에 맞춰 잘 씻어놓은 쌀을 가마솥에 붓고 장작에 불을 붙인다. 그러면 채 2분도 되지 않아서 가마솥이 끓기 시작하는데, 이 때부터 공양주는 솥 양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수증기 나오는 쪽에다 코를 대고 냄새를 맡는다. 냄새가 약하면 코를 솥에 바짝 갖다붙이고 손을 코 쪽으로 밥솥의 수증기를 부쳐대면서 고소한 냄새가 양쪽에서 함께 풍겨나올 때 까지 그야말로 요령소리 나도록 분주하게 뛰어 다녀야 한다.

공양주가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공양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소임자인 공양주의 중간 보조와 막내 보조는 분 단위와 초 단위로 큰소리로 공양주의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외쳐야한다.

공양주의 손 신호가 떨어지면 아래 소임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래로 아궁이의 불을 번개처럼 꺼내고 준비해둔 소금을 아궁이에 뿌리면 공양 짓기가 끝난다.

나는 소금이 불과 천적관계라는 것을 이때야 알았다. 밥이 5분 이내에 지어지므로 잠시라도 딴 생각에 빠지면 금방 솥에서는 밥탄 냄새가 풍긴다. 그러면 대중참회를 해야하니 정신을 바짝 차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잠시라도 한 눈을 팔 수도 없고, 소임시간은 물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삼경인 밤 9시까지는 자리에 눕지 못한다.

이런 고된 행자생활을 하겠다고 몸이 호리호리하다 못해 여름에도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 연약한 청년이 해인사 행자실에 입방을 했다. 원철 스님이다. 정신력은 강했든지 대부분 몸으로 때워야하는 행자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수계를 했다.

원철 스님은 일찍이 강원에서도 글솜씨를 인정받아 해인사 강원학인들이 스스로 만든 <수다라> 편집위원과 편집장을 역임했다. <수다라>는 해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편집장은 전국의 여기저기로 화주를 다녀야 할만큼 재정상태가 열악했다. 원철 스님은 이런 수고를 후배편집장에게는 넘겨주고 싶지 않아서 각고의 노력끝에 고갈된 재정을 다음해에도 책 만드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채워놓고 편집장소임을 넘길 만큼

빼어난 글솜씨 지닌 학구파 전통·현대 학문 두루 연구

책임감이 강하다.

원철 스님은 학구파이면서도 놀기 좋아하는 대중들과도 잘 어울리는 특이한 존재다. 우리반은 숫자가 전체학년 중에서도 제일 많았다. 그러다보니 별난 사람도 많았지만 원철 스님같은 학인 때문에 단합이 잘되었다. 지금도 동창회를 1년에 두 번 하는데, 원철 스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대중이 하는 일에는 빠지지 않으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꼬박꼬박 해나가는 원칙과 소신이 있는 스님이다.

강원을 졸업하고는 해인사 율원과 은해사 승가학원, 실상사 화엄학림 그것도 모자라서 동국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참으로 꾸준한 학구파로서의 진면목을 보이고 있다. 전통강원에서는 강백 무비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다. 현대의 학문과 전통학문을 잘 아우른 셈이다. 아마 전생에서도 책 보기를 참 좋아했었나 보다.

조계종 포교원에서도 바쁜 소임인 신도국장 소임을 보면서도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치러내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스님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한다. 나는 인적자원이 풍부한 도반들이 많은 해인강원의 우리 도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좋다. 총무원과 지역 말사에서 열심히 소임을 보고 지역 말사에서 열심히 포교하는 스님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꿰뚫고자 제방 선원에서 좌복의 두께를 짓누르며 정진하는 도반들을 생각하면 그냥 미소가 떠오르고 나 자신이 즐겁다. ■ 해인사 원당암

육 법 등(六法燈)




용암사(서울·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 용 범 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 108염주,12단주, 손목염주 225.000원


▲ 108염주, 12단주 195.000원


▲ 108염주, 손목염주 160.000원


▲ 108염주 135.000원


▲ 12단주, 손목염주 110.000원


▲ 12단주 85.000원
※ 손목염주 38.000원

북한에서 생산되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세계희귀의 금강약석이 주성분인 금강염주는 북한특산품으로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며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사에서 국내독점으로 반입, 조립 시판하며 화제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신 스님 및 불자님께서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를 최고의 선물로 평가하시어 추가 주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60여종의 미네랄 원소와 93%의 높은 원적외선, 음이온등으로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며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밝고 강한 마음으로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금강의 강한 氣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시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며 가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건강(氣)이 약하신 분

금가염주는 사용할 본인이 점안식후 사용하세요.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예금주 정애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금강염주는 60여종의 미네랄 원소와 93%의 높은 원적외선, 음이온등으로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며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밝고 강한 마음으로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금강의 강한 氣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시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며 가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정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전국대리점모집 사찰매장 및 불교용품점, 개인사업자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태안군 오징어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오징어잡이에 앞서 바닷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축제가 있어 즐거운 여름 休

7~8월 이색체험 프로그램 풍성


◀제6회 보령머드 축제.


▲제1회 화악산 찰 토마토 축제.


▲김제 청운사의 하소백련 축제.

"올해 휴가, 가족과 함께 이색축제 현장 속으로 풍덩~!"

7월 중순부터 8월초,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축제들이 휴가객들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보령머드축제, 토마토축제, 쪽배축제, 은어 · 오징어잡이 축제 등 축제명만 들어도 발등이 간질간질하다.

이번 축제의 특징은 단연 이색체험. 각 지역의 지형 · 문화별 특징에 따라 다채롭게 마련된 축제들은 천연염색해보기, 토마토 던지기, 미로찾기 등 참여프로그램과 플라멩코 공연, 퓨전난타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들로 오감을 만족시키고 있다.

또한 영덕 오십천 은어축제의 '도전 수락간 최고상궁' 홍천 찰옥수수축제의 '올챙이 국수 요리경연대회' 태안군 오징어축제 '오징어 요리대회' 등 우리가족의 화합과 음식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경합의 장도 마련된다.

이밖에 추억 프로그램으로 옥수수나 감자를 구워먹거나 어린 시절로 돌아가 추억의 놀이기구를 타보는 체험코스들도 가족 여행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신나고 재미있는 축제일정 (날짜순서)

축제명	축제기간	위 치	주요 프로그램	연락처
야생화축제	5.24~8.31	롯데월드 정문앞	매발톱, 부처꽃 등 100여종 야생화 10만본 전시	(02)411-2000
하소백련축제	6.27~8.15	전북 김제시 청운사	하소백련지 · 백련사진전, 연꽃 염색체험전, 소리꾼 장사익 공연, 플라멩코 공연	(063)544-0919
단양 마늘 축제	7.7~11	단양군 단양읍 수변가로	단양마늘엮기, 단양마늘새끼꼬기 등	(043)420-3378
제7회 보령머드축제	7.16~22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셀프머드바르기, 머드달리기 등	(041)930-3542
제2회 물의나라 쪽배축제	7.16~8.15	강원도 화천 붕어섬	이색창작 쪽배 콘테스트, 토마토축제 등	(033)441-7574~5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7.20~31	제주시해변공연장	음악, 무용, 풍물, 연극 등	(064)750-7225
부산 밀리 나리에 축제	7.22~8.15	부산 벡스코	옥외전시장 및 구조물 산책과 사진촬영, 문화체험의 거리, 이탈리아 문화체험	(051)740-3511
영덕 오십천 은어축제	7.24~25	경북 영덕군 오십천 둔치	은어 반두잡이 행사, 맨손 민물고기 잡이, 뱀장어 릴레이 경기, 도전 수랏간 최고상궁	(054)730-6291~3
제1회 영주 푸른강수욕축제	7.24~8.8	경북 영주시 서천강변	추억의 놀이기구, 천연염색전, 민물고기잡이 등	(054)639-6391
맨손 물고기 잡기대회	7.24~8.8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기지포해수욕장	손으로 물고기잡기, 물고기요리 만들기 등	(041)670-2544
제1회 세계 해병전우인 축제	7.24~28	경북 포항	일일해병체험, 군대음식 체험 등	(054)245-6616
영월 주천 감자꽃축제	7.26~27	영월군 주천면 주천강변	금산동마을 감자구이, 다슬기잡이, 쌍섶다리 건너기 체험 등	(033)372-0121
한여름예래 논짓물 해변축제	7.30~8.1	서귀포시 예래동 논짓물해변	맨손으로 넙치잡기, 선상낚시체험 등	(064)738-1542
제8회 홍천 찰옥수수축제	7.30~8.1	홍천군 도천면 가리산 청소년수련원	옥수수요리 시식회, 올챙이국수 등 요리경연대회, 미로찾기, 맨손 송어잡기	(033)430-2371~2
왕버지락잡기 박속낙지축제	7.30~8.5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꾸지나무골해수욕장	왕바리락잡기 대회 및 낙지잡기 등	(041)670-2544
제2회 화악산 찰 토마토축제	7.31~8.1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문화마을	토마토영화제, 농가팜스테이, 토마토 수확 체험, 1004인의 식탁, 토마토 높이 쌓기, 토마토 축구 등	(033)440-2378
제2회 합창은어 잡이축제	7.31~8.1	경북 상주시 함창읍 돗질냇가	은어잡기, 은어 및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054)541-3304
갯장어 음식 축제	7.31~8.2	전남 장흥	바지락 잡기 체험, 어린이 수산물 보물찾기	(061)863-8006
강진청자문화제	7.31~8.6	강진군 고려청자도요지	화목가마 불지피기, 청자빛기체험장, 청자흙만들기 체험, 퓨전난타 공연	(061)430-3223
제2회 태안군 오징어축제	7.31~8.7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신진항	오징어잡기 대회, 오징어 요리대회 등	(041)670-2544
제9회 부산바다축제	8.1~4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멀티미디어쇼, 중국 일본 등 비치 퍼레이드페스티벌, 저글링 등	(051)888-3391~9
제2회 태안 연꽃축제	8.1~15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1리 청산수목원, 몽산포해수욕장	연꽃전시, 어린이 사생대회 등	cheongsan.org

전시



삼국시대 소조상인 익산 제석사지 소조상(위)과 불주사 목조아미타불 좌상.

백제불교문화 원류를 찾아서

익산미륵사지관 · 국립전주박물관 13개 절터 유물 · 군산지역 문화재展

화려한 백제 불교문화의 원형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획전이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동시에 열린다.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전북의 옛 절터 출토유물'특별전을 오는 8월 15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전시유물들은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전북지역 13개 절터에서 출토된 불교문화재 350여점으로, 대부분 일반인에게 처음 공개되는 유물들이다.

눈길을 끄는 유물로는 1969년 만복사지 5층 석탑 수리과정에서 발견된 사리와 고구려계 양식 수막새, 익산 제석사지에서 출토된 소조천부상, 악귀상, 남원 백장암에서 나온 팔부신장상, 임실 용암리사지 청동바라 등이 있다.

특히 익산 제석사지 소조상은 삼국시대 소조상으로는 처음 출토된 것으로 백제시대 소조상 연구와 백제불교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063)840-3772

미륵사지 특별전에 앞서 국립전주박물관도 '전라북도 역사문물전-군산'전을 8월 8일까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군산 문물전에는 불교유물코너를 별도로 두어 군산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불주사 금동여래입상(8세기 · 광주박물관 소장)을 비롯해 불주사 목조아미타불 좌상(도유형문화재 194호), 성흥사 석가탱, 상주사 불패대 등 군산지역 불교문화재를 전시한다. (063))223-5651

이준엽 기자

자연 담은 영롱한 푸른 빛


'분청사기박지연어문편병'(위)과 '분청사기상감모란당초문호'

호림박물관 '분청사기'전 10월까지

하늘의 자유로움과 땅 위 생명, 물의 유유함을 담은 분청사기.

(재)성보문화재단 호림박물관이 소장품 특별전 '분청사기, 자연으로의 회향 · 하늘 · 땅 · 물'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호림박물관에서 진행한다.

분청사기는 '분을 바른 듯하고 푸른빛이 도는 사기'라는 의미로, 한국도자사에서 14세기 중후반 이후 임진왜란 무렵까지 유행했던 도자기법.

이번 특별전에는 국보 제179호 '분청사기박지연어문편병'과 보물 제1068호 '분청사기상감모란당초문호' 보물 제1062호 '분청사기철화당초문장군' 등 250여점의 분청사기가 선보인다. 특히 전시실 한편에는 분청사기 전개과정이 소개돼 이해를 돕는다. (02)858-2500


옛사람들이 옮긴 하늘지도


국립민속박물관 8월 23일까지 천문유물 100점 전시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 의미를 유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2004년 7월 14일부터 8월 23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관장 김홍남)에서 열린다. '천문-하늘의 이치, 땅의 이상'이라는 주제의 이번 전시회에서는 보물 제1373호 금동천문도, 제1318호 신구법천문도 등 100여 점의 국내 천문관련 유물이 출품된다.

이 유물들은 담고 있는 의미에 따라 △제1부 '천명' △제2부 '하늘을 기록하다' △제3부 '하늘을 궁리하다' △제4부 '하늘에 담은 꿈'으로 나눠 전시된다.

특히 제4부에 전시된 금동천문도는 지름 40cm의 금동판으로 앞면(사진 왼쪽)에는 109개의 구멍을 뚫어 별자리(481개의 별)를 표시하고 뒷면(사진)에는 수미산과 삼십삼천(三十三天)의 불교적 세계를 점각(點刻)으로 새겨놓은 것으로 화엄사상을 담은,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된다. (02)3704-3155

박익순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천연아로마향 '모닝스타'



질병 예방 · 치료와 스트레스 해소, 통증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로마향. '모닝스타'는 400년 역사의 일본향당의 스테디셀러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천연아로마향이다. 제품은 백담, 참솔, 사향, 자스민, 장미 등 12가지 향과 향꽃이로 구성. 원산지:일본, 수량:50개입. 가격 6천 5백원. (02)732-1520

게시판

공부합시다

발심수행장 강의 광주불교교육원이 방학을 맞아 7월 2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목우 스님(마하연 주지)의 특별강좌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을 진행한다. (062)228-9098

자광사 영어법회 대전 자광사 국제선원이 매달 일요일 오전 10시 외국인 스님이 진행하는 영어법회를 연다. 서울 · 경기지역 참가자들을 위해 법회 전날 서울과 수원 등에서 차량을 별도로 운행함. (042)822-9220

화계사 어린이 영어강습 서울 화계사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1시간여동안 어린이 영어강습을 진행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강습은 영어로 듣는 부처님 생애, 따라해보는 영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꾸며진다. (02)900-4326

함께 해요

용장사 개원법회 능인선원 수원지원 용장사가 7월 15일 오전 11시 개원법회 및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한다. (031)221-2029

회엄사 철야기도 구례 화엄사가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 화엄사 각황전에서 철야기도를 진행한다. (061)782-7600

여름방학시네마(사진) 서울 불광사가 여름방학을 맞아 경내에서 '여름방학시네마' 행사를 갖는다. 총 6편의 영화를 선보일 이번 행사의 첫 번째 상영작은 '니모를 찾아서'로 18일 오후 1시에 상영된다. (02)413-6060



농업인 무료한방진료 농협경기지역본부가 오는 10월까지 도내 20개지역 2천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료한방진료를 실시한다. 진료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지 직접 방문, 침과 물리치료, 당뇨, 심전도 검사 등의 진료활동으로 진행된다.(031)220-8716

만해마을 토요아카데미 백담사 만해마을이 7월 17일 <저문 강에 삽을 씻고>의 저자 정희성 시인을 초청, '시를 찾아서 삶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033)462-2304

흥미로운 마술교실 구로청소년수련관이 '여름단기 특강'을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한다. 유아 및 초등학생들로 진행될 특강은 마술, 애니메이션,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2)838-1318

예쁜 엄마 프로젝트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주부들을 위한 '예쁜 엄마 프로젝트'를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한다. 프로젝트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교양 프로그램과 미용, 건강 등의 내용으로 꾸며진다. 참가비 6만원. (02)831-2755

고혈압 건강교실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이 고혈압에 관심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고혈압 건강교실'을 7월 23일 관내 작품실에서 연다. 건강교실은 고혈압에 대한 상식은 물론 여름철 건강관리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02)804-4058

청소년 한옥교실 한옥문화원(urihanok@hanmail.net)이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옥교실'을 연다. 행사는 건축사, 교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옥의 구조와 아름다움 등을 보고 배우는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비 5만원.

어린이 날씨 체험캠프 기상청(www.kma.go.kr)이 날씨에 관심 있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8월 9일~13일까지 '어린이 날씨 체험캠프'를 연다. 캠프는 돋보기로 보는 날씨관측, 일기도 그리기, 내일의 날씨 예측하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19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즐겁게 떠나요

배낭 메고 세계문화유산 여행(사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북 고인돌 고분군으로 '배낭 메고 세계문화유산을 찾아서'를 진행한다. 고인돌 탐사를 비롯 선사시대 체험을 할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은 23일까지 선착순 접수. (051)864-4569



잃어버린 가야를 찾아서 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이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합천 해인사, 고령, 김해 등지로 '잃어버린 왕국 가야를 찾아서' 답사여행을 떠난다. 답사는 가야 왕국의 6백년 역사흔적을 찾아보며, 김수로왕릉과 허황후릉 등을 견학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성인 10만 5천원, 어린이 9만 5천원. (02)725-1284

20면 상식 퍼즐 정답

사	비	성		불		
캬		문	전	성	시	
디			보		계	
타	박				추	격
	치		등			몽
	기	호	지	세		요
		법		수	심	결

신행수기

내 인생의 참스승 〈중〉

우선주 (43·서울 봉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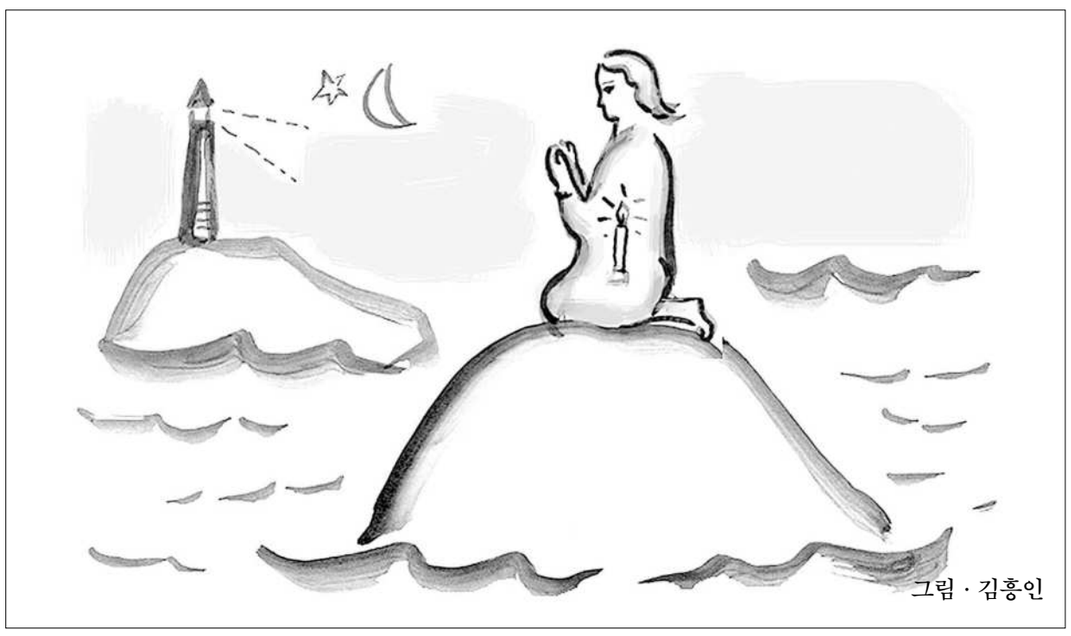


그림 · 김홍인

"부처는 믿는게 아니야 마음을 알아 가는 것이지"
불교입문반에서 공부·참선 열심…병 조금씩 나아

시누이인 스님의 스승이신 보선 스님께서는 "부처는 믿는 게 아니야.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게지." 하셨다.

"그것이 참선입니까?" 하니 그저 빙긋이 웃으시는 것이 참으로 편해 보였다. 스님의 영향탓일까 갑자기 내 마음도 편해지면서 희망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기쁨과도 같은 것이 나를 설레이게 했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입원은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 참선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도 쾌히 승낙을 해주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관악산에는 오래된 사찰인 연주암이 있어 그 주변에 많은 선원들이 있었지만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고 조계사로 갔다. 한 달 후에 개강할 불교기본반과 참선입문반을 동시에 수강신청 했다. 한 달 동안 난 집에서 열심히 먹고 치료받고 운동하며 옛날의 모습을 찾으려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는 한 달 후 조계사로 가는 내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벼웠음을 지금도 생생하게 느낀다. 다섯 분의 스님이 나란히 서서 소개를 하는데 유난히 돋보이는 맑은 느낌의 스님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신청한 불교입문반의 담임스님이 아니라서 약간의 실망감도 있었다.

참선입문반 첫날의 생소하고 낯선 분위기와 기대감은 나를 긴장시켰고 이어 조용히 들어오신 스님은 모든 의식을 마치고 법상에 돌아 앉으셨고 여전히 고요하고 맑아 보이는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아, 그 스님이시다"를 되뇌었다.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 지는 것 같았다. 난 그때 그 첫 시간을 잊을 수가 없다.

"빛이 있어 모든 만물을 비춥니다. 빛이 꽃을 비출 땐 꽃이 드러나고, 똥을 비출 땐 똥이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똥을 비췄던 빛이 꽃을 비춘다고 해서 그 빛에서 똥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꽃향기만 가득할 뿐입니다. 똥을 비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은 그저 비출 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비추어진 물질이라 생각하고 이 빛을 신이라 생각하여 자신의 종교에 따라 부처로, 하나님으로, 알라로 믿고 의지하지만 이 빛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단지 관세음으로, 예수로 나투어져 이름을 불여 작용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이름하여' 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조사들도 '네가 부처임을 알지 못하느냐' 고 한 것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인가? 하나님, 예수님이 빛인 줄로만 알았던 내게 내가 빛이라니….

"여러분이 빛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사람인데 엄마도, 아내도, 딸도 되고, 도반도 되고 이렇게 여러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비추는 빛의 형상이 나타나는 대로 그저 작용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한 형상에 머물 수 없음은 수없이 내 앞에 순간순간 나타나는 형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오는 대로 작용하여 놓고 비우기에 이를 공하다 하고 그 빛의 참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공이라 이름 하기도 합니다."

스님은 빛으로, 때론 거울로, 구슬로, 호수로, 공기로, 물로 비유하시며 우리들을 두드리셨고 공함의 이치와 모든 것을 그 주인공에게 놓고 지켜봄을 설법하셨다. 어린 아이가 엄마를 무조건 믿고 의지하듯이 그는 하나님이고, 부처고, 알라이고 우리가 지금껏 의지하고 믿고 매달려왔던 신이고 절대자라 하셨다.

"그런 절대자가 참나인데 왜 밖에다 대고 빌고 구걸합니까? 그것은 거지나 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렇게 한 주일마다 주시는 법문과 주인공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우울증으로부터도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다.

단 한 번의 약물 복용도 없이 그렇게 3년 반을 보냈다. 처음 그렇게도 믿어지지 않던 나의 뿌리인 주인공자리를 여러 번의 체험을 통해 이제 나는 확연히 믿는다.

참으로 간절히 사무치게 그를 찾았고 나름대로 나(我相)를 내려놓으며, 무엇을 하든 지극히 하려 했고 아직 둘 아닌 하나인 도리를 확연히 체험하지는 못했어도 그리하려고 노력한다.

작년 비가 몹시 퍼붓던 어느 날 좌선 중에 나는 너무도 확실히 체험했다. 눈 하나 깜박임도 나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님을. 어느 것도 나의 것은 없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임을 알았을 때의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에게 놓고 맡기고 지켜본다. 아무도 없는 공양간 스피커에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가 수없이 들린 적도 있었다. 물론 나의 내면의 소리였지만….

아직은 지금껏 살아온 나의 찌들어버린 업식이나 습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지만 이젠 그 자리를 참으로 확연히 믿기에, 고통이 그 옛날 고통과 같지는 않다. 그저 고통을 느끼고 맛볼 뿐이다.

지금 있는 선원의 주지스님께선 어느 날 죽비를 세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간은 수평이라 생각하여 과거, 현재, 미래라 하지만 시간은 수직이어서 그 셋이 한 줄에 있습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하〉



김광연
(주)유메코 기술부장

"올바른 수행은 놓고 비우고 버리는 것"
선지식 가르침 따라 정진하는 삶 발원

아직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다.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돌이켜보면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올바른 법을 찾지 못했던 것이 지금의 어려움을 가져왔다. 그나마 내 마음속의 순수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우곡선원의 올바른 마음공부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나보다도 늦게 수행을 시작했지만 빨리 변화를 보이는 도반들을 지켜보면서 신선한 자극을 받기도 했다. 그로인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또 다른 스승임을 알게 되면서 도반들에게도 점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어떠한 수행방법이든 처음에는 수행으로 인한 심신의 변화를 누구나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된 수행법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는 것은 초심자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조금은 잘못된 수행법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효과를 보며 비교적 빠른 진전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이후가 더 문제인 경우가 많다. 제대로 된 수행법이 아니면 아무리 수행을 해도 나중에는 별로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수행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경우를 수 차례 보아왔다.

수행에 진전이 없는 이유는 수행자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수행법 그 자체에 있다고 본다. 올바른 수행이란 놓고 비우고 버려서 내안의 순수함을 찾아내면, 그것이 참된 나의 발견이며, 삶의 순간순간 이러한 순수함을 지속시키는 것이 평상심이라고 생각한다. 말은 쉽지만 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올바른 스승의 가르침과 나의 노력이 어우러질 때 가능하다.

십여 년 전 가사를 접고 공부 길에 뛰어든 그때는 그 분만이 이 세상에서 최고이며 그 분 밑에서 공부를 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와 보면 그것이 아니었다. 한 치라도 순수하고 정의로움에서 벗어나면 세월이 흐를 수록 깨달음이나 완성은 더더욱 멀어지기에 완벽한 경지를 이룬 스승 밑에서 수행을 지어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신하게 되었다. 처음 잘못된 수행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눈뜬 오리새끼가 첫 눈에 들어온 사람을 제 어미로 착각하고 살아가듯이 자신의 수행법을 맹신하는 우를 범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잘못된 사법(邪法)에 얽매여서는 진정한 깨우침은 불가능할 것이다.

긴 세월 동안 수행했어도 진전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행법이 올바른 것인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이란 이름으로 쌓은 것들이 아집이 되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덫이 될 것이다.

우곡선원에서 처음 불법을 접하였을 때에는 일체개고(一切皆苦)가 무슨 말인지 조차도 몰랐다. 세상에는 엄연히 즐거움도 있는데 왜 염세주의적인 고통만을 강조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잘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는 그 고통이 내 자신의 마음가짐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외경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절감한다. 수행노력은 줄지 않았다고 자문자답하지만 숙세를 익혀온 업은 긴장을 조금만 풀어도 스프링처럼 들고 일어난다.

그러나 이제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결코 패자가 되지 않으려는 결심으로 다지고 또 다진다. 참선 수행은 숙세의 고통을 이기고 운명의 재창조자로 거듭나는 비법이라는 장명화 원장님의 가르침을 새삼 새기면서 끝없는 마음 공부의 여정을 나아가려 한다.

통증

스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파워 - 봉이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사찰, 선원에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이고,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은 氣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 흐름을 좋게 해주면 통증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 미국, 독일, 캐나다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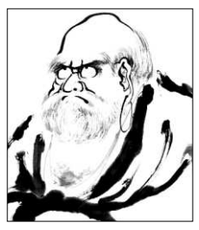
식약청의료기허가 제1119호
품목허가 제03-791호

※ 스님들께 드리는 특별가 50,000원
포교원으로 다량구입하시면 특별 할인 있습니다.

● 농협계좌 : 072-12-288028 주분옥
● 주문전화 : 054)638-2224

천일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영주)

눈만 보면 압니다
"관상과 氣 명상으로 앞날을 밝힌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린세상이 될 것이다.

스님은 지나온 세상과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또한 불행한 운명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중생은 그 불행한 운명이 자신의 몸속에서 떠나야만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다.

관음사는 아프고 고통받는 중생들이면 누구나 찾아와서 스님과 상담하고 기도하는 법당이며 스님은 삶의 굴곡을 겪고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그 답답함과 고민을 스님의 도력으로 그 불행한 운을 퇴마시켜 시원하게 풀어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 굿을해도 소용없고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점을 봐도 답답하고 시원치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 끈이지 않고 부부나 부모자식간에 원진이 끼어 서로 같이 살면서도 고통속에 살며 자식이 결혼운이 없어 고생하시는 분
- 집터나 가게터가 장사가 안되고 매매가 안되 궁금하신 분
- 인생의 성공과 실패 시험결과, 사업의 시작과 끝 즉 자신의 사주에 들어오고 나가는 운이 궁금하신 분
- 신들림으로 몸이 아프거나 실성하고 헛소리나 행동을 하는 사람

석가모니부처님도 인연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했다합니다.
아직 인연이 닿지않는 분들 혼자서 고민말고 바로 전화 주십시요.
조상천도 낙태아천도 병괴를 가져오는 객귀풀이를 돈이 많이 들어 망설이시는 분 연락주시면 보시하는 마음으로 성심으로 봉행 하겠습니다.
천도란 첫번째는 3악도에 떨어져 있는 가장 어려운 중생을 구제하고 두번째는 인간몸을 받았지만 뭐든지 되는 노릇이 없고 내뜻에 맞지 않는 곳에 사는 것입니다.
천도란 자기소원을 이루고 가지가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님을 친견하면 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관음사 주지 고봉 합장
전화 011-715-6333
불사에 어려운 스님 사주통변비법과 기공과 명상으로 영가천도를 하는 영력천도비법을 개인지도 합니다

리더십 그린 아이
(Leadership Green I)

'2004 청소년이 주인공입니다' 의 해를 맞이하여 미래사회의 주체가 될 청소년들에게 인성개발을 통한 리더십 함양과 차세대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배양시키는 다양한 체험활동의 '리더십 그린 아이(Leadership Green I)'를 개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첫·째·날(만남의 날)	둘·째·날(협력의 날)	셋·째·날(도전의 날)
• 집결, 접수 • 입교식 • 강의 I 〈미래지도자의 자세〉 • 리더십 용기개발 I 〈경청·발표·감사하기〉 • 공동체협력활동 • 리더십그린아이 I	• 리더십 용기개발 II 〈낭독식즉흥연설〉 • 리더십 트레킹 〈성공론 찾기〉 • 선택 체험활동 〈스킨스쿠버·요가·공예〉 • 리더십 용기개발 III 〈연설방법·작성법·대화법〉 • 환경의식 역할극 • 캠프파이어 그린아이 II	• 강의 및 실습 II 〈미래 신문 만들기〉 • 모둠별 시간, 짐정리 • 사진촬영 및 감상 • 수료식

※ 전 과정이 체험 및 실습 위주로 이루어짐

- 일 시 : 2004년 7월 28일 ~ 7월 30일 (2박 3일)
- 장 소 : 국립 중앙청소년수련원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교촌리 246-1 ☎ 041-620-7700)
- 주 최 :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 후 원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참가대상 : 고등학생 / 선착순 45명
- 참 가 비 : 30,000원 (총130,000원 중 100,000원은 본 법인부담) 조흥은행 390 - 01 - 041767 (예금주 - 청소년교화연합회)
  ※ 입금 후 필히 연락, 확인전화 바람
- 접수및신청 : 2004년 7월 1일(목) ~ 20일(화) 18:00까지 선착순 접수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중앙사무처 (TEL 02)735-8165, 733-5138 FAX 02)722-6623)
- 특 전 : '리더십 그린 아이(Leadership Green I)' 수료증 발급

사단법인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

제19회 참 나 찾 기
팔관재계 한 가족 큰모임
(선 심리치료상담과 무애선무 명상호흡 수련회)

1. 행사목적
   팔관계율을 지킴으로서 순결의 고귀함과 생명존중사상을 함양하고, 단기출가의 효과와 전통사찰문화를 체험하며, 선심리치료상담과 무애선무 명상호흡 수련으로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와 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자 한다.
2. 주요 수련내용
   - 팔관재계(생명존중, 순결지키기 등)
   - 전통사찰문화 체험(단기출가의 효과)
   - 선 심리치료상담
   - 참나찾기 수행과 무애선무 명상호흡법지도
   - 숲 속 걷기명상수련 및 산악극기
   - 적극적인 사고 함양
3. 일 시 : 2004년 7월 24일 ~ 26일 (2박 3일)
4. 장 소
   신촌 봉원사, 순천 선암사, 거창 금원산 수련원
   (집합장소 및 일시 : 7월 24일 09:30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
5. 참가자격 및 신청
   초, 중, 고등 청소년 및 가족 (7월 22일 까지 선착순)
6. 참 가 비 : 실비 (2박 6식)
7. 문의전화
   Tel: 02)738-1275 / 봉원사 위치 문의시: 02)392-3007
8. 준 비 물
   세면도구, 츄리닝, 운동화, 필기도구, 간편복장, 기타
9. 특기사항
   봉사활동시간 확인서 발급 (18시간)

(사)참나찾기청소년지도자협회
명 상 신 문 사



쿨~하게
차 한잔으로 올 여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주르르 흐르는 여름. 차가운 물 한잔이 간절해지는 때다. 하지만 0℃~4℃의 차가운 물은 위에 부담을 줘 다른 음식물의 소화를 방해해 배탈이 나기 쉽다.

옛선인차회 강우석 회장은 "여름에는 찬 음료 대신 약성이 시원한 녹차와 감잎차, 뽕잎차, 국화차 등을 마시는 것이 더위를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감잎이나 오미자, 구기자 등은 열을 내리고 기운을 보충해 주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에 마시기 좋은 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연꽃차 — 질병예방 효과 향기 진하면 다른 차와 섞어서

7월 중순에서 8월말까지 절정을 이루는 연꽃은 해열 · 지열 작용이 있으며 설사를 하거나 코피가 자주 나는 사람에게 좋다. 사찰음식연구회장 홍승 스님은 "연꽃은 차로 마실 경우 면역성을 높여주고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연꽃차는 저녁나절 연꽃송이가 오므릴 때 비단이나 모시 주머니 속에 차를 넣고 꽃심에 놓았다가 다음날 아침 꺼내 달여 마시는 것이다. 들차회를 하거나 집에서 마실 때는 줄기에서 20~30cm 정도 잘라 차 주머니를 넣어 둔다. 꽃향기가 진하다 싶으면 다른 차와 섞어 마시고, 찻잎이 남았을 때는 냄새가 나지 않는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한다.

서울 봉원사(7월 17일)나 남양주 봉선사(7월 23일), 보성 대원사(8월 30일까지), 강화 선원사(7월 24일) 등 전국 사찰에서 열리는 연꽃축제에서도 연꽃차를 맛볼 수 있다.



연꽃이 피는 여름이면 전국 곳곳에서 '연꽃차 들차회'가 열려 차인들의 발길을 모은다. 사진은 (사)예명원 손민영 이사장이 연꽃차를 우리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감잎차 — 비타민 C 레몬의 20배, 칼슘 풍부 빈혈에 탁월

감잎은 레몬의 20배 정도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다. 특히 눈의 피로를 푸는데 효과가 있으며 동맥경화, 당뇨병 등 성인병을 예방하기도 한다. 봄에 채취한 감잎에는 칼슘 성분 또한 풍부해 빈혈에도 좋다.

3~6월에 감잎을 따서 잘 말려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차로 우려 마신다. 감잎차는 조금씩 몇 차례에 나눠 마셔야 체내에 더 잘 흡수된다.

구기자차 — 피로회복 도움, 계피 · 대추 등 넣어 우린다

구기자차는 꾸준히 마시면 몸의 저항력을 높이고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를 내리는 작용을 한다.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린 직후에 마시면 좋다. 또한 눈과 귀를 밝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직장인들에게 적합하다. 구기자차는 구기자 열매를 찬물에 씻어서 건져낸 후 계피와 대추 등을 넣고 은근한 불에서 30분간 끓여 만든다.

오미자차 — 몸 수분 외부 유출 막고, 신맛 기운 회복 도움

오미자는 몸안의 수분이 필요 이상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땀샘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 건조된 오미자를 약한 불에 은근히 달여 꿀이나 설탕을 타서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뜨거운 물에 약 10분정도 담갔다가 꺼내서 마시는 것도 좋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최치원 선생 헌공다례제

'제9회 최치원선생 추념 헌공다례제 및 두리차 한마당'이 8월 1일 오전 10시 해운대 동백섬 최치원선생 동상 앞에서 열린다. 동백섬문화관광축제추진위원회와 해운대문화예술원은 최치원 선생의 생전의 학문을 기리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매년 다례제를 개최하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차회나 대학은 7월 30일까지 전화나 홈페이지(www.haeundaemunhwa.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051)740-5363

명원문화재단, '명원다례' 펴내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이 한국의 전통 다례법을 소개한 <명원다례>를 펴냈다. 책에서는 차의 역사와 차 즐기는 법, 절하는 법을 설명하고 생활다례, 선비 생활다례, 접빈 다례 등의 순서를 사진으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값 5만 5천원. (02)730-7191



우리 사찰 차 모임 — 강화 백련사 명선차인회

지역 문화사절단 자리매김



명선차인회(회장 김선경)는 6월 30일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문화마당에서 말차시연회를 열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박재완 기자

"한국 녹차, 정말 맛있어요."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가 열린 김포 중앙승가대. 본관 1층 로비에 마련된 다실에 외국 참가자들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감탄사를 연발한다. 휴식 시간이면 차를 마시려는 사람들로 다실은 만원을 이뤘다.

강화 백련사 주지 혜성 스님이 이끄는 명선차인회는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여성불자들에게 차 한 잔과 따뜻한 웃음을 건네며 '문화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명선차인회 김선경 회장은 "우리 녹차를 잘 모르던 외국인들도 차 맛에 반해 몇 잔씩 마신다"고 말한다.

명선차인회는 1998년 혜성 스님이 강화 백련사와 강화문화수련원에서 교육한 차인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차회다. 지금까지 100여 명의 차인이 배출된 명선차인회는 강화 지역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문화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화군이 개최하는 진달래 축제와 고인돌 축제 때는 관광객들을 위한 차 시연회와 시음회를 펼친다.

교육과정은 초 · 중 · 고급 과정을 각각 3개월씩 거치고 나면 사범반으로 진급해 공부하도록 꾸려져 있다. 수업은 혜성 스님이 직접 만든 교재로 진행된다. 차의 역사와 효능, 종류 등 차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교육이 꼼꼼하게 이루어진다. <다신전>과 <동다송> 등의 다서도 꾸준히 읽고 있다. 봄이면 직접 차를 만들어 보기 위해 하동의 다원을 찾고,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보기 위해 도요지를 견학하는 '현장학습'도 빼 놓을 수 없다.

초·중·고 교육 각각 3개월 거치면 사범반 진급
직접만든 교재로 꼼꼼한 이론과 현장학습 병행

인천을 비롯해 각 지역 지부가 활동하던 명선차인회는 올해 사단법인으로 거듭났다. 혜성 스님이 백련사 주지 소임을 그만 두더라도 차회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종교를 떠나 인천, 강화 지역의 차문화 발전을 위한 초석을 든든하게 쌓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명선차인회의 눈부신 발전이 기대된다.

인터뷰 — 김선경 회장

홈피 개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



"올해 사단법인으로 등록되고 이사회도 꾸려진 만큼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차회로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선차인회 김선경(47) 회장은 "초대 회장을 맡아 부담을 많이 느낀다"면서도 "앞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 명선차인회의 다법과 소식을 널리 알려 '전통을 이어나가는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서경다도연구회장이자 한국궁중복식연구원이기도 한 김 회장은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차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차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교육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다져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여수령 기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퇴마승

영험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받는사람

참회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 갖는사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 인연기도로 가피를 받은 사례 ◀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욕, 애착, 그리움,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 사후에 구천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해원사 초하루, 18일 법회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팔보효소)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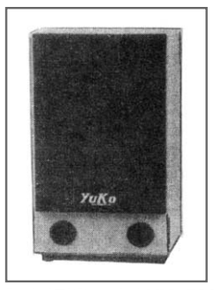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엄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마음으로 쥐고 있지 말고 찰나찰나 놓고 가라

틀을 깨고 삶을 바꾸려면…

문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혜안으로 보실 때에 중생 나름대로의 정해진 길이 다 보이고, 그래서 아마 부처님께서도 개개인의 문제를 대신해 주지 못하는 데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도 어쩔 수 없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중생 개개인의 굴레라고 할까, 틀을 타파하여 참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을지요?

답 나는 누가 이렇게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불쌍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걱정할 게 없지 않느냐. 너도 불쌍한 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니까 불쌍하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불쌍하다 하면 불쌍하지 않은 게 닥쳐오고 불쌍하지 않다 하면 불쌍한 게 닥쳐오니 그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옳으냐 이겁니다. 그럼 불쌍하다 불쌍하지 않다를 다 놔라. 믿고 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 미래와 이 현재를 닦아 나가느냐 하면 그 양면을 다 놓아라 이럽니다. 믿고 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믿으니까 그대로 자동적으로 돌아갈 게다.' 이럽니다. 이거는 천차만별 아닙니까. 어느 결에 그냥 부지불식간에 닥쳐오는 것도 있고, 병이 들 때가 있고, 그냥 재산이 몰락하는 수가 있고. 그런 모든 게 닥쳐오는 것이 미리 예고가 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에 의해서 다 그게 오는 거니까요.

그럴 때에 꿈이라든가 뭔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거를 다 믿고 놓아 버린 상태에서 생각의 생산을 해라 이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어떠한 생각이 들든지 거기 놓아 버리고선 좋은 생산의 마음을 키우세요. 언짢다 그러면 좋은 게 닥칠 거고 좋다 하면 언짢은 게 닥칠 테니 이걸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그러면 이 양면을 다 놔라, 믿어라 이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체 없는 그릇에다가 놓을 것도 없지마는 거기다 마음을, 없는 마음을, 그 다가오는 마음을 거기다 놓을 때에 양면을 다 놓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놓게 된 상태에서 나는 좋게 생각을 해라 이겁니다, 좋게. 아주 죽을 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는 좋은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대로 좋고 그대로 밝아 있으니 좋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죠. 그러면 이 양면이 다 들어가서 그냥 거름이 돼 버리고 그냥 우쭐우쭐 자라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구덩이에서 나오느냐 들어가느냐 여기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양면을 다 놓고 내 마음 씀씀이를 잘 생각을 한다면, 산만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닥쳐오는 대로, 내 앞에 닥쳐오는 대로 그냥 좋게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양면을 믿고 거기다 놓고 그냥 생각을 좋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빨리 다가오는 것도 있고 조금 더딘 것도 있고 아주 더딘 것도 있지마는 언젠가는 그것이 돌아가면서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 과거로부터 현재로, 현재로부터 미래로, 미래로부터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 양면을 다 놓는다면, 과거 미래 이것을 다 놓는다면 우리는 생산처에서 자유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 마음먹는 게 자기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미래를 귀신을 만드느냐 부처를 만드느냐, 이것도 바로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집어서 어떻게 말을 해야만 미래를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느냐. 자기가 해 봐야 맛을 알지 해 보지 않고 어떻게 맛을 아느냐 이럴 때, 믿고 양면을 놓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타파가 될 것이고, 그게 타파가 된다면 삼세심 내공이 타파가 된다 이거예요. 그냥 왕래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그걸 알게 되거든요, 다. 아주 손살피 나오거든요. 근데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는 사람 앞에 이걸 말로다가 하려니 안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거 공부할 때는 내공에 세우지 않고는 안되니까, 내공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모든 돌아가는 그 근본을 쥐고서 거기다가 믿고, 내가 과거에 살던 것이 지금 현재에 나오는 거, 습이 나오는 거, 또는 미래로 갈 거, 또 꿈을 꾼다든가 이러한 거를 다 거기다 믿고 놓아라 이겁니다. 거기서 돌아가는 거니까. 거기다 생각을 잘해라. 꿈도 해몽을 잘하면 잘되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생산이다 이거예요.

'에이, 저거는 천상 봐도 그 꼴이 그 꼴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꼴이 그 꼴이죠. 또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사는 사람 전부 그래요. 남편한테도 그렇고 아내한테도 그렇고 또 조상한테도 그렇고 전부, 벌레한테도 그렇고 모든 걸, 물질을 보면 보는 대로 이 생각에 따라서 그냥 생각을 해 버리거든요. 근데 물질을 백 가지를 봤더라도 다 그냥 거기에 놓아 버린 뒤에 그 자기가 내면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거예요.

바로 자기한테 부(父)가 있고, 자기한테 스승이 있고, 자기한테 부처가 있고, 자기한테 법신이 있는 것을, 그것을 모르고 콩쌍이 콩씨를 저 바깥에서 찾듯이 그렇게 찾는다면 그거는 천 년이 가도 안되고 백 년이 가도 안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놓아야 하나요?

문 늘 수행 과정에서 방하착 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합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놓고 생활해야 곧 참선이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방하착을 '방하착이다' 하면 방하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모두가 참만이 나를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믿고 무조건 '너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어.' 하고 놔라 이겁니다. 그것이 방편 중에 제일 첫번 관문입니다. 제일 지금 필요로 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마음 먹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마는 난 그렇게 어렵다고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이름에 끄달리거나 남의 몸뚱이에 끄달리거나 허공에 끄달리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못났든 잘났든 자기 마음의 주인이 제일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모든 일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겠걸랑 하루하루 해 나가면서 누가 하는가 지켜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알 바가 있을 테니까요. 누가 똥을 싸고 있고 누가 자고 있고, 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누가 생각하고 있고, 누가 생각을 잘못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올게 되고 그러는가 한번 잘 지켜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로 돌아간다는 이치를 알고 본다면 모두가 바로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을 때 비로소 생각을 좋게 낼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비하게 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그 마음을 자비하게

답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이랬기 때문에 '공도 색도 둘이 아닌 까닭에 공은 공대로 있고 색은 색대로 있느니라.' 하는 걸로 비유됩니다. 그런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한다면 이치가 납득이 되기가 힘듭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해야 되겠죠? 모습은 다 다를지언정 뿌리는 한 뿌리이다. 뿌리는 한 뿌리고 생명은 한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모습은 다 다르다. 각계각층이 말입니다. 먹는 것도 각계각층이 천차만별로 다 자기 먹는 게 따로 있듯이, 곤충이 먹는 게 따로 있고 사람이 먹는 게 따로 있고 짐승이 먹는 게 따로 있듯이, 모두가 천차만별로 먹고 사는 그 도리를 전체 바다로 비유를 해서 부처님께서는 '바다를 삼키고 토해서 만 중생들 한테 각계각층에 먹을 거를 알맞도록 내려 자비를 베푸신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두가, 우주 전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대천세계를 아주 작게 정맥 동맥으로 비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신세계 물질세계를 한데 합쳐서 정맥 동맥이라고 한다면, 정맥이 없어서도 안 되고 동맥이 없어서도 안 되죠. 유듭게 응용하고 살아라 이거지 산이 어떻고 물이 어떻고 이것 따지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목마르면 그냥 먹고 또 나무가 필요하면 나무를 가지고 꽃이 필요하면 꽃을 보고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지, 산이 고정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도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몸체가 바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입니다. 우리도 지수화풍이니까요.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

문 우리가 한 철 나왔다가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 신령한 의식만 남는다고 했는데 그 의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꽃씨가 떨어져서 또 꽃이 피고 그러듯이, 연어가 자기 몸뚱이를 형성시켜 놓고 죽듯이, 우리가 자기 껍데기 헌 옷을 벗으면 새 옷을 입고 다시 형성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한 철나에 돌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생사가 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옷을 벗게 하는 것도 주인이요 벗지 않게 하는 것도 주인입니다. 이 세상에 나온 것도 주인이요 이 옷을 벗는 것도 주인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입은 것도 없고 벗은 것도 없습니다. 본래 밝아요, 그냥. 그렇게 믿는다면 바로 그것이 진짜 자기 자부처를 찾아서 그대로 행하는 보살인 것입니다. 바로 부처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그래서 차원이 높으면 높은 대로 끼리끼리 모이고, 차원이 낮으면 낮은 대로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가 있다 합니다. 그것도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계지 그 세계가 그대로 그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네 마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철에 차원이 높아져서 이 한 발을 벗어 놨다면 세세생생에 끄달리지 않을 겁니다. 생사에도 끄달리지 않을 것이요, 자유스럽게 껄껄 웃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죠. 부처님께서도 자유인이시죠, 부처님이라는 이름은 모두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라고 했고, 둘이 아닌 까닭에 여여하게, 정맥 동맥이 막 같이 돌아가니까 즉 여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느 분 한 분을 가지고 부처라고 했던 게 아니고 여래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진짜로 부처로 만드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을 배워야 할 당위성

문 왜 우리들은 불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여쭈고 싶고, 그 다음에, 중생이 세상을 살다보면 생노병사를 비롯해서 슬프고 괴롭고 어지럽고 하는 많은 일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을 증득해야만이 그런 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마음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부처님의 세계를 증득을 하게 되면 어떠한 세계가 열려지고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인지요?

답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은 이 도리를 알지 못하고는 도저히 나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고 너와 나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 사생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끄달리게 되면 영원히 고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도리는 알아야 되겠다 이러는데, 왜 여기서는 몰락 놓으라고 하느냐.

만약에 어떠한 것을 체계적으로 규명을 지어서 이것을 가르친다면, 이 선법이라는 것을 규명을 짓고 틀이 딱 짜여져서 가르친다면 이 전체 일체 사생하고도 화합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할 수가 없고 같이 말을 할 수가 없고, 같이 들을 수가 없고 같이 볼 수가 없고, 이런 까닭에 나는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까닭에 내가 이 도리를 공부를 안 하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무(無)의 세상이나 무의 법, 무의 활용, 유(有)의 활용, 유의 법에서 모든 진리의 규합된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고(苦)를 받는데, 그 결과에 도달을 하게 되면 또는 그거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전부 융합이 돼서 나는 자유권에 도달하게 되

☞30면으로 계속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하게끔 맡기는 것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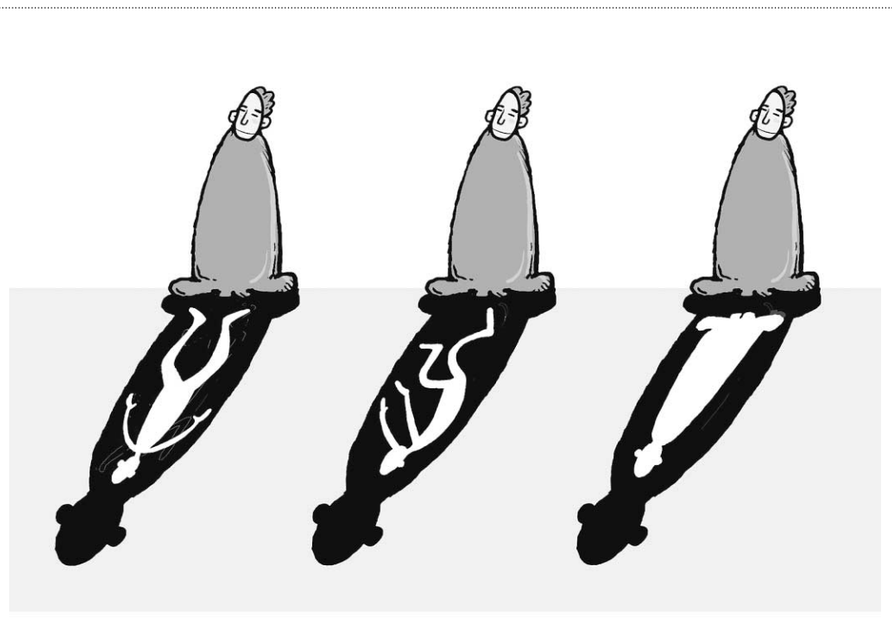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떤 생각이 들든지 놓고 좋게 생산 되도록 해라

선 아닌 게 없죠. 그러니까 본래 진리라는 것이 고정된 게 없이 돌아가니까 그대로 거기다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딱 쥐고 있지 말고 하루살이로 그냥 찰나찰나, 놓고 가란 말 안 해도 지금 놓고 가는 겁니다. 모두들 놓고 가면서도 그 마음으로 당겨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자꾸 걸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래 놓고 가는 건데 마음으로 놓고 가질 않으니까 '그것 좀 놔라, 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또 이차적으로 "야! 네 뿌리에다 놔라. 네 뿌리만이 너를, 네 나무를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으니까 네 뿌리에 믿고 놔라, 놔라." 영 안 놓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아, 내 뿌리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내 뿌리

내니까 좋게만 생산이 되고 두루 하게 되니 그것이 부처님의 뜻이요, 자유인이요, 바로 그게 멋진 사람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안으로는 움즉거리지 않으면서 바깥으로는 천차만별로 움직이면서 그 자비심이 그냥 통틀어 돌아가니 그게 생산이라 누구도 건져지지 않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색즉시공과 산은 산 물은 물

문 진리는 모두 하나로 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신 것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맥 동맥이 둘이 아닌 까닭에 정맥은 정맥대로 있고 동맥은 동맥대로 있다 이런 거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죠? 그렇게 비유를 하면 여러분이 잘 납득이 되실 것 같아서 전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정맥 동맥으로 하나로 묶어서 얘기해 드린 것입니다. 정맥 동맥 양면이 돌아가지 않으면 몸 전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맥과 동맥이 둘이 아닌 까닭에 이름해서 정맥이라는 이름이 있고 동맥이라는 이름이 있느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인데' 도 소용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

못났든 잘났든 자기 마음의 주인이 제일

☞29면에서 계속

죠. 대자유인이 되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우주의 이 섭리나 지금 세상의 섭리나 모든 걸 알게됨으로써 또 세상의 생명들이나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나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나 보이는 모습들이나 다 자기가 잘나잘나에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활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한의 묘법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자기가 벗어나는 반면에 자기는 자유인이 됨으로서 슬퍼도 슬픈 걸 모르고, 괴로워도 괴로운 걸 모르고, 또 욕심도 애착도, 이런 것도 다 녹아버려서 항상 잘나잘나 하루살이로 살면서 여여하다는 그 말도 하나 붙지 않고 그대로 저 강물이 저렇게 아무 물이나 들어가도 도도하게 흐르듯이 그냥 그대로 흐른다 이겁니다.

자유인에게도 내가 있는 것입니까?

문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나라고 하는 그 나가 없다고 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 영원하지가 못하고 항상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네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라고 봅니다. 나를 죽임으로써 진리의 세계를 보거나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자유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인이 될 때에도 '나'라는 것이 있습니까?

답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온다. 그러니까 나한테로 일단은 다 놔라. 그러면 나한테 놓으면 나로 인해서 나를 거쳐서 바깥으로 나기도 하고 들기도 하는데 그것이 몽땅 한 군데서 나고 든다는 것을 자기가 증득한다면, 그것을 안다면 스스로 자기는 감응이 되고 스스로 자기와 자기가 둘이 아니게 된다 이겁니다. 스스로. 즉 말하자면 둘이 아니게 자기가 발견이 된다면 그때서부터 진짜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그 자심을 얻었을 때 첫째 타심통이 옵니다. 타심통이 올 때는 그걸 자심으로 돌려라. 자심으로 돌리되 바깥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안으로 자심을 다시 돌린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숙명통이 온다. 타심통이 올 때는 숙명통까지도 오거든요. 그러면 숙명통이 오게 되면 그 숙명통 조차도 자심으로 돌린다. 또 천안통이 오면 천안통대로 자심으로 돌린다. 또 천이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도 나의 자심으로 돌린다. 그럼 신족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건 자심으로 돌린다.

다섯 가지를 왜 다 자심으로 돌려야만 되느냐. 이것이 타심통으로 왔을 때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알게 되죠. 요 속은 요렇고 저 속은 저렇고. 그런데 만약에 그걸로써 끝난다면 그건 점쟁이밖에는 안됩니다. 그렇죠?

또 숙명통이 올 때 그것을 바깥으로 발설을 해서 지나온 걸 다 아는 그런 말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점쟁이하고 미치광이가 된단 얘기죠. 자유권을 얻지 못하는 그런….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타심통도 자심이요, 숙명통도 자심이요, 천이통도 자심이요, 신족통도 자심이요, 천안통도 자심이요, 이렇게 자심으로 돌리다 보면 그때 무심이 되는 겁니다. 무심이 됐을 때에 무심이 됨으로써 무심에서 이 골수를 통해서 그대로 또 작용을 할 때에 이 무심 자체도 인제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한철에 차원이 높아져서
한 발을 벗어 놓는다면
세세생생에 끄달리지 않을 겁니다

무심 자체라는 그 언어도 없어지는 거죠. 왜? 골수를 통해서 이거는 자유자재하게 굴리는데 거기서 또 이 자심이라는 걸로, 이 하나로 들고 난다 하는 걸 그거를 무심으로 돌리기 위해서, 공심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굴리는 것을 숙달을 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이 다섯 가지를 자심으로 돌렸을 때에 그걸 숙달을 또 해요.

이거는 하나로부터 모든 전체가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하나로부터 무엇이 돌아가느냐 하면 이 가고 옴이 없는 것도 하나로 인해서 내 마음으로 돌려서 가고 옴도 없을 것이요, 두루 보는 것도 가고 옴도 없을 것이요, 보는 것도 없을 것이요, 남의 모든 마음을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게 없으며, 또 숙명을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게 없으며, 이렇게, 이렇게 돌려 가지고 그것이 다 됐을 때에 오신통에서도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놓는 반면에 말입니다.

오신통에서 벗어나면 그때에 이제 활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위법의 활용을 하는 데에 이건 각본대로 오는 거를 자기가 오는 대로 그 숙달을, 즉 말하자면 저승에 가서 죽은 사람을 만나 봐야 될 때는 저승에 가서 죽은 사람을 만나 보기도 하고, 이승에서 만나 볼 때는 이승에서 만나 보는데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전자의 숙명을 보면서 그것을 다 숙달을 하는 거죠, 체험을 하고. 그 누진통을 배우기 위해서 그것이 숙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도 놓고 저 사람이 어떻게 지내온 것도 놔야 되고 저 사람을 내가 두루 보는 것도 놔야 하고 듣는 것도 놔야 하고 가고 오는 것도 놔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오신통에서 '아, 이것이 이렇게 내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 거로구나.' 하고 그때서야 오신통에서도 탁 벗어나고 무심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무심으로 벗어났을 때에 그때 오신통을 하는 거를 하나하나 인제 정작 배우는 겁니다. 오신통을 벗어난 뒤에 오신통을 하는 거죠. 오신통 하는 거를 숙달하는 거구요. 그것을 1차의 면벽, 2차의 면벽, 계단 없는 면벽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3차의 면벽이 되면 오신통도 벗어나서 정작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듣는 것도 보는 것도 하나하나 동시에 굴릴 수도 있고, 중심점이 있기는 있는데 중심점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 자의와 타의를 다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의와 타의를 다 놓았기 때문에, 벌레 하나 풀 한 포기도 다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풀 한 포기도 버릴 게 없는 겁니다.

무아가 돼서 내가 했다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기준도 없고 목적도 없으면서 딱 부닥쳤을 때에 그대로 그냥 저절로…, 마치 돌과 돌이 한번 탁 칠 때에 불이 반짝 일어나듯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산은 푸르르고 이러는 것은 전체를, 물이 흐른다 하는 건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그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용도대로 돌아가니 그래서 하루살이지요. 판단이 개재되지가 않고 뭘 해야겠다 이런 것이 없이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지요. 자동적이고 자동컴퓨터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무위법으로 인해서 보이는 생명들, 보이지 않는 생명들, 보이지 않는 체, 보이는 체, 이런 것을 다 포함할 수가 있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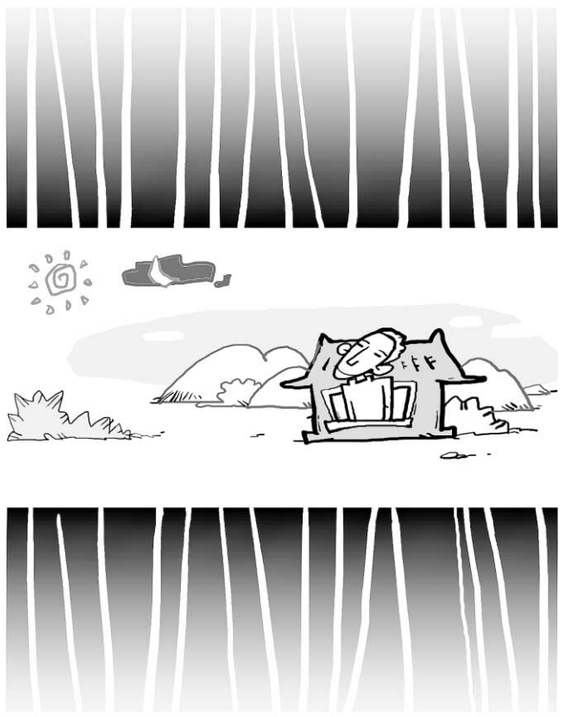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통일을 한 발 앞당기려면…

문 해년마다 6월이면 호국보훈의 달이라 하여 이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산화해 가신 모든 영령들을 추모합니다. 그렇지만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이 한반도가 반 토막으로 살아온 지가 벌써 60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통일을 한 발 앞당길 수 있을까요?

답 통일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우주 삼라만상에 다 통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지금으로 치면 회의를 해서 적합하다 할 때에 하게 된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야 그때가 되면 어느 사람이 주어져서 그 사람이 움쭉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걸 말하자면 글헤 없는 수레라고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데에 연기처럼 구름이 돌아가듯 이렇게 돌아가서 통신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그렇게 돼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도리를 다 알았으면 뭐 천지가 뒤집힌대도 걱정 없지만 그렇질 않으니까, 지금 우리 국내에서 살기도 너무 어렵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도 그렇고 남북통일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떡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를 한 번 생각해 봐서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해야 몇 년 지나면 스르르 이렇게 돌아서 되는 거지 억지로 강제적으로 뛰다가는 안됩니다. 그러니깐 뭐든지 언제나 이렇게 스무스하게 돌아서 돼야 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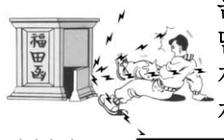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빨리 서둘러서 꼭 이거를 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이 집이 위태합니다.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위태한데 그 위태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고 그러는데, 삼분지일은 공해로 인해서 생기죠. 오존층이라고 할까 이게 자꾸 압축이 되니까 얼음이 만약에 다 녹는다고 해봅시다, 땅덩어리는 파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잘들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공부를 해서 그 모든 거를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마음 이 자리밖에는 없다는 거, 우주하고 통과할 수 있는 것도 마음밖에는 없다는 거,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생활의 문제든 통일의 문제든 지구의 문제든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이 되게끔 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젠 1시간 만 투자하면 완벽한 절이 됩니다!!!
절을 氣차게 잘하는 법
(흡흡호 호흡법의 최첨단 건강 비법 공개 수련회)
● 입은 숨을 쉬는 곳이 아니고 코 입니다.
● 세치의 혀를 잘못 놀려 망신 당하는 것 보다 입 벌리고 숨을 쉬어 병나고 망하는게 더 무섭다.
● 절, 염불, 독경, 주력 수행하고, 노래 할때 어깨, 가슴을 들먹거리며 입으로 숨을 들이 쉬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병고액난의 어리석은 짓이다.
○합장하고 일어설 때 저절로 단전 호흡이 되어져 우주의 밝은 에너지가 꽉 차는 경지!!!
● 절할 때 힘이 빠지고 몸살나고, 피곤하고, 지치고, 정신 사납고, 발, 무릎, 허리 아픈게 호흡을 잘못한 것
○접족례에서 숨을 내쉴때 날숨이 길어져 나쁜 기운은 순간 빠져 나가고 맨돌핀, 쾌락 호르몬인 토파민은 끊임 없이 나와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환희로우며 언제나 생생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체험하는 경지!!!
○헐떡거리며 입으로 숨을 쉬는 역호흡은 불행과 병고액난의 직접 원인!!!
● 상기병, 냉병, 소화불량, 당뇨병, 고혈압, 비만, 디스크, 관절염, 신경통, 아토피, 비염, 축농증, 우울증, 불면증, 감기몸살, 만성피로, 자궁근종, 변비, 자폐증, 치매 환자는 100% 입으로 숨을 쉬는 역호흡으로 찬바람, 먼지, 세균, 병균이 직접 입으로 들어와 몸이 차가와 지며 성인병의 원인! 공부, TV 시청, 컴퓨터, 잠잘 때 입벌리고 있으면 바보나 병자, 불행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니 빠른시일내에 수련에 동참하여 치유 하십시요.
★호흡에 맞춰 절하는 수행으로 단식일에 극복된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 수련일시 : 매주 화요일 낮 : 2시, 저녁 : 7시
▶ 수 련 비 : 입회비(만원), 수련비(2만원 : 3회 교육 가능)
▶ 오시는 길 : 지하철 5, 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에서 천호방향으로 100M 이망스 가구 4층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전화 : 02)456-4994,0035 http://cafe.daum.net/sorisan
"숨을 氣차게 잘 쉬는법" 책 9월 출간 예정

◆ 행복한 길로 초대합니다 ◆
연린다선방 불교대학
반야심경 설법 특강 수행
반야심경을 알아차리고 체득하는 데에는 지식, 지혜, 지능은 무관합니다. 오직 오롯한 신심과 수련수행으로 인생을 굴리고 허공을 삼키는 주인공 되어 정신 건강, 몸 건강, 돈 건강 찾아 리더로 세상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가르침이다.
반야심경을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 마하반야바라밀
한국불교 1,600년사에 한문 반야심경(270자)을 우리 반야심경(400자로) 에불 봉독합니다. (해석 : 법성)
◆ 개강일자 : 2004년 9월 11일. 12일 (3개월)
◆ 모집정원 : 토요일반 30명, 일요일반 40명 매주 토, 일요일 출석
◆ 공부과정 : 주인공 찾기 6룡 과정 수행, 반야심경 설법, 108 참회선법, 요가, 통성예불의식
◆ 입학자격 : 대장부격, 여장부격, 눈 밝은이, 출가 희망자, 건강 찾고 싶은 분 (숙식가능)
◆ 현재 여름수련대회 매주 토 일요일 개최 중
◆ 안내전화 : 031-674-7188. 017-203-9400
◆ 교통안내 : 양지 IC 20여분. 일주 IC 10여분, 안성 IC 25여분 소요. 고속버스는 죽산, 안성 하차
황토로 지은법당 백마사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산 125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덜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륜희 043-647-2378, 011-467-1472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부처님 가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7월의 하늘이 너무도 맑아
가만히 바라봅니다
삶의 번뇌하나 가슴으로 남아
요즘 어려운 경제 관계로 힘드시죠?
다소 도움이 되어 보고자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저렴한 비용으로 회원등록을
해드리겠습니다
성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웰빙타고 슈퍼푸드 날개 달다

"건강에 좋은음식 이유알고 먹자"

슈퍼푸드로 건강한 식단을

건강 음식이 주목받고 있다. 몸에 좋다는 성분이 조금이라도 '추가'된 음식은 '웰빙' 딱지를 꿰어차고 건강식품 매장에 즉각 배치된다.

그러나 좋은 성분을 가미한 특정 식료품을 고르기 전에 '건강식품'의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스티븐 G. 프랫 교수는 최근 번역 출간된 <난 슈퍼푸드를 먹는다> (시공사)에서 건강과 장수를 위한 14가지 '슈퍼푸드'를 제시했다. 선택된 식품은 콩, 대두, 귀리, 호박, 시금치, 토마토, 칠면조, 호두, 녹차, 요구르트 등. 각종 연구 및 임상 실험을 거친 이 음식들은 고영양, 저칼로리 조건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도 탁월한 기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친숙한 몇 가지 슈퍼푸드를 소개한다.



육류 대안…심장질환 등 예방 효과

▮ **콩**= 육류의 대안으로 꼽히는 콩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저지방에 비타민까지 풍부한 식품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혈당의 안정과 비만 감소에도 관여한다. 올리브 오일과 각종 채소를 섞어 콩샐러드를 만들어도 좋고, 곱게 다진 마늘과 함께 으깨어 샌드위치에 발라 먹어도 좋다. 가루가 나는 콩은 오래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입 시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철분외 양질 영양소 다량 함유

▮ **시금치**= 시금치를 즐겨먹는 뽀빠이가 힘이 센 것은 철분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시금치에는 철분 이외에도 양질의 영양소를 상당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 영양소들이 결합하여 막강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잎 한 줌을 스프에 넣어 먹거나, 적당히 찐 다음 레몬 주스와 파마산 치즈가루를 뿌려 먹으면 좋다. 향이 달고 잎이 빳빳한 시금치를 고르도록 하고 물에 담그지 않은 그대로 종이 타월로 싸서 냉장 보관한다.



가공한 토마토가 몸에 더 좋아

▮ **토마토**= 전립선암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토마토는 슈퍼푸드 가운데서도 스타급 식품으로 소개되고 있다. 특히 생토마토보다 가공한 토마토가 건강에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다양한 음식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용되고 있다. 토마토 속을 밥과 함께 볶은 토마토 볶음밥은 별미로 좋고 햇볕에 말린 토마토(소금을 넣지 않은 것)를 샌드위치에 끼워 먹는 것도 괜찮다. 체리 토마토에 올리브 오일과 허브를 넣고 살짝 볶아, 파스타에 얹어 먹거나 곁들여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익한 미생물 활동 소화 도움

▮ **요구르트**= 카프카즈 산악지대 노인들이 장수하는 이유가 요구르트 때문이라는 광고가 있었다. 실제로 요구르트는 건강에 유익한 살아있는 미생물과 생물활성물질의 활약으로 몸안의 병원균을 억제하고 소화를 돕는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다. 플레인 요구르트를 오렌지 주스 · 바나나 등과 믹서에 넣고 섞어 셰이크를 만들어도 좋고, 매일 아침 과일과 곁들여 먹어도 좋다. 요구르트를 선택할 때는 저지방 또는 탈지 요구르트인지, 혹시 인공 색소가 첨가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섬유질 단백질 농축…열 · 습기 주의

▮ **호두**= 일주일에 몇 번씩 호두 한 줌 먹는 것만으로도 심장마비의 위험을 적게는 15%, 많게는 51%나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호두 등의 견과류는 식물성 스테롤을 비롯해 섬유질과 단백질 등의 영양소를 농축하고 있다. 빵가루, 마늘과 함께 곱게 다진 견과류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파스타에 얹어 먹거나 생선이나 가금류 저민 것에 곱게 다진 견과류를 입혀 먹는 것도 좋은 방법.

지방이 많아서 쉽게 변질되므로 열 · 습기 ·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밀폐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두면 최고 4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KBS, MBC, SBS, EBS 각종 언론이 인정한
인생역전 김재덕 역학교육원
실력있는 역학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모집과정 : 7월7일 7기생 모집
강 의 : 주 2회(화,수요일)
역 학 : 초 · 중급 – 남륜스님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관상학 (특강 월2회 화요일)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부처님이 있어 늘 행복

우리 가족 이렇게 신행해요 <12>

윤기섭 · 김신자 씨네

"엄마,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십여년 전, 종교와 담을 쌓고 지내던 김신자(48) 보살은 큰아들 준오(20)로부터 이와같은 질문을 받고, '아이에게도 종교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 "훌륭한 어른들은 싸우지 않는다"고 대충 얼버무렸지만 뭔가 개운치 않았다. 그날부터 김 보살 손에 불교책이 자리잡았고, 아들 준오와 딸 수경(14)이는 그 인연으로 석왕사 룸비니 유치원생 명단에 올랐다.

석왕사에서 불심깊은 가족으로 소문난 김신자 보살네의 불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아이들은 룸비니 유치원을 다니면서 부처님법과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매주 어린이법회를 기다리며 일주일을 났다. 김신자 보살 역시 자모회 활동에 하루 이틀 사찰에서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

"불교를 알면서 욕심줄이는 법을 배웠어요. 욕심이 없어지니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얻을 것에 대한 집착도, 얻은 것에 대한 아상도 없었으니까요. 새롭게 받아들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귀했지요."

감로법을 만난 김 보살의 환희심이 매주 수요일 절에서 음성공양으로 피어나는 동안 김보살의 남편 윤기섭 거사(51) 역시 유마회 활동으로 불교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일요일마다 찾은 유마회 모임에서는 법회는 물론이고 법문 청취 후 자유토론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유마회와 인연맺은 것이 벌써 8년이 넘었지만 윤거사에게는 유마회 법회가 있어 '날마다 좋은날'이다.

그런 열정을 품은 부부에게 또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윤 거사의 친형 부부가 서울 목동 법안정사 부부 불자회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현재 100여 쌍의 부부불자들이 등록돼 있는 법안정사 부부 불자회에서는 매달 선지식들을 모시고 법문을 듣는 것은 물론, 매달 한 차례씩 지부별 가정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윤 거사 부부는 친형 · 친동생 부부와 함께 모임에 참석, '가정불교, 생활불교'의 지혜를 배우고 또한 자비봉사, 염불봉사 등의 신행활동도 다졌다.



윤기섭 · 김신자 부부.

불교인연의 귀함과 욕심없는 삶에 감사
부부불자회 통한 자비 · 염불봉사 신행활동

뿐만 아니다. 이들은 상락원과 서구 노인복지관 등지에서 정기적으로 노력봉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틈날 때마다 봉사단원들 틈에 껴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나서기 바쁘다. 석왕사 유마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물심양면으로 힘이 되기도 한다.

작은 실천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들 부부의 신행을 이제 두 아이들이 이어갈 차례라고 한다. 그들 불자 가족의 차기 신행담이 자못 궁금해진다.

강신재 기자

알립니다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은 아늑한 산속 기도도량입니다.

천년된 입체미륵 석불이 땅속에서 나투신 영험있는 기도도량을 준비하는 관계로 이제서야 개방함을 알립니다.

조계종스님으로 강원 및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법력10년이상된 엘리트스님 6분을 모십니다. 보시금은 최고대우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사찰음식에 자신 있으신 공양주보살님 2분도 함께 모십니다. 보시금 100만원. 또한 삼사순례 주지스님께서는 미리연락주시면 점심공양을 무료로 드립니다. 공양인원은 5백명까지 가능합니다.

기도하실 처사님, 보살님께서는 통나무 하우스에서 무료숙식 가능하오니 누구라도 기도효험을 받아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주지 삼밀 합장

031-884-4883

찾아오시는길 : 영동고속도로 여주인터체인지에서 좌회전 → 장호원방면으로 8km가시어 전동면 소재지에서 미륵사를 찾으십시오.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실기훈련 · 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 수 안 내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강 의 : 수요반 – 매주 (수) 오후 2시 ~ 4시
목요반 – 매주 (목) 오후 7시 ~ 9시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장 소 : 본 연수원
※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2. 면,광목(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먹물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대구 증구정 뒤편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눈 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평상



size : 1500×820×400 가격 150,000 할인가 130,000
1800×1030×480 가격 220,000 할인가 190,000

눈 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폴리프로필렌은 반영구적이며 촉감이 어린이 살결과 같은 느낌을 주며 조립식이라 이동이 간편 하고 또한 얼마든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물이 스며 들지 않아 비온 후 바로 앉을 수 있는 평상, 그릇씻는 다이, 채소 등등 다이로 사용할 수 있는 평상. 봄 여름 가을에 자연과 더불어 대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하며 경제적인 휴식공간. 눈 비를 맞아도 썩지 않아 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 전문업체
지구산업
www.bangaro.com
TEL : (063) 323-3010~1
FAX : (063) 323-3012
실용신안 제0305212
의 장 제0300518

지역 대리점 모집

아이디어 라이프 / idea

산을 좋아하는 등산매니아의 꿈의 신발 …

"아이젠부착 등산화 싼스타"출시

제네바 국제발명대회 국내 최초 특상 수상

신발에 부착된 아이젠 미끄러운 곳에서 레바만 돌리면 안전



(그림1) (그림2)



눈, 비 올 때와 하산할 때 최고

등산화의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산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배낭속에 아이젠(미끄럼 방지기구)을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 그러나 이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는 아이젠이 부착된 "등산화 싼스타"의 발명으로 등산매니아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겨울이 아닌 일반 계절에도 하산할 때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실족하는 경우가 빈번이 일어나고 특히 여름 산행은 갑작스런 소나기로 등산길이 대단히 미끄러워 아이젠은 등산을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품이다.

아이젠 등산화 싼스타는 신발 밑창 뒷부분에 간편하게 고정되었(그림1)다가 미끄러운 곳을 지날 때에 간편하게 레바만 돌리면(그림2)눈이 있는곳이나 빙판길 또는 비올 때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아이젠을 간단히 떼었다 붙였다 할수도 있다. 세계적 권위를 가진 제네바 발명대회에서 국내 최초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신발은 기능성도 최고지만 최첨단 신소재가 총동원 된 등산화로, 신는 순간부터 제2심장이란 발바닥 용천을 지압해 장시간 산행에도 피곤함이 없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성 신발 과학의 결정체로 평가하고 있다. 아이젠 등산화 싼스타를 발명하고 개발한 (주)에스더 관계자는 계절에 관계없이 등산에는 꼭 필요한 안전장비라고 강조한다. 가격 135,000원 (080)555-3080

살 빼는 신발 "스타필드"인기짱

독일 뮌헨 기능성 신발대회 대상수상



▶한국, 미국, 일본 발명 특허

다리는 힘이 없고, 운동할 시간도 없어 비만으로 고민하는 이 들에게 신기만 하면 다이어트와 운동이 되는 "스타필드" 신발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다이어트 신발 "스타필드"는 착용자체가 근력 향상과 지압, 스트레칭 효과를 높여 결국 별도의 시간을 내서 운동하지 않아도 신고 활동하는 자체가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 시킨 아이디어가 톡톡튀는 다이어트 슈즈다. 스타필드를 신으면 자연스레 '발중심-발앞굽 보행'만이 가능해 종아리 부분의 근육과 대퇴근이 반복적으로 이완되기 때문에 근력과 지구력을 향상시켜 다이어트의 효과를 얻도록 설계된 신발이다. 또한 스타필드에 적용된 기술은 뒷굽이 없어 뒷축에 실리는 체중을 분산 시켜 뇌까지 전달되는 충격을 일반화를 착용했을 때보다 35% 까지 감소 시켜 준다. 이에 따라 스타필드를 착용해 본 이들은 스타필드의 다이어트 운동효과에 대해 한결도 반듯해 지고 있다며 다이어트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뒤굽을 15 만큼 없앴기 때문에 스타필드는 뒷축이 3cm공중에 떠 있어 키 작아 고민하는 이들이 다이어트의 함께 3cm 커 브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세계적인 전문성 신발 제조회사 (주) 삼덕통상에서 제작하여 전량 미국, 일본, 독일에 수출되는 이 신발은 국내 보다는 일본, 독일에서 먼저 붐이 일어나고 2003년 독일 뮌헨 기능성 신발대회에서 최고의 대상을 수상한 신발이다. 가격135,000원 (080)-555-3080

▶월 2kg 이상 감량 효과

■ 효도신발의 대명사

기능성 건강신발 '룸비니'국내최고인기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로 국내시장 석권

부모님들 받고 싶은 선물로 1위
갑신년 신발 받으면 무병장수 뜻있어 불티



세상에서 이렇게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 있을까? 성불화 룸비니를 신는 순간 누구나 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룸비니 신발 출시 2년 만에 신어본 고객의 입과 입을 통해 10시간을 걸어도 피곤치 않는 신발로 국내 시장을 석권하며 효도신발의 대명사로 브랜드를 굳히고 있다. 한국인 체형에 맞게 인체공학적이고 과학적인 설계로 오래동안 걸어도 발이 피곤하지 않게 만들어진 최고급 기능성 신발이며 천연가죽중에 최고급인 송쉬는 가죽 뉴백을 사용하고 최첨단 신소재와 몸의 균형을 반듯하게 잡아주고 눈비 올 때에 미끄럼방지 기능을 위해 밑창을 초경량 골프그립을 개발했다. 또한 관절염,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신발에서 음이온과 氣와 원적외선을 발산하게 만든 신발이다. 원래는 불자님들의 예불화로 개발했기에 부처님 탄생지 이름 룸비니를 브랜드로 했으나 출시 2년도 안돼 불자님들은 물론 일반인과 기신교 신자들까지도 다른 신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볍고 편하며 디자인도 세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신을 수 있는 최고급 신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에 사는 공무원 K씨는 어머니가 10년이상 관절염으로 활동도 못 하고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하던 중,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란 신문기사를 읽고 속는 셈치고 구입 해 드린것이 지금은 1km 이상 걸을 수 있으며 활동도 한다고 한다. 서초구에 사는 P여사는 신발이 너무 가볍고 편해 1족을 구입했으나 혹시 생산이 중단되면 어떡할까 해서 평생 신으려고 3족을 더 구입했다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신고 법기 쉽게 지프를 달았으며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다는 ㈜ 자를 지포고리에 넣고 밀창에는 가는 곳마다 화를 좋으며,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하는 금강저를 넣어 길 떠날 때에 자신감도 갖게 한 것이 특이하다. 성불화룸비니는 남녀공용으로 225mm~285mm까지 사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 준다. 가격 88,000원 문의(080-330-7555) 농협 906-12-369914 김현석

삼고 금강저 건강밸트

험한 세상 믿음의 호신용으로 인기

삼고금강저 (金剛杵)



삼고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이 쓰이는 무기로 불퇴전의 강한 보리심을 상징한다.

밀교의 단다라에는 금강부의 여러 존상이 모두 금강저를 가지고 있으며 금강역사는 부처님의 물력으로 악귀와 잡귀도 물리쳤을 정도로 금강저 앞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혜의 무기를 뜻한다.



• 장도 튼튼!! • 허리도 튼튼!! • 승리의 수호신!!

국내 불교성구 전문업체인 관음예술원에서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인 삼고 금강저를 밸트에 부착하여 남자분들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축원 불공을 마치고 출시했다. 1분 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납치, 살인, 강음, 강도, 유괴 사고등 항상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믿음의 수호신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삼고 금강저는 부처님의 법구 중 법구로서 닥쳐올 화를 미리 피하게 하고, 악한 인연을 만나지 않게 하며,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모든일에 승리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부처님 성구다. 업체 관계자는 금강저 밸트에서 발산되는 氣와 원적외선은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허리와 장이 약하신 분은 착용하면 튼튼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금강저 자동 밸트는 실용신안 및 건강밸트로 특허를 획득한 국내 밸트 중 기능성을 가진 최고급 자동 밸트로 평가 되고 있다. 출시 기념으로 여성들이 윈드백이 넣어 자신감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도금한 삼고금강저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 가격65,000원 문의(080-330-7555)

화제의 시계

관세음보살 수진언 복 시계

가지가지 재물과 땅속에 보물을 얻으리라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은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의 어려움을 해결 해 주고 각자 소원하는 소망을 성취시켜 주는 영험의 진리를 담고 있다. 불경에 입각하여 불교성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관음예술원은 관세음보살42수진언 중에서 늠에 지니고 다니면 재물이 들어오고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소유하여 가진 재물의 손실을 막아주는 "관세음보살여의주보험수진언"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시계로 제작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종전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업 또는 장사가 어려운 분과 가진 재물을 잃지 않도록 스님께서 불자들에게 그림으로 그려줘 몸에 지니고 다니게 했다. 일본산 고급시계로 앞면에는 관서음보살 여의주 보험수진언을 넣고 뒷면에는 부처님진언을 넣어 품위가 있고 세련되며 선물로도 영원히 남을 듯이 담긴 최고급 선물이라고 관계자는 말한다. 여성용은 75,000원과 남성용은 85,000원에 축원불공을 마치고 보급하고 있다. 문의(080-330-7555)

관세음보살 백연화 향로

네 소망이 성취되고 후손이 영화롭고 번성하리라

'소원성취 향로' 화제집중
99%청동을 만든 국보급 명작

불경에 입각한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관음예술원에서 불교의 관음 신앙에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의 영험의 손모양과 지물을 향로로 제작해 장간불공과 축원 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은 세상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 시켜주는 영험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관세음 백연화는 큰 스님들로 하여금 그림으로 그려져 어려움을 겪는 불자들에게 긴급비방으로 사용해 왔다. 출시한지 100일도 안되어 관세음보살의 성심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부도 위기를 넘기고 2년간 피하기만 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아들이 S대학에 합격하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부동산이 팔리는 등 관세음보살님의 영험이 나타나고 있는 소원성취 향로다. 특히 갑신년에 부처님 공양구를 가정에 모시면 삼재도 소멸되고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며 화를 좇고 꾀었던 일들이 풀린다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관세음보살백연화 향로는 99%청동만으로 국내에서 불경에 입각해 제작했으며 중국에서 싸게 건들어 들어오는 향로는 간들기 쉽게 합금을 하여 2~3년만 지나면 화색꽃이 피고 부식되고 변질되지만 관세음백연화 향로는 천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으므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는 가보와 수호신으로 가정에서 여불시 또는 제례시 사용하다 후손에게 물려줘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 향로로 인정 받고 있다. 가격295,000원 (080-330-7555)



무게2.7kg높이22cm가로17cm